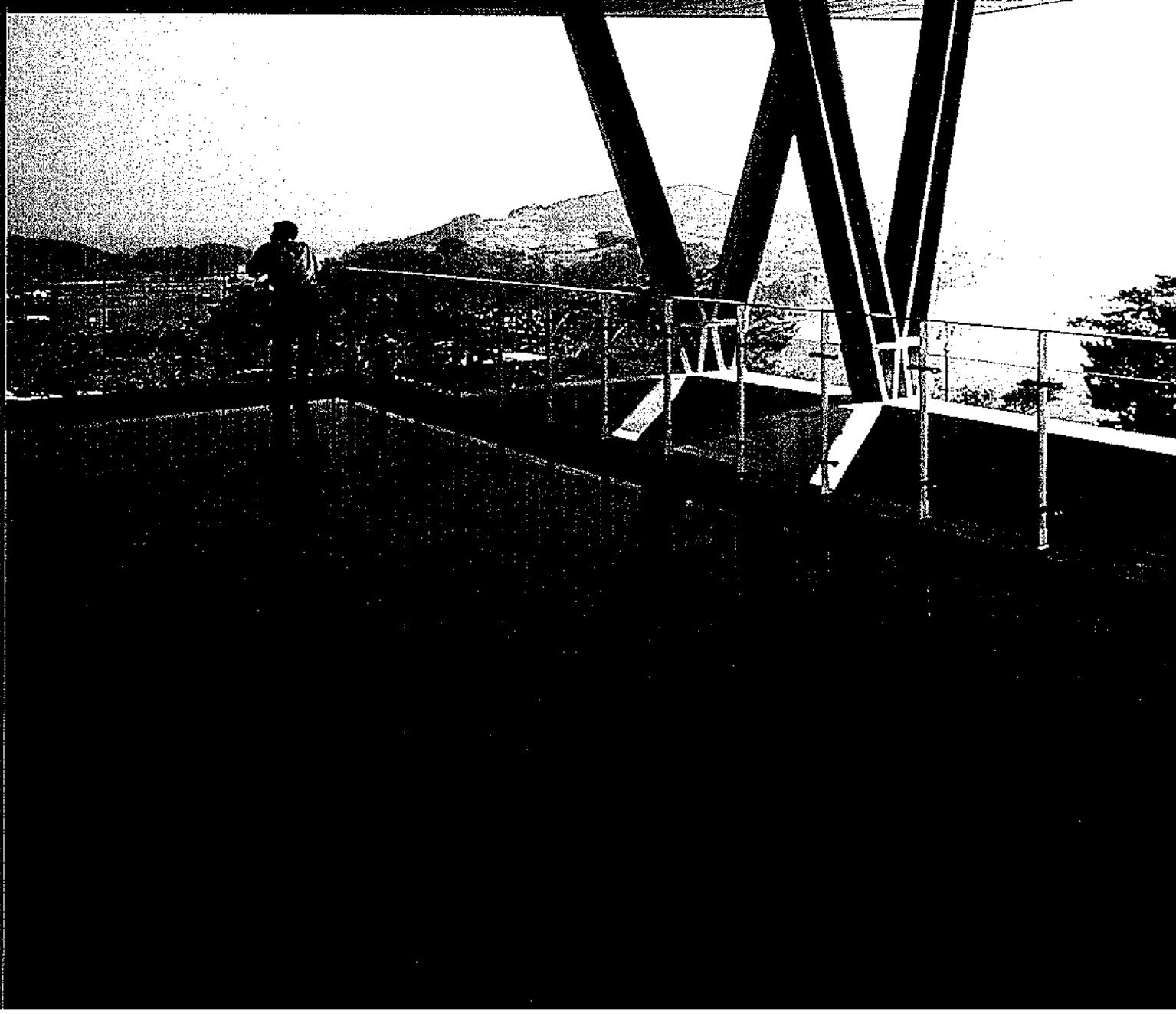
建築士

K.I.R.A | vol. 401 | 2002 09 uia



WHISEN 휘센

LG전자

큰건물에 강하다

LG시스템에어컨 휘센

한 대의 실외기에 접속되는 냉매배관을 단배관으로 직렬구성하여 탁월한 에너지 효율, 편리한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절감은 물론 다양한 실내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효율적 배관구조의 시스템입니다

공간절약과 에너지절약의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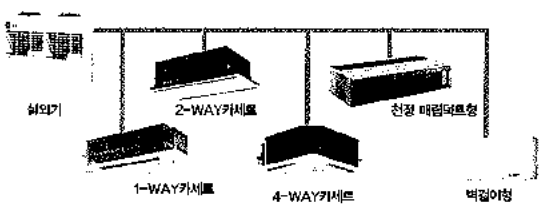
별도의 실내기 설치공간 및 기계실이 필요 없고, 기존 냉난방시스템 대비 최고 40%까지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ESCO자금 지원대상제품)

빠르고 강력한 인버터 냉난방시스템

강력하고 유연한 인버터 압축기 채용으로 ±0.5℃의 미세 온도제어와 1.5배 빠른 쾌속운전은 물론 영하 15℃ 혹한기 난방까지 책임집니다.

자유로운 설계/설치가 가능한 Free Joint 빌딩 멀티

4.5~30Hp의 실외기 용량, 다양한 실내기 기종 및 빌딩에 적합한 냉매배관 시스템(수평 100m/수직 50m)으로 설계가 자유롭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개별/중앙제어 시스템

실내기 개별제어/그룹제어/인터넷 제어/중앙제어/PC제어/ 적산전력 분배시스템등 다양하고 편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제품 구입 문의

강남 (02)2005-3578 강북 (02)727-4180 경기/강원 (031)217-5091 인천/부천/안산 (032)321 9161 부산 (051)807 3241 경남 (055)238-6402 경북 (053)257-0808 충청 (042)254-4210 호남 (062)510-5840 시스템에어컨MC (02)2005-3054

시스템에어컨 기술 상담 안내

서울(02)2005-5055~60 ※시스템에어컨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를 방문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8개국) 발명특허 획득!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스웨덴, 한국, 중국, 캐나다

난방문화의 혁신! 심야전기 보일러 난방비보다 시설비 및 유지비가 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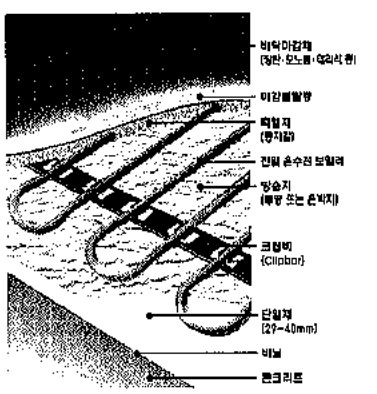
바닥난방 전용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로…

■ 제품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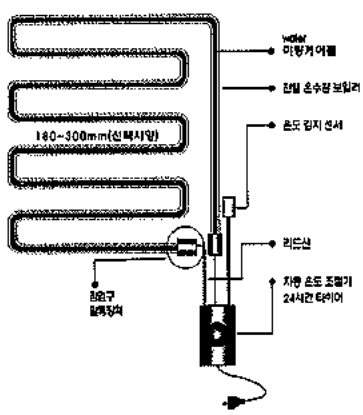
- 보일러실이 필요없는 중앙집중식 개별난방
- 기존 바닥 온수배관 속에 수중 발열선과 열매수를 함께 삽입한 후 분배구를 밀폐, 방별 자동온도조절기로 개별 난방
- 밀폐시킨 공간에서의 가열은 예열시간이 짧고 발생한 온수와 증기로 순환 아닌 제자리에서 직접 방열하므로 열손실 Zero, 열효율 100%로 일반전력요금으로 간접가열 방식인 기름보일러보다 최고 70%의 연료비 절감
- 무소음, 무고장, 무공해로 안전하고 편리한 쾌적한 난방
- 기구 이동없이 구 건물 바닥 배관을 뜯지 않고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로 재활용 가능
- 열매수를 사용하여 과열에 의한 전열선 단절 보완과 함께 전자파 차단효과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 6종 등록

온돌 몰타르 시공방법



온돌 보일러 제품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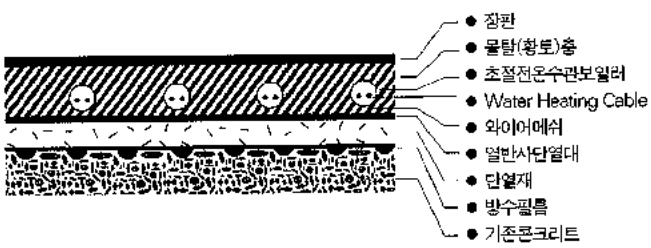


온돌 보일러 시공사양

시공선택사양 방열관 간격(㎜)	평당시공 길이(m)	평당소비 전력(kwh)
300	10	0.19
275	11	0.21
250	12	0.23
225	13	0.25
200	15	0.29

※ 주택용 전력 수용가 제외
※ 건축법 제59조 규칙 단열시공건물 기준

측면 시공도



제품 주 수요처

호텔, 숙박업소, 콘도, 오피스텔, 연구소, 교도소, 실버타운, 사찰, 종교시설, 기숙사, 연수원,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군 · 경내무반, 병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작물 일정온도 유지, 지중난방 등

> 경향전기에너지 절약 부문 산업자원부장관 수상제품
> 정부 각 부, 처, 도, 시, 군, 구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
> 중소기업청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인증
> ISO9001:2000 인증획득업체

※ 당사 온수관 보일러 시공 시 반드시 본사에 계약내용을 통보해야 A/S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유사제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열에너지(주)
Chunyul Energy Co., Ltd

본사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12-1 · **서울본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34 성신빌딩 3층
대표전화 02)928-1090 02-928-1092, 3 **팩스** 02-925-5353 · **E-mail** 1010cy@korea.com
홈페이지 www.chunyul.co.kr

MBC Radio 방송광고 (매일22:59- AM.FM)중
KBS-2 Radio 방송광고 (매일18:04- AM.FM)중

정부조달 우수제품 인정
신기술 KT 인정제품

국내 최초 난연성 인테리어 신소재

불연 인테리어 건축 내장 마감재

안타민

· 불에 안타면서 불의 확산을 막아줍니다
·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양한 칼라, 패턴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 충격에 강합니다.

소방법, 건축법에서의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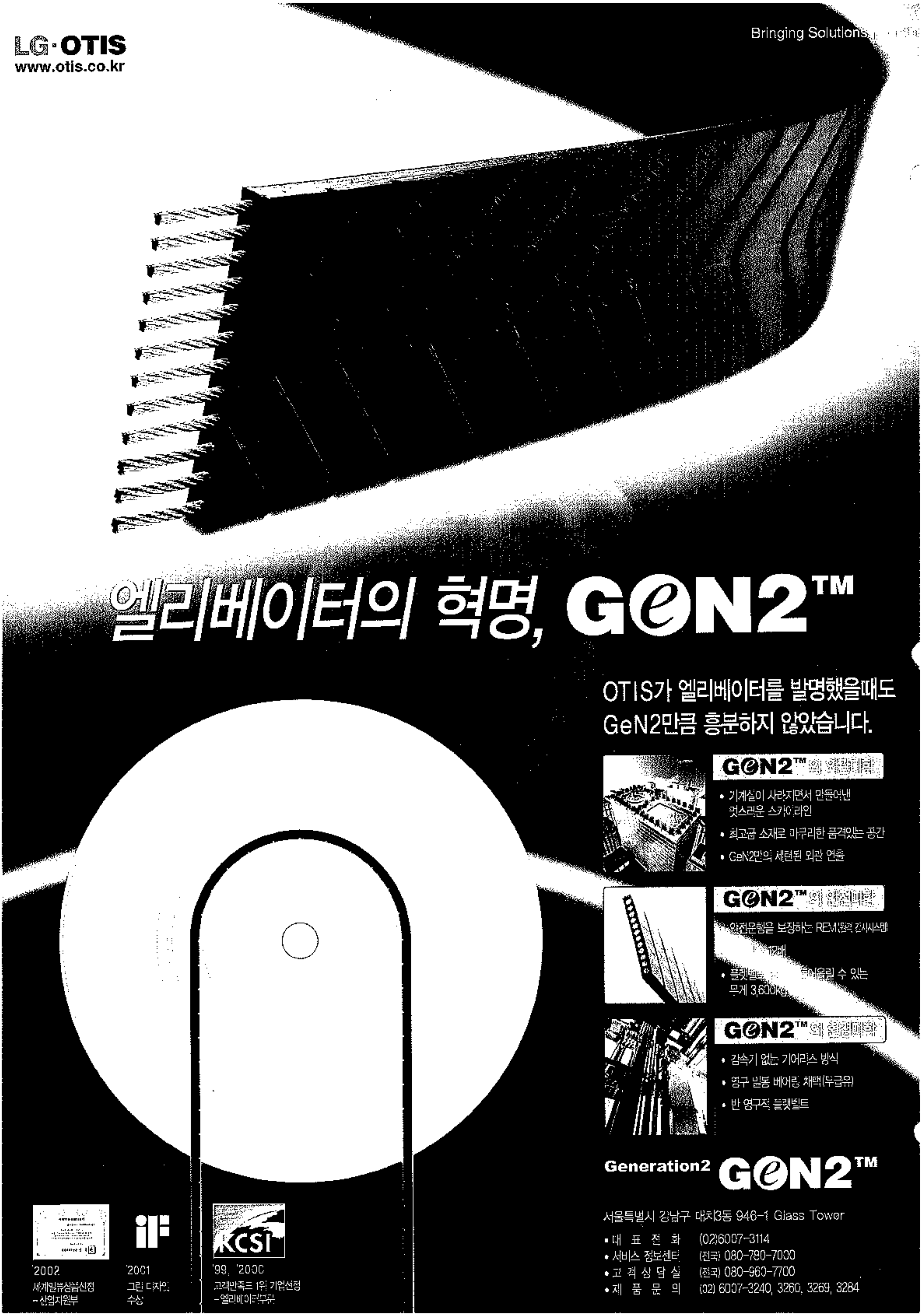
2002. 4. 1 소방법 개정시행(대통령령)

특수장소 및 다중이용업소의 벽체, 천정에
설치하는 실내장식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SEOHAN®

www.antamine.com / www.seohandeco.c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8(남동공단 165B-6L)
TEL:032-815-1674~7 FAX:032-814-4155 E-mail:seohan@antamine.com seohandeco@seohandeco.co.kr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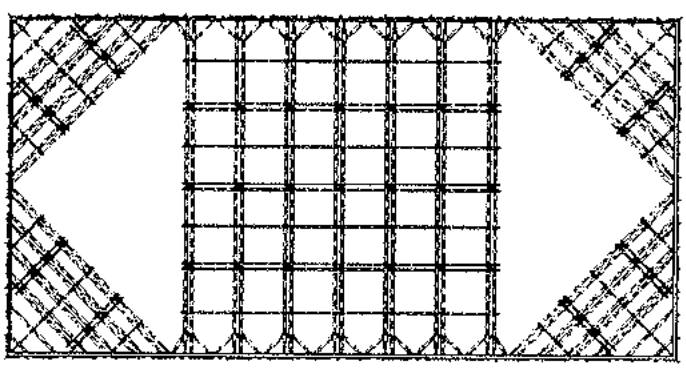
LG·OTIS
www.otis.co.kr
Bringing Solutions
엘리베이터의 혁명, GeN2™
OTIS가 엘리베이터를 발명했을때도
GeN2만큼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GeN2™
• 기계실이 사라지면서 만들어낸 멋스러운 스카이라인
• 최고급 소재로 마무리한 품격있는 공간
• GeN2만의 세련된 외관 연출
GeN2™
•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REM(원격 감시시스템)
12배
• 플랫벨트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 3,600kg
GeN2™
• 감속기 없는 기어리스 방식
• 영구 밀봉 베어링 채택(무급유)
• 반 영구적 플랫벨트
Generation2 GeN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6-1 Glass Tower
• 대 표 전 화 (02)6007-3114
• 서비스 정보센터 (전국) 080-780-7000
• 고 객 상 담 실 (전국) 080-960-7700
• 제 품 문 의 (02) 6007-3240, 3260, 3269, 3284
'2002
세계일류상품선정
- 산업자원부
iF
'2001
그린 디자인
수상
KCSI
'99, '2000
고객만족도 1위 기업선정
- 엘리베이터부문

버팀보 절약형 흙막이 공법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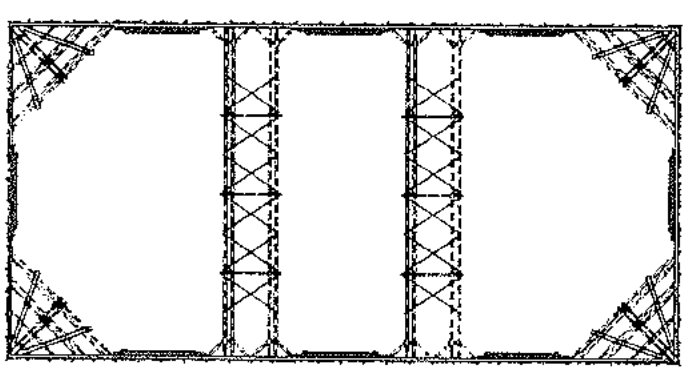
기존공법과의 비교

일반 흙막이 공사에 주로 이용되는
Strut 지지공법과 **신공법인 PS 흙막이 공법**의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STRUT 공법	PS 공법
주 요 사용자재	· SS41 (H-300×300)	· SS41 (H-300×300)
시 공 성	· 시공실적이 많다. · 숙련도가 높다. · 강재사용이 많아 작업능률이 저하된다. · 용접 및 BOLT조립으로 시공속도가 저하된다. · Strut, Post Pile의 간격이 좁아 토공작업시 능률이 떨어진다. · 본 구조물 시공시 작업공간 협소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된다. · 굴착모양에 따라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 겹띠장 설치시 정밀시공을 요한다. · 강재 사용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되어 작업능률이 좋다. · 시공속도가 빠르다. · STRUT및 POST PILE의 간격이 훨씬 늘어나서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 본 구조물 시공시 작업공간 확보로 인하여 품질을 높일 수가 있다. · 굴착모양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안 정 성	· 현장 시공시 일반 SCREW JACK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주변지반의 변위가 많이 발생한다.	· CABLE을 이용하여 PRESTRESS를 가하기 때문에 주변지반의 변위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경 제 성	· 강재 사용량이 많아 비경제적이다. · STRUT 설치간격이 좁아서 시공속도가 느리다.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굴착작업시 시간이 지연된다. · 공기가 길다.	· 사용강재가 줄게되어 경제적이다. · STRUT및 POST PILE, WALE이 줄어들어 시공속도가 빠르다. ·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하여 굴착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공기가 짧다. · Earth Anchor공우와 같이 인접지 동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일반 STRUT 공법



PS 공법

피에스 건설 엔지니어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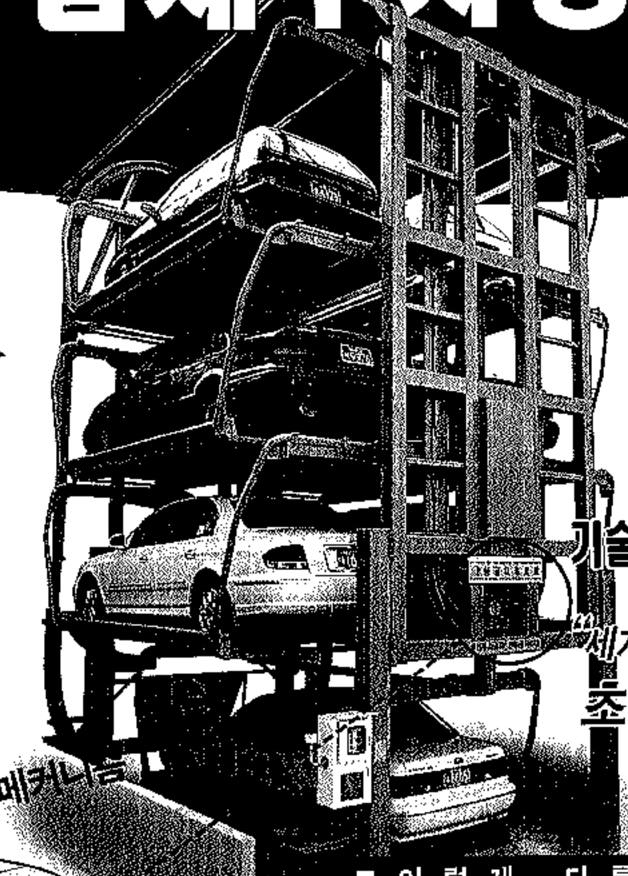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1동 534번지 유진B/D 2F
TEL 02-478-4530~2 FAX 02-474-3618
홈페이지 : www.pseng.co.kr e-mail : ps4530@kornet.net

세·계·최·초·의·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SKY PARK

★PL법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현대해상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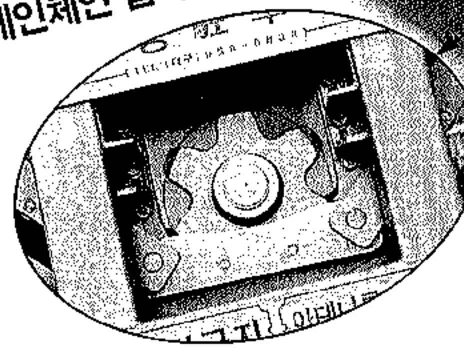
10年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카니즘



■ 이렇게 다릅니다

- 놀랍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www.Juchagi.com)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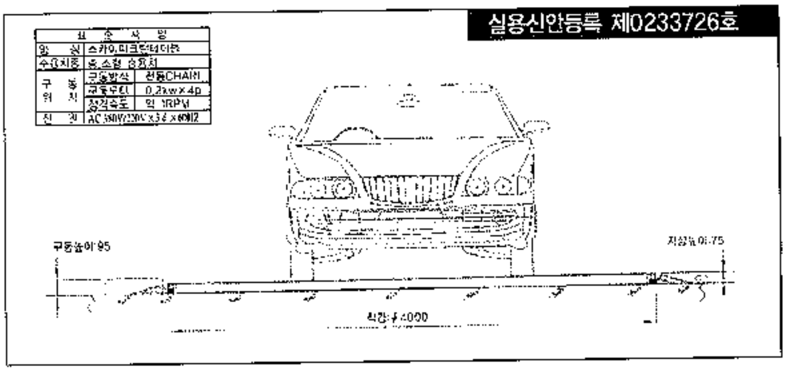
☞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신제품** **지상설치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5mm!

■ 사양(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since 1989
www.Juchagi.com

본사·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TEL : (053)956-8838(代)
-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 서울A/S센터 : (02)3665-2723
- p.p : 011-507-8838
- E-mail : cgp210@kornet.net
- 부산 A/S센터 : (051)784-6721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대출특선!!

최고액 대출

최저의 금리

삼성생명

Seed Bank

신속한 처리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 연 7.0%~13.5%
기　　간 / 1년~5년 (수시상환,연장,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경락대금 : 90%까지 대출 가능

상담문의

삼성생명 정책5부
팀장 :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H·P 011-9738-0087

LG화학
www.lgchem.co.kr

interior L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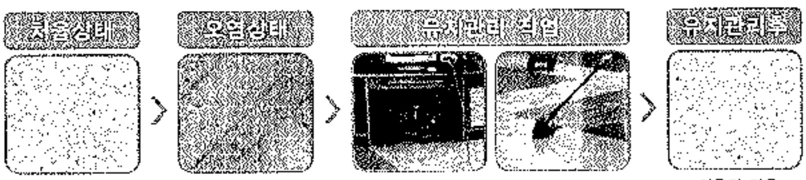
"어! 뛰어도 뛰어도 새것 같네"

언제나 새것처럼 흠 없이 깨끗하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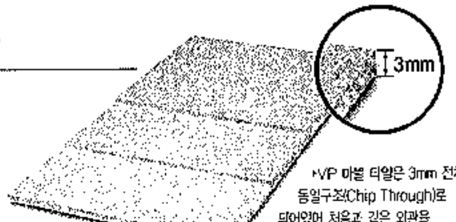
LG VIP마블타일

무늬는 흉내낼 수 있어도 그 탁월한 품질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VIP마블타일은 간단한 유지관리로 항상 새것 같은 깨끗함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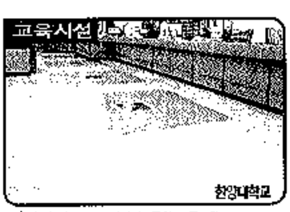
새제품 › 표면에 오염 및 긁힘 발생 › 버핑작업 · 왁스코팅작업 › 처음과 같은 상태로 복원



·VIP 마블 타일은 3mm 전체가 동일구조(Chip Through)로 되어있어 처음과 같은 외관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LG VIP마블타일은 다양한 시설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E-마트, 롯데마그넷,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까르푸, 미도파백화점 등



▶ 한양대학교, 부산남여자고등학교, 군포중학교,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 중앙학원, 인천과학교육원 등

▶ 세브란스병원, 삼성의료원, 경북대학교 부속병원, 순천향병원, 건양대학교 부속병원, 성모병원, 부산대학병원 등

▶ 흥국생명 사옥, 조흥은행 무역센터, 서창농협, 동양화재 등

▶ 017신세기통신 매장, 도림사옥, 현대연수원, 현대상선사옥, 현대자동차기술연구소, 서울고히 등

LG 화학 본사 및 영업소

■기능성재 PMU : (02)3773-3230~33,3240 ·상업트랜팀 : (02)3773-3269~71 ·설치지원팀 : (02)3773-3291~3 ■강서 : (02)671-3922~4,671-3925~7 ■강남 : (02)545-6514,512-6496~7 ■강북 : (02)542-5004,542-5651~2
■안양 : (031)384-3118 ·수원 : (031)382-9724~5 ·성남 : (031)338-3650,385-8782 ■인천 : (032)554-1872~5 ■부산 : (051)801-2616~20 ■창원 : (055)270-7720~5 ·진주 : (055)758-3580 ·울산 : (052)256-7850~2
■대전 : (042)630-5631~5 ·천안 : (041)583-5561~2 ·청주 : (043)276-8541~3 ■대구 : (053)760-2230~6 ·포항 : (054)281-9688 ■광주 : (062)360-3670~5 ·전주 : (063)250-4350~2 ·순천 : (061)743-4430~1
■강릉 : (033)653-8821~6 ·원주 : (033)748-0645 ■제주 : (064)742-8780~4 ■C/S : 080-005-4000 ■LG데코빌 종합전시장(실내오건축장식자재종합전시장) : (02)3489-7389~90

고객상담실 080-005-4000

오토데스크 코리아 창사 10주년 기념

500

전 세계 500만명 이상의 고객들이 오토데스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60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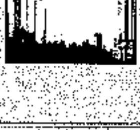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 중 100%가 오토데스크의 고객입니다.

10

AutoCAD에서 출발한 오토데스크 코리아는 창사 10년 동안 건축 설계, GIS, 제조, 디지털 미디어 등
40여가지 각 산업별 전문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오토데스크가 10주년을 맞아 고객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난 10년간 오토데스크 코리아는 세계적인 디자인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컨텐츠 솔루션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고객의 성원으로 함께 성장한 오토데스크 코리아가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건축, 건설, 빌딩디자인, 엔지니어링 분야

전기, 전자, 제조 기계 디자인 분야

수자원, 가스, 통신시설, 설비 관리 및 GIS 분야

3D 애니메이션, 모델링 영상편집 멀티미디어 분야

오토데스크 신제품 런칭쇼 (2002. 10. 17(목)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 I, II, III)

autodesk

(주)오토데스크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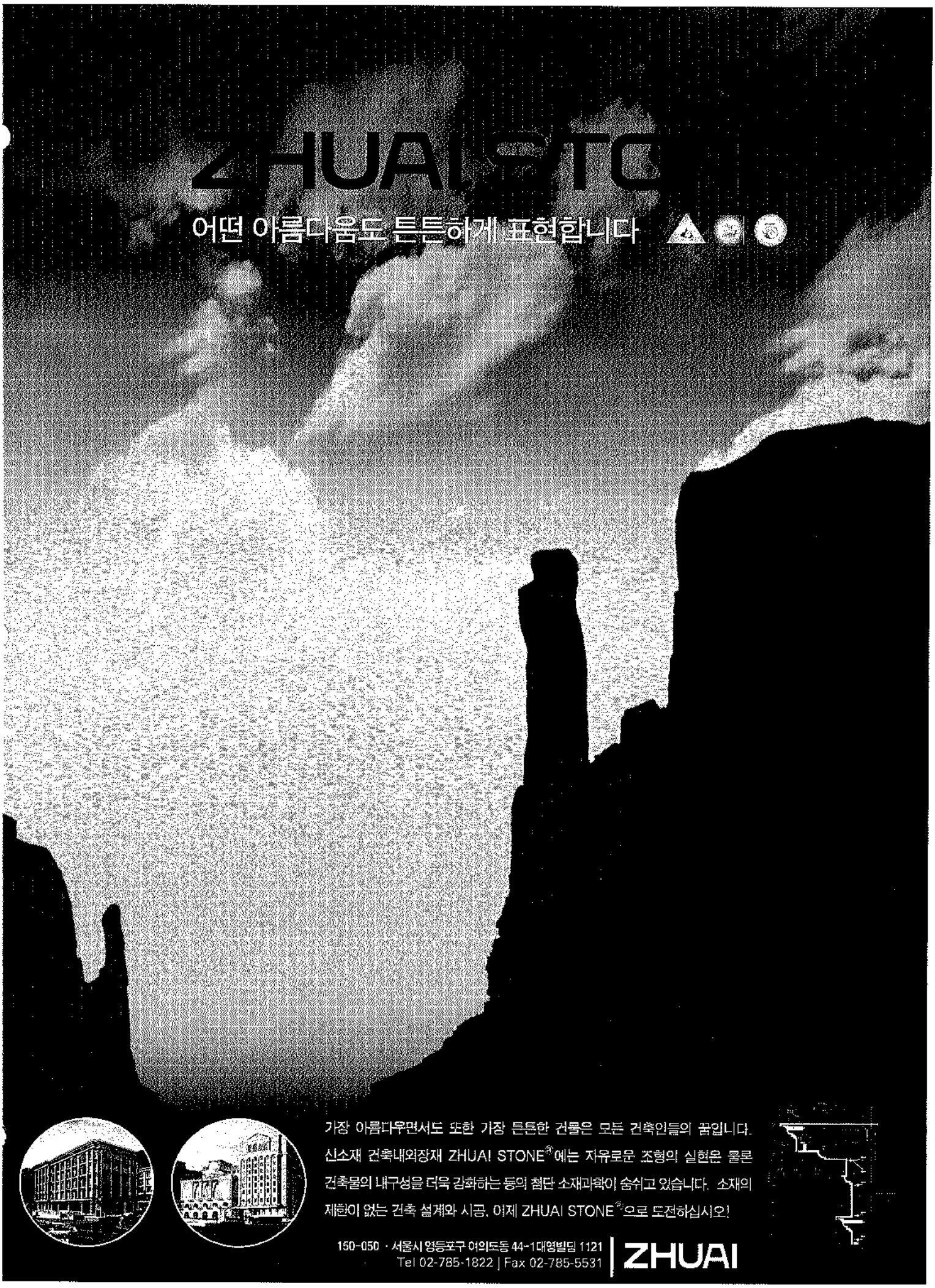
ZHUAI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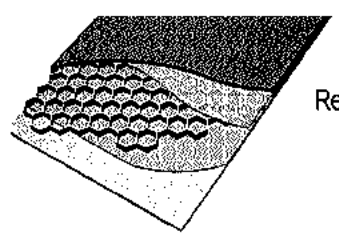
설계자 중심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파우더 형식의 소재로 되어 있어 모양과 색상, 패턴의 조정이 쉽습니다.
- 천연소재의 색상 채용을 통해 자연스럽고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 10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며, 일반시멘트와는 달리 천연 세라믹 소재를 적용,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 소재입니다.

건축내외장재로서의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 일반시멘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강도를 자랑합니다.
- 완전방수이면서 세라믹과 같은 공기의 투과기능이 있어 단열은 물론, 열팽창률이 적어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온도 견뎌냅니다.
- 초박막 시공과 조형이 가능해 건물의 하중 부담을 줄여줍니다.
- 다양한 쓰임새의 건축자재로 활용범위가 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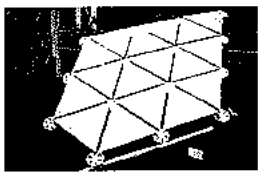

ZHUAI STO
어떤 아름다움도 튼튼하게 표현합니다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또한 가장 튼튼한 건물은 모든 건축인들의 꿈입니다. 신소재 건축내외장재 ZHUAI STONE®에는 자유로운 조형의 실현은 물론 건축물의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첨단 소재과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소재의 제한이 없는 건축 설계와 시공, 이제 ZHUAI STONE®으로 도전하십시오!
150-05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대영빌딩 1121
Tel 02-785-1822 | Fax 02-785-5531
ZHU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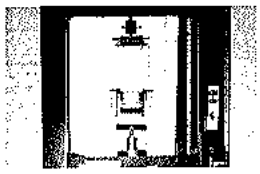
건축외장의 새로운 가치기준

하니컴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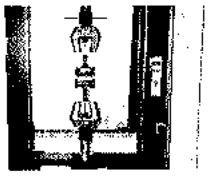
건축문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하니컴판넬이 15년의 연구와 응집된 기술력으로
건축 문화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변함없는 내구성과 미려한 외관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 하니컴판넬은
시공하신 건물의 가치를 두배로 높여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관리청사와 교통센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외장판넬의 자존심!
선택은 역시 하니컴판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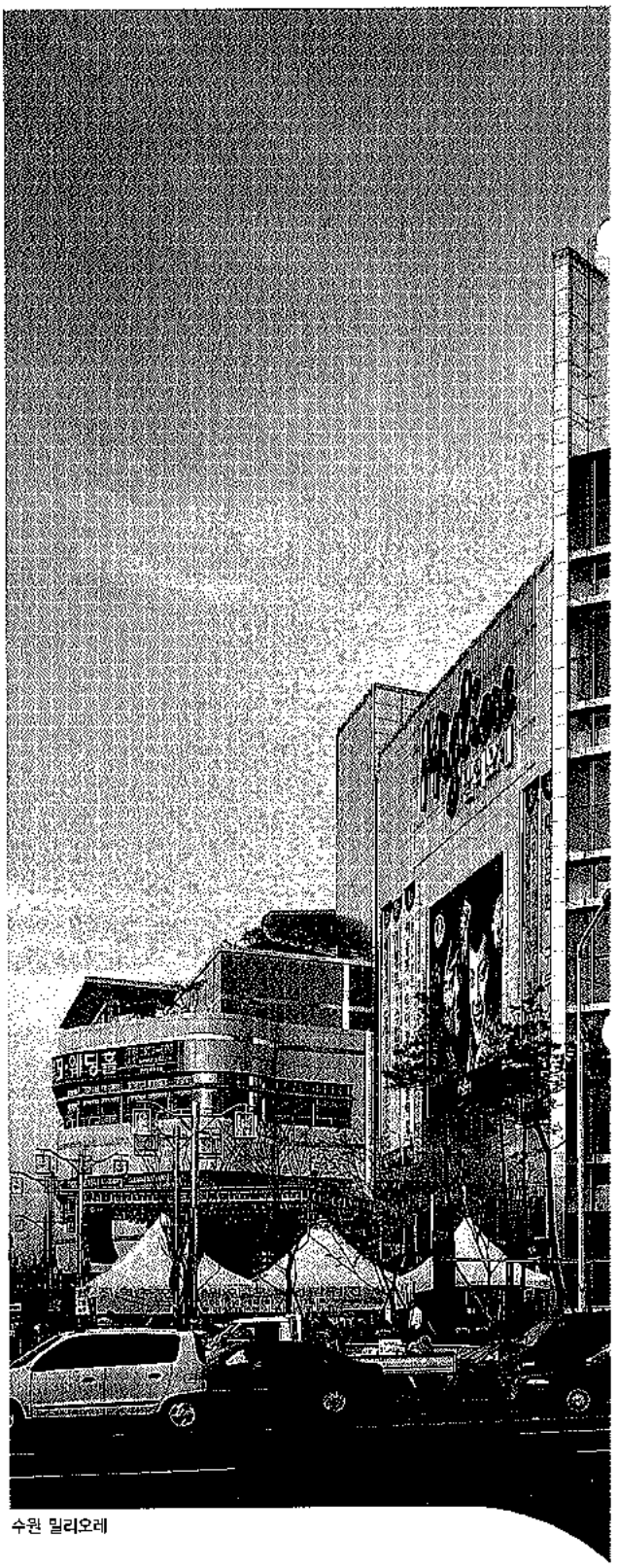
영종도교통센타STS H/C
Mock-up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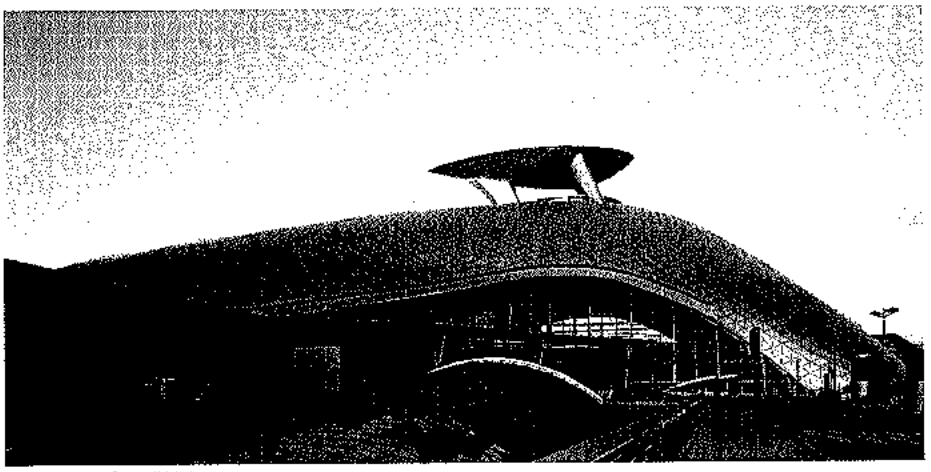
C.D.Peel Test
(ASTM D1781)



인장강도Test
(ASTM 297)



수원 밀리오레



영종도 국제공항 교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건물의 가치를 두배로 높여주는 외장판넬

스텐레스하니컴판넬 알루미늄하니컴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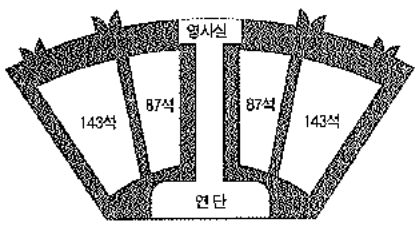
ARCHITECTURAL WALL SYSTEMS

(주)하니컴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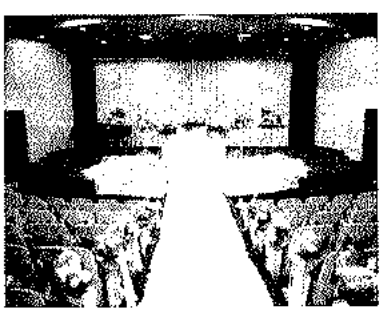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3-2 동신B/D
TEL.(02)512-2010 FAX.(02)518-2492
www.honeycombpan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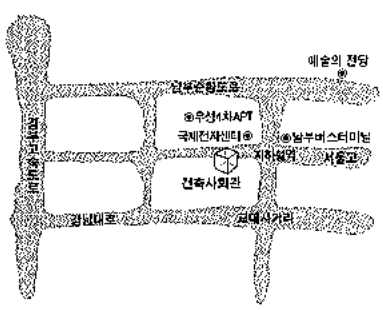
대리점현황 (주)바우건설산업 TEL.(02)423-5111 FAX.(02)423-8891 (주)B.L공간 TEL.(02)424-3111 FAX.(02)424-3552 (주)한진ENG TEL.(02)557-9043-4 FAX.(02)-561-0863
씨테크건설(주) TEL.(02)457-0061-2 FAX.(02)457-0255 테크컬산업(주) TEL.(02)571-6080-1 FAX.(02)571-6081 다중건설산업(주) TEL.(02) 556-3625-7 FAX.(02)556-3622 (주)대남 TEL.(053)745-7001 FAX.(053)755-6227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대관 안내



대강당(460석)





약 도

■ 대 강 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 / 세미나 / 강연회 / 교육 / 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　　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석(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 / 음악 / 영사실 / 무대 / 무대영사막 / 흑판 / OHP / VPM / SP

1. 사용료

(단위 : 원, VAT별도)

구 분	좌 석 수	사 용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400,000	80,000

※ 사용기간 :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 할인

※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증

※ 예식행사 : 90,000원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890cm × (세로) 90cm

■ 대 관 문 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l _ 581-5711~4

Fax _ 586-8823

e-mail : mp1023@hanmail.net

모형

그리고

사람

꿈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건축모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축모형　　단위세대모형　　아파트모형
현상모형　　지역안내모형　　플랜트모형
고건축모형　　인테리어모형　　기계작동모형

Model & People
ARCHI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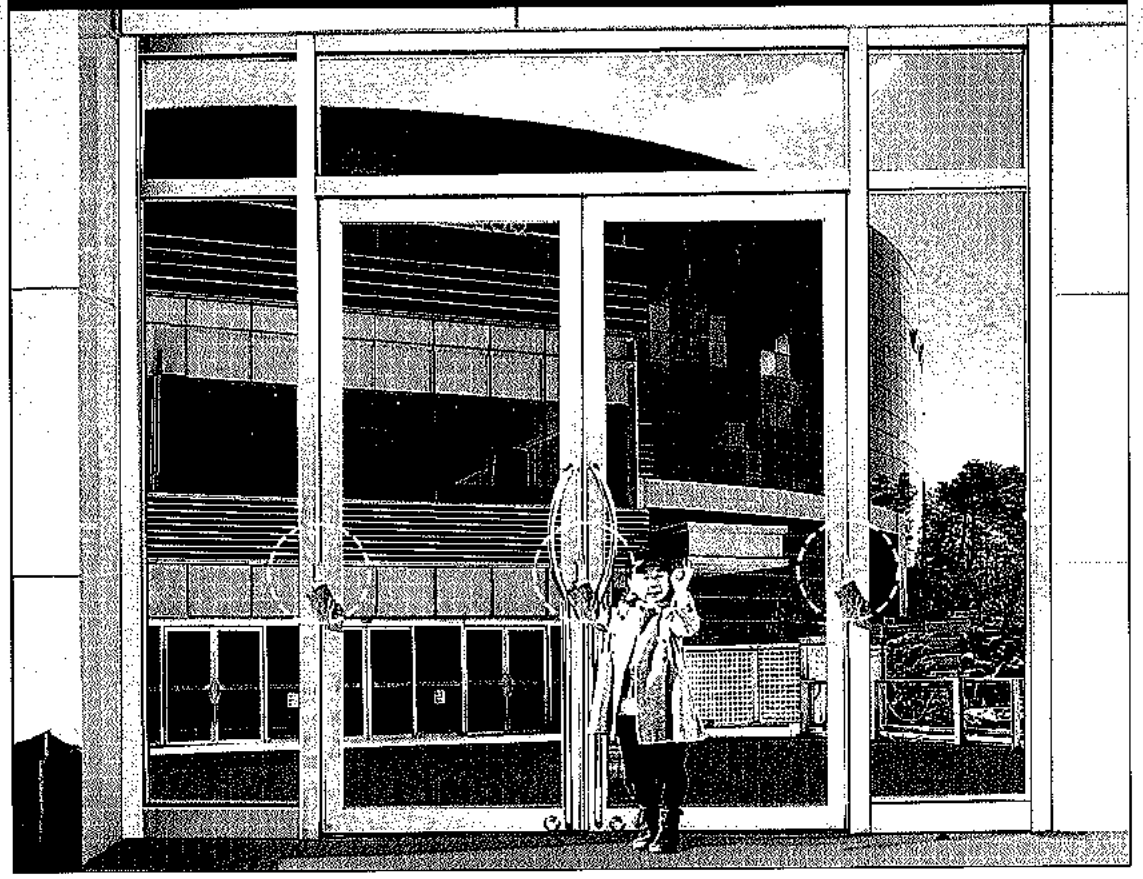
130-030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6-71 주상복합 303호
TEL 02)2217-5942~3　FAX 02)2217-5944

ARCHI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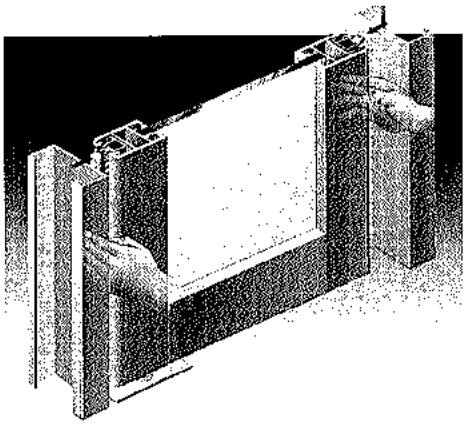
실용신안 제0003710호
의장등록 제28886호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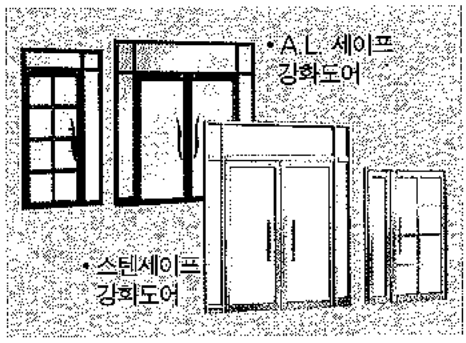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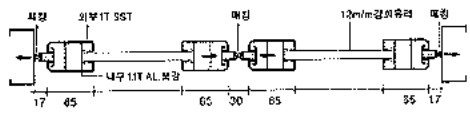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송캐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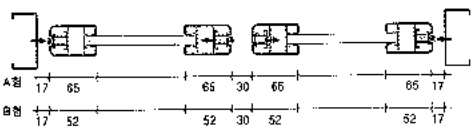


평면 상세도 (홈페이지 설계 다운로드 참조)

▣ 사용 상태도



▣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설치 장소

- 학교 • 관공서 • 종교건물 등
- 예식장 • 은행 • 아파트 • 빌딩
- 목욕탕 • 상가건물 • 유치원
- 백화점 • 병원 • 호텔 • 기타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단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 자료집에서 삭제되었음)
▣ 단가표:한국물가 자료집 416p 참조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우산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374번지
전 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벤처기업등록업체

SAMHWA 삼화페인트공업㈜
SAMHWA PAINTS IND.CO.,LTD.

완벽한 방수는 물론 오래 지속되는 전문기업의 전문 방수페인트-
방수탄, 우레탄 탄성방수재, 씨리코트, 슈퍼 씨리코트가 있습니다.

장수하시겠습니까?

방수하시겠습니까?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천장에서 한방울, 두방울~
지붕공사를 하자니 번거롭고 비용도 만만치않죠?
이제 단 한번의 시공으로 5년이상 방수효과가 지속되는 국내 최고의
삼화방수페인트에 맡겨주세요!
튼튼한 우레탄이라 계절별 온도 차이에도 변화가 없고,
탁월한 접착력과 신축성으로 장마철이 거뜬해집니다.

방수페인트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삼화페인트

제품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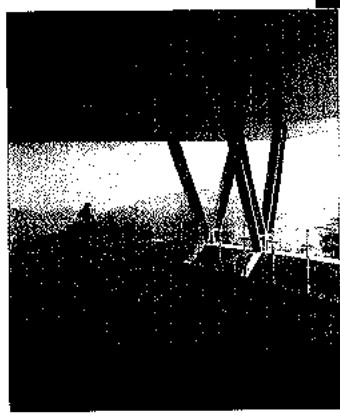
www.spi.co.kr / www.paintclub.co.kr

고객상담실 Tel: 080-311-2398 (수신자 부담)
서울영업소 Tel: (02)741-4133 Fax : (02)745-2445
수원영업소 Tel: (031)251-8474~6 Fax : (031)251-8478
대구영업소 Tel: (053)651-5396~8 Fax : (053)651-5399
·스 팩 팀 Tel: (02)765-3641 Fax : (02)765-3601
·인천영업소 Tel: (032)424-7515~7 Fax : (032)424-7518
·부산영업소 Tel: (051)583-7001~4 Fax : (051)583-7005
·원주영업소 Tel: (033)745-7717~8 Fax : (033)745-7719
·건 축 용 팀 Tel: (02)744-3895 Fax : (02)745-2445
·대전영업소 Tel: (042)626-1101~2 Fax : (042)626-1103
·광주영업소 Tel: (062)529-8877,6600 Fax : (062)526-5779
·전주영업소 Tel: (063)222-7408~9 Fax : (063)222-7705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2년 9월호. 통권401호

건 축 사

차례 2002 9 401호



통영수산과학관 (이상림 · 오섬훈 作)

칼럼	주거지 경관계획과 건축사의 역할	박광재	26
회원작품	통영수산과학관	이상림 · 오섬훈	28
	마포문화체육센터	이영희 · 정영균	36
	통인정(通人亭)	정구은	46
	가나 힐 빌라	정구은	56
계획작품	대전치과의원	임재용	64
현상설계	용인보라지구 공동주택		70
	홍익대학교 부속 중 · 고 다목적체육관		74
	전남대 기숙사 8호관		76
	달성군청사		80
	금웅감독원청사 증축 및 개보수		8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84
작품노트	용평 리조트	박종기	86
기고	벌써 추석인데	박영건	90
	한 건축사의 전쟁	민규암	92
건축만평		유원재	94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95
	해외잡지동향		100
	세무안내		106

발행인: 우남용

홍보편찬위원회: 정정치, 박영식, 김수경, 목대상, 민승렬, 박주환, 심우근, 최정일

취재 · 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이홍식 팀장)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Rinnai

CTED
Custom-made Total Energy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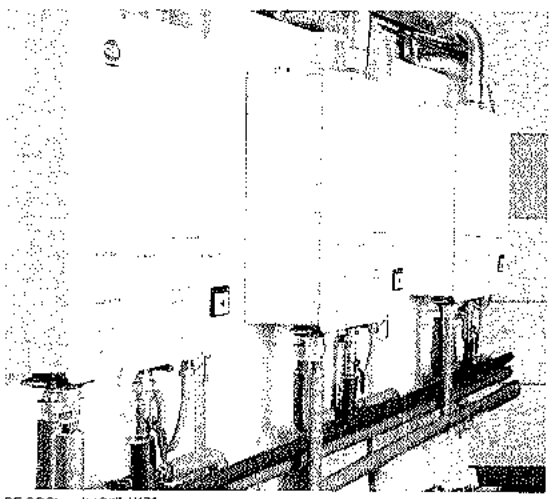
넓은 보일러실이 필요없는 공간절약형 병렬식 보일러 시스템(PBS)을 아십니까?

보일러 크기 때문에 벽까지 허물던 시절은 이제 옛말!
벽을 따라 폭25cm 내외의 가스보일러를 나란히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공사에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립니다

난방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온수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설치비 싸고, 난방비 아끼고, 관리사 필요없고!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 (PBS)



25,000kcal×3대 병렬

시공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맞춤 제작으로 가정용 보일러를 필요한 만큼만 달 수 있어 기존의 대형 기름보일리에 비해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합니다

연료비가 적게 듭니다

가스가 기름보다 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걱정 안해도 되고 손님 든 방만 선별적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킬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수명이 2배는 더 갑니다

고장잦고 A/S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대형보일러와 달리 잔고장이 없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또한 부분가동이 가능해 A/S중에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관리기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운전상태를 알아보기 쉽게 디지털로 실내에서나 카운터에서 편리하게 콘트롤할 수 있어
관리사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보일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Korean Architect

Contents Vol. 401 September 2002

Column

Urban Landscape and Social Roles of Architects — Park Kwang-Jae — 26

Works

Tongyong Marine Science Museum — Lee Sang-Leem, Oh Seom-Hoon — 28

Mapo-gu Culture and Sports Center — Lee Young-hee, Jeong Young-Kyoon — 36

Tongin-jung House — Chung Koo-Uen — 46

GA-NA Hill Villa — Chung Koo-Uen — 56

Process works

Daejeon Dental Clinic — Im Jae-Yong — 64

Competition

BoRa Housing, Yongin — 70

Hong-Ik Middle-High School Gymnasium — 74

The Dormitory of Chonnam National Univercity — 76

Dalseong-gun Office — 80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82

Western Branch of Taegu District Court — 84

Design Note

Yongpyung Resort — Park Jong-Gi — 86

Feature

It has come Thanksgiving Season — Park Young-Kern — 90

An Architect's War — Min Kyu-Am — 92

Cartoon — Yoo Won-Jai — 94

Architects' Plaza

Archi-Net — 95

Overseas Journal — 100

Taxation Business — 106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 Jeong Jeong-Chi, Park Young-Sik, Kim Soo-Kyeong, Mok Dae-Sang, Min Seung-Ryeol, Park Ju-Hwan, Shim Woo-Geun, Choi Jeong-I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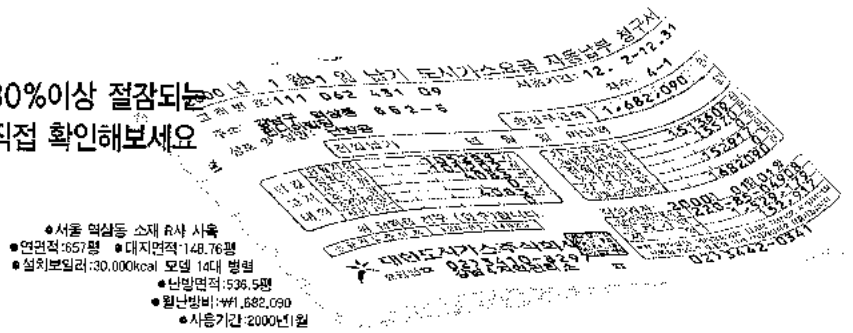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Rinnai

CTED
Custom-made Total Energy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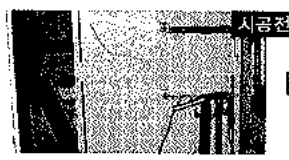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의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백문이불여일견!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비가30%이상 절감되는
병렬시스템의 놀라운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서울 역삼동 소재 R사 사옥
●연면적:657평 ●대지면적:148.76평
●설치보일러:30,000kcal 모델 14대 병렬
●난방면적:536.5평
●월난방비:₩1,682,090
●사용기간:2000년1월

시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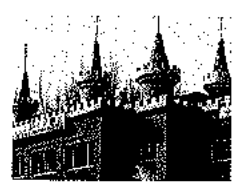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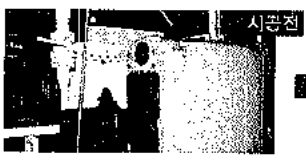
150,000kcal 보일러 1대

25,000kcal×6대 병렬

경기 유치원(대치동) 교체 시공

99년에 설치한 K사 제품의 누수 및 난방불량 등의
잦은 이상으로 인해 린나이 병렬 시스템으로 교체한 사례.
층별 난방 및 온수 수도직결 TYPE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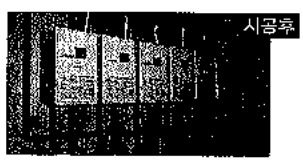
300,000kcal 보일러 1대

25,000kcal×9대 병렬

수녀원(대구) 교체 시공

93년 국내최초로 린나이 병렬시스템을 설치한 곳으로
뛰어난 경제성과 손쉬운 관리로 이 시스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진다.
난방배관에 층별 LINE PUMP 설치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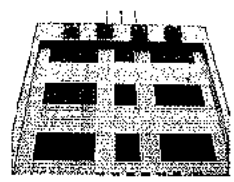
150,000kcal 보일러 1대
70,000kcal 온수보일러 1대



30,000kcal×6대 병렬

상계동 기독병원

지하 및 5층 규모의 병원으로
난방을 라디에이터 구조로 병렬 시공.
온수탱크는 1톤 규모이며, 층별 Line Pump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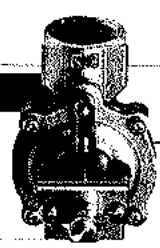
표준 시공 설계도 (난방, 온수 혼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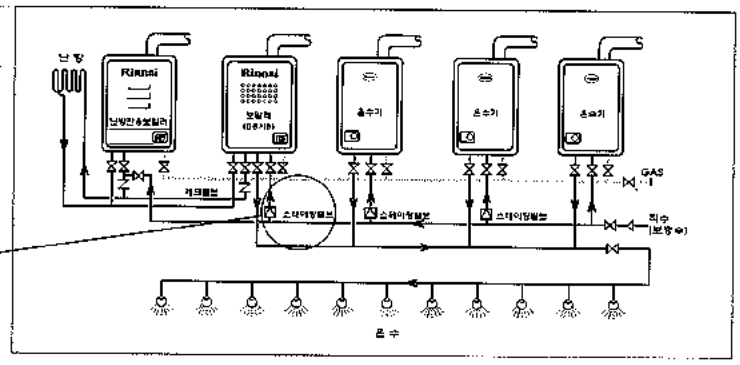
- 온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며, 일부 난방을 사용하는 스포츠 센타, 한식점 등 적용
- 온수 부분은 수도직결 및 Staging Valve(특허)를 적용
- 난방/온수 겸용 보일러는 보충용으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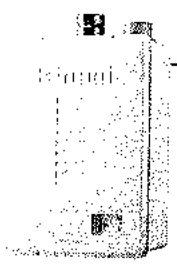
린나이 코리아 만의 특허기술 「스테이징 밸브」

- 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 외부에서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절가능
- 온수탱크 대체가능하며, 획기적인 연료절감 가능

※ 수압력 개폐 역할을 하는 밸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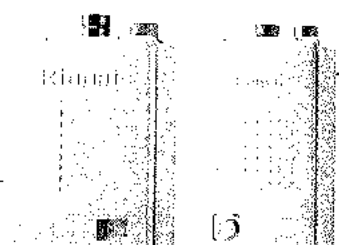


난방전용보일러(병렬전용)
RPB-366SME/F

난방 : 36,000kcal/h
사이즈 : 600(H)×440(W)×285(D)mm

디지털 가스보일러
RB-366SME/F

난방 : 36,000kcal/h
온수 : 36,000kcal/h
사이즈 : 600(H)×440(W)×285(D)mm



순간온수기(RW-16AE/F)

사이즈 : 600(H)×335(W)×160(D)mm
온수 : 16ℓ /분(ΔT:25℃)

전국지사 및 영업소 -서울 320-5558 -인천 578-7095 -수원 247-3651 -부산 583-6225 -대전 625-6314 -대구 382-3652 -광주 521-3651 -창원 238-3601 -강원(원주)740-8111

Rinnai 가스기구의 名家 린나이코리아
시공 및 설계상담:02) 320-5558 E-mail:cted@gas.rinnai.co.kr

2002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

■ 주 제 : 문화유산으로서의 도시건축

- 전통의 거리내 도시문화를 고려한 건축
- 각 지방도시의 특성에 맞는 실제 대지를 선정
- 지역 고유의 문화시설, 휴게시설, 공공시설, 위락시설 등을 임의 선택

■ 주제설명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우리나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회기간중 각국 선수단과 응원단, 관광객이 전국 각지를 방문하므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심무대로 한걸음 다가섬은 물론, 도시건축 차원에 있어서도 월드컵경기장 등 관련시설의 개장으로 건축역사의 새로운 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지난 30여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건축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양적 성장을 거듭했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은 점차 침몰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의 건축은 거대자본의 논리와 정치 · 사회적 욕구충족의 기술수단으로 전락되어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가치체계 확립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고유의 정서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국지적 도시환경내에서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시건축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능, 공간, 형태적 방안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건축 차원의 건축물로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도시건축의 도발적 와중에서도 전통적인 도시의 조직과 구조를 명백히 유지하고 우리 고유의 정서와 맥락을 역사 속에 재해석하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문화를 고려한 건축물의 기능과 공간 그리고 형태적 방안을 실천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것은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현시대 건축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를 재현하여 오늘이라는 한순간에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도시환경 내에서 변화의 역동성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도시문화를 고려한 건축물은 미래 우리건축의 문화유산으로서 좌표설정과 삶의 연속적 풍요로움에 기여할 것이다.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2

2002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大賞 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입니다. 기성건축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나갈 **2002 한국건축문화大賞** 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2000년 9월이후 준공된 국내 건축물
- 응모자격: 응모작품의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로서 제출 인허가관련서류(건축물 대장, 건축허가서 등)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지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 응모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 응모방법

▶ 준공건축물부문

가. 작품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B4 규격의 사진첩 2부

나. 건축물대장 1부

다. 건축허가서 1부

라.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소개서 1부
- 응모작품이 공동설계 또는 공동시공 작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를 구분 명시해야 하며, 외국사 참여작품의 경우 관련사실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수상자가 공동작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 1인에 대해 시상함

마.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자료제출 시일은 별도 통보

▶ 계획건축물부문
- 패널(가로90cm×세로120cm) 1개 및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세로 75cm×90cm 또는 90cm×75cm, 높이 75cm이내) 1점 제출
- 공동작품은 출품인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함
- 작품주제: 문화유산으로서의 도시건축

※주제설명 및 설계내용, 표현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를 참조

■ 작품접수

▶ 접수기간
- 준공건축물부문 : 2002. 9. 9(월)~9. 10(화) 09:00~18:00
- 계획건축물부문 : 2002. 10. 11(금) 09:00~18:00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응모원서는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 (출품료는 없음)

■ 심사위원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추후 명단발표)

■ 수상작발표 및 시상 · 전시
- 수상작 발 표 : 2002년 11월중 (입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수상작 전시회 : (일정 및 장소 추후공고)
- 시 상 식 : (일시 및 장소 추후공고)

■ 작품반출 (계획건축물부문에 한함)
- 일시 및 장소: 2002. 10. 14(월)~10. 16(화) 09:00~18:00

(단, 입선이상 수상작은 전시회 종료후 반출)

[illegible] 바람

■ 시상내역

▶ 준공건축물부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대상(1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본상(?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입선작(다수)	상패		[illegible]	[illegible]
공로상	상패		[illegible]	[illegible]

▶ 계획건축물부문
- 금상 (1점)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은상 (2점) : 상금 각 200만원 및 상장
- 동상 (3점) :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선 (다수) : 상금 각 20만원 및 상장

※ 동상이상 수상자중 [illegible]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 [illegible]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주택협회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Tel. 581-5711~4)

※기타 출품규정, 응모제한 및 결격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를 참조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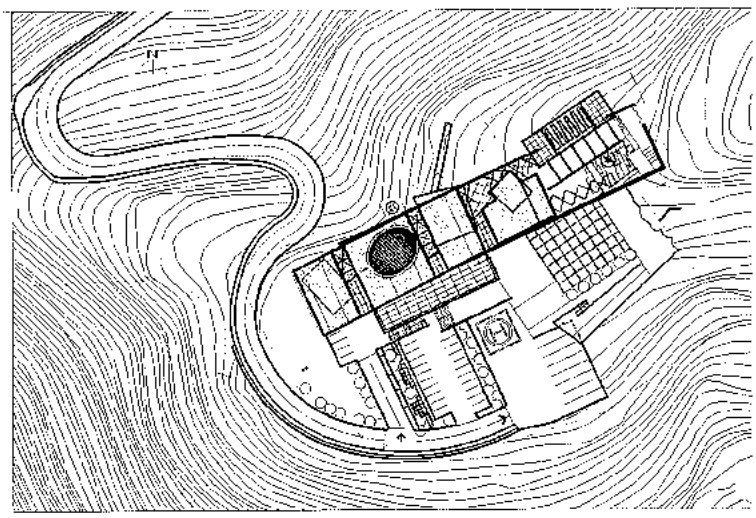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통영수산과학관
Tongyong Marine Science Museum

이상림 · 오섬훈/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Leem, Oh Seom-Hoon

건축개요

위 치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달아 갈막끝 일원
지역지구	자연 환경지구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4,477.88 ㎡
건축면적	1,733.90 ㎡
연 면 적	3,459.15 ㎡
조경면적	3,110.4㎡
건 폐 율	17.96 %
용 적 률	26.60 %
주차대수	소형34, 대형8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내부마감	-바닥/화강석 물갈기 -벽/아연도강판위 불소도장, 타공철판 위 불소도장, 압출성형강판 -천장/노출Con.C
외부마감	화강석잔다듬, THK24 복층유리(양면반강화)
설계담당	정재욱, 유욱종, 이현우, 정현주, 이재훈
설계기간	1997.10~2000.2
공사기간	1999~2002.6
구 조	단구조
기 계	설화엔지니어링
전 기	공간ENG
설 비	설화엔지니어링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문정식)



배치도

선에 있어서 점진적이나 다양한 시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성과 레벨의 장치, 외부공간의 커들이 적절히 관입되어 변형되기…

전시 동선이나 기능적인 연관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공간의 성격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한번 지어지면 확정되는 건축공간이므로, 이들의 설정이 그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드러나는 결과도 중요하나 그 결과를 형성되게 한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시작일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만들어진 공간의 성격을 좌우할 것이다. 그 일차적 단초로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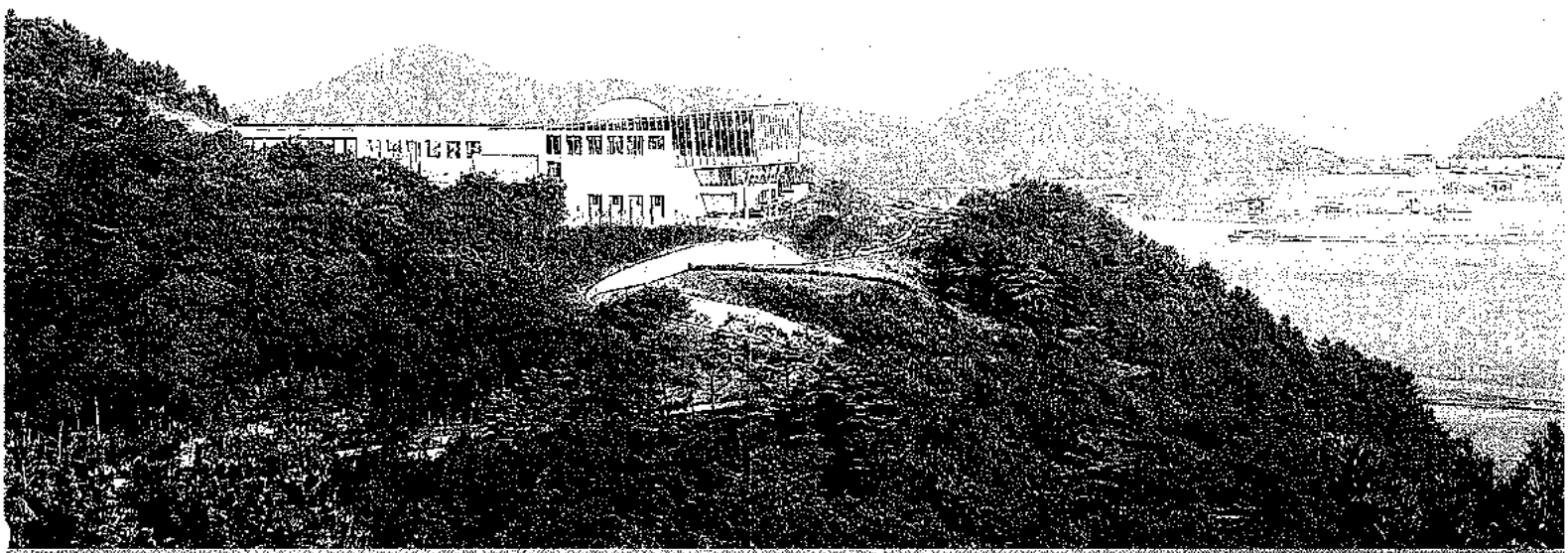
대지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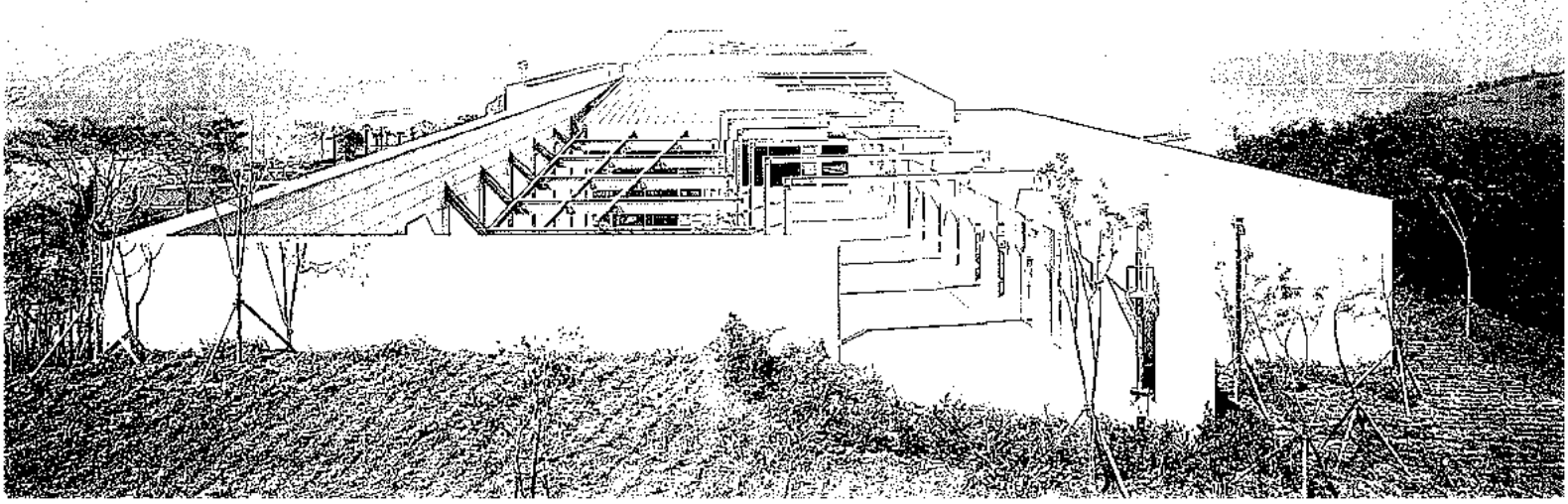
남해안의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접한 통영의 미륵도, 관광특구로 지정된 장소, 동양의 나폴리로 만들겠다는 통영 시의 의지. 해안에서 절벽으로 올라간 중턱에 자리한 대지. 대지를 들여다 보거나 밖을 내다보거나 모두 일품인 위치.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비록 산중턱에 위치해 있다 하나 프로젝트가 수산과학관인 만큼(또 한려해상공원에서 등대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지침도 있고), 산중턱과 바다 사이에 강한 관계를 맺도록 최종 결정하니 오히려 후련했다. 산세나 좋은 경치 등에 잘 맞게 지형에 순응해

프로그램과 이벤트의 조직(Nomadic Flow)

형태적으로나 프로그램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여러 종류의 것들을 모더니스트적이고 동질적인 한 틀(Monolith)안에 넣음으로써 아기될 수 있는 비고정적이고 예측불가적이지만 일관성있는(Coherence) 공간이 생성되기를 기대했던 프로젝트이다. 하나로 공간 인식이 됨과 동시에 여러 종류의 다양하고 다른 장소들이 읽혀지기를 기대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공간이 달성될 수 있느냐는 디자인 전략이 필요했다. 박스 안에 여러 종류의 박스 넣기, 그리고 스무스(Smooth)하고 연속된 흐름 가지기.

바닷속 물고기떼와 같은 랜덤하고 각기 다른 매스 배치, 전체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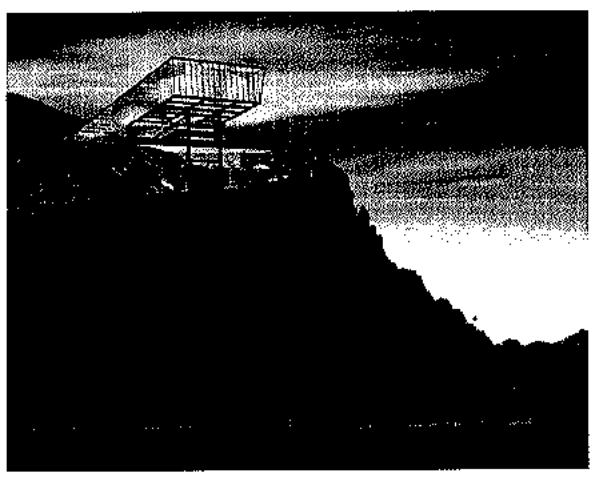
야 하지 않는냐는 등의 찜찜함을 벗어버리므로. 여하튼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좀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주 매스를 두 부분으로 구성해서 아랫부분은 무겁게 땅에 박고, 윗매스는 기울여서 가볍게 날렸다. 현상설계때는 없었으나 기본설계때는 추가된 전망대 역시 날릴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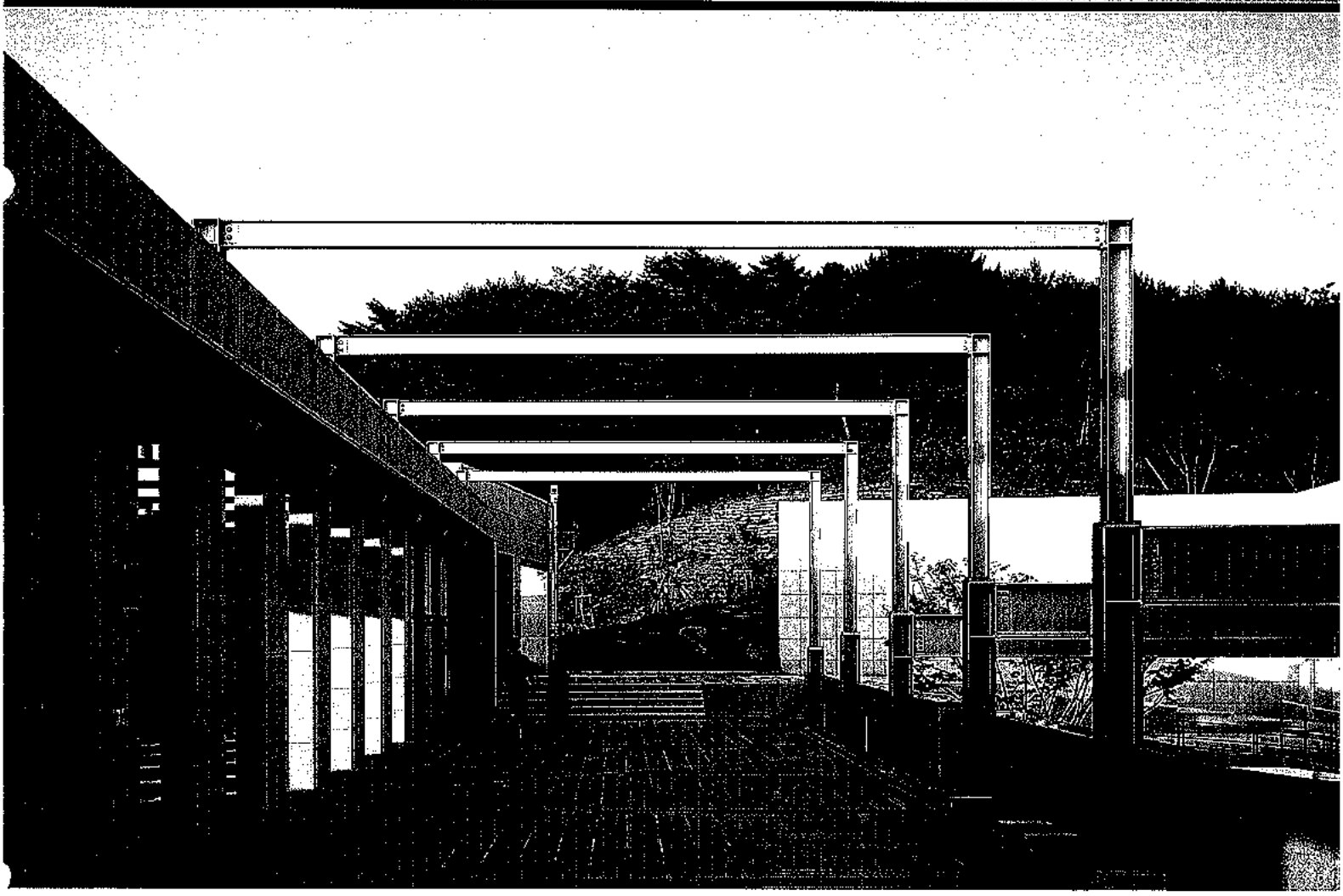
의도했던 것과 된 것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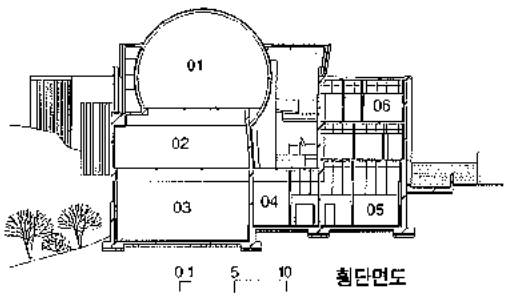
바다 쪽으로 날리기로 한 매스를 9m 정도의 캔티레버(Cantilever)로 설계하고 내장이 다 드러나 보일 수 있게 소프트하고 얼기설기한 외피로 둘러쌌다.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던 유리바닥, 거세게 부는 여름태풍 등으로 인해서 첫 이미지는 가슴 속에 묻어야 했다.

큰 통 안에 뿌려진 매스 사이의 빈 공간들이 적절히 있어, 여러 다른 요소들과 내부공간이 복합성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의 그 빈자리에는 꼭 전시를 하고 싶은 욕심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내부공간의 느낌이 리니어(Linear)해진 경향이 있다. 즉, 둥근 매스(처음에 통영의 알이라 했음)와 도입홀 매스 사이는 2층이 비워져 있어서 정형화된 공간보다는 풍성하고 여기저기 다른 종류의 공간 경험을 기대했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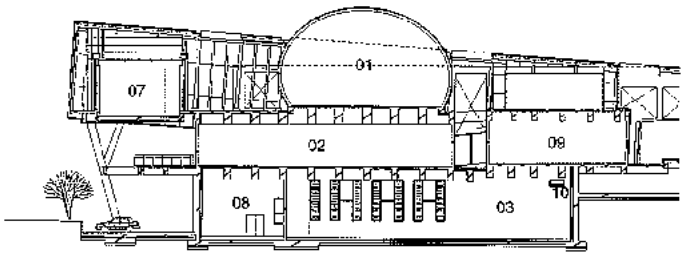
그러나 현상설계때 없었던 전망대가 추가됨으로써 내부공간의 폭을 바깥으로 좀더 확대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이벤트 범위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되어 마음 편하다. 만들어진 것과 경험되는 것 사이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지만 최소한 의도했던 것들이 잘 읽혀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만의 욕심은 아닐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타협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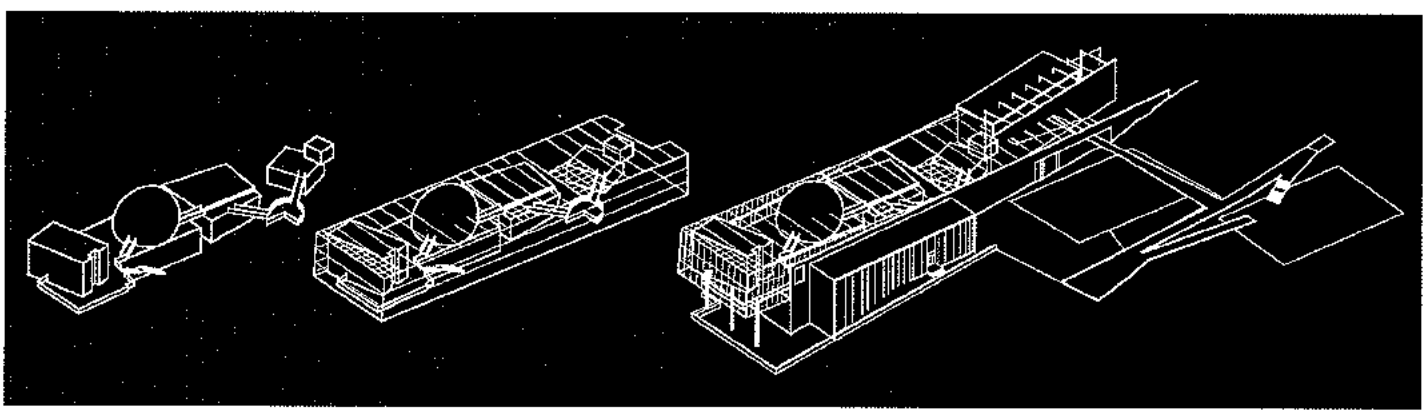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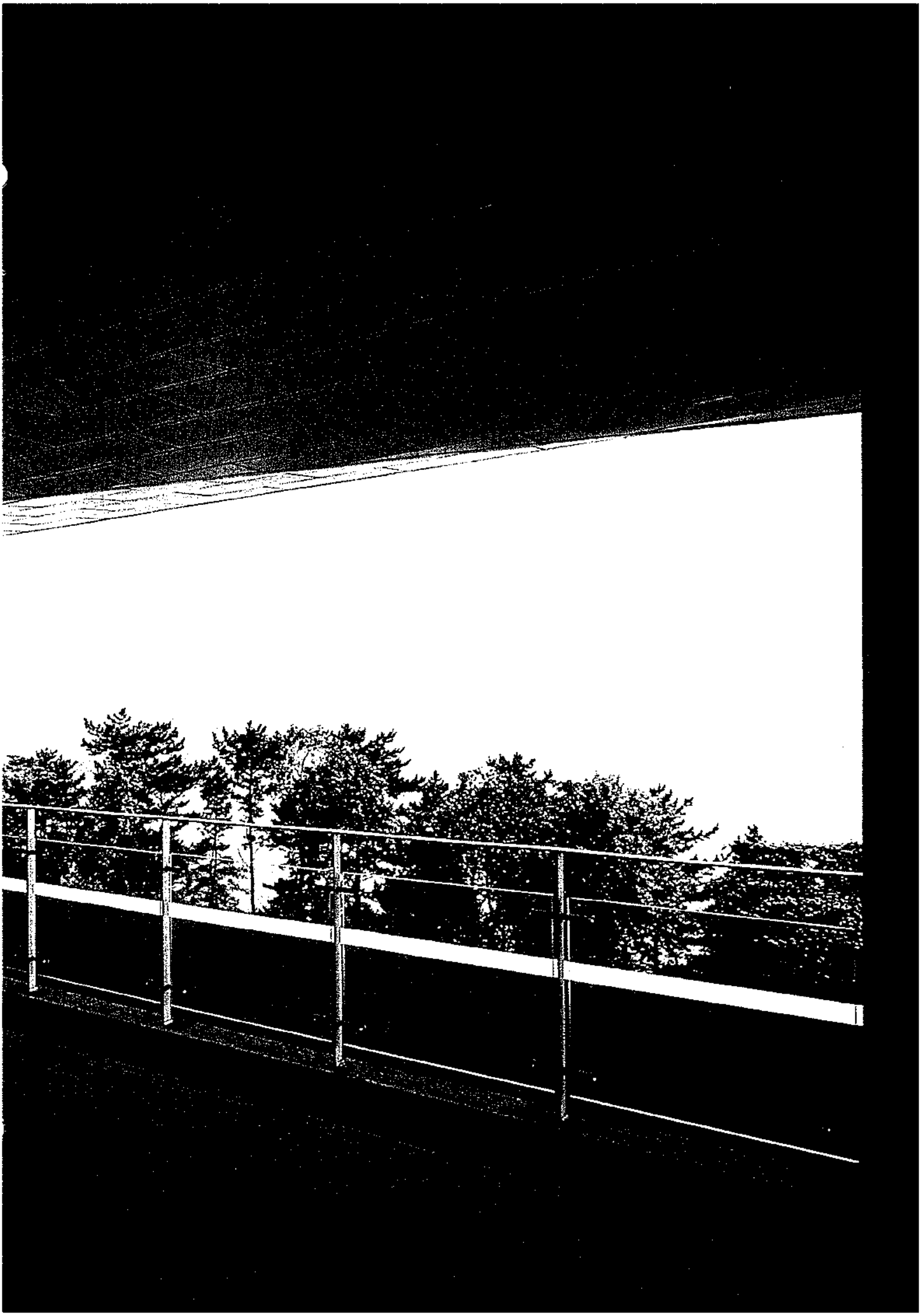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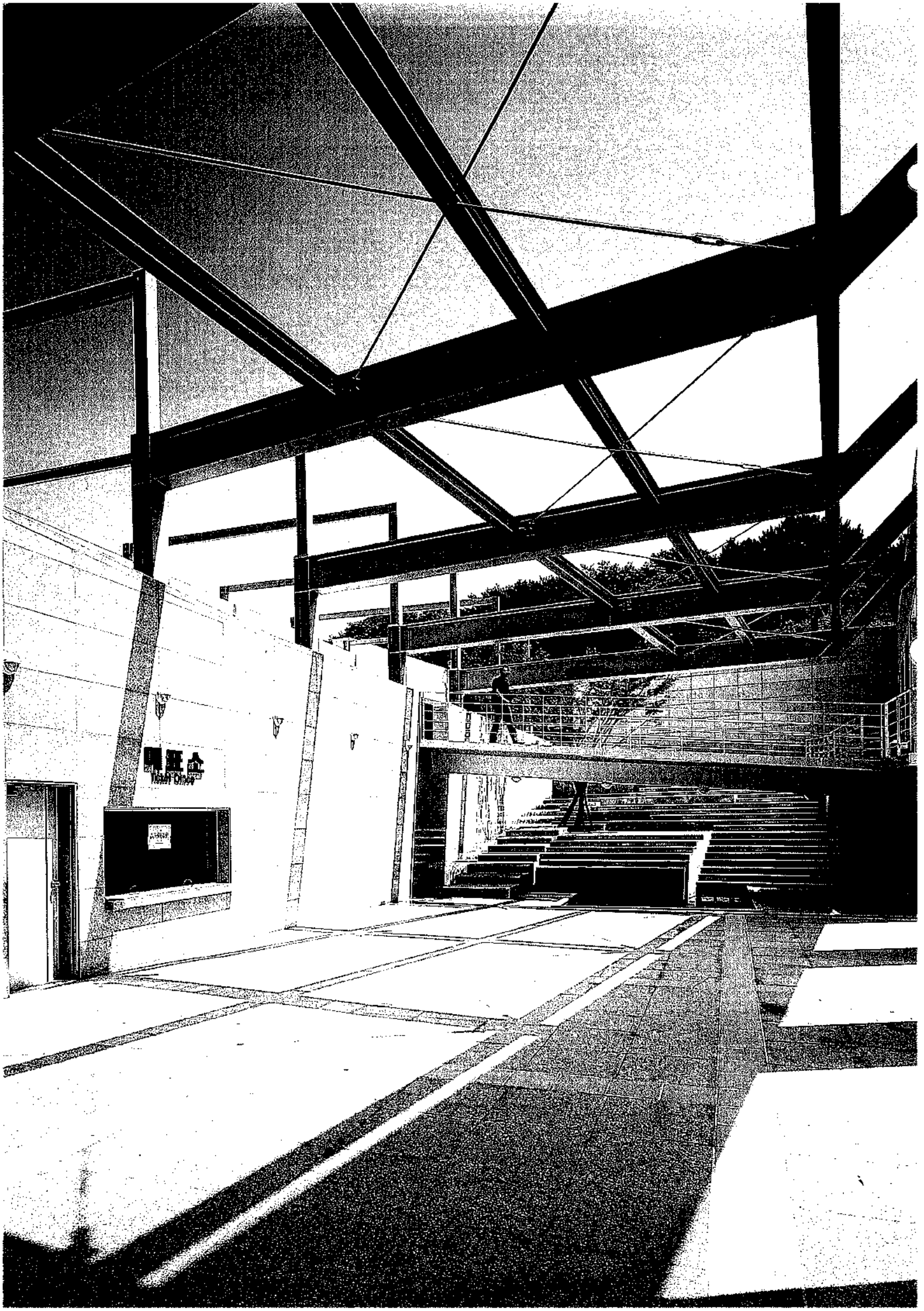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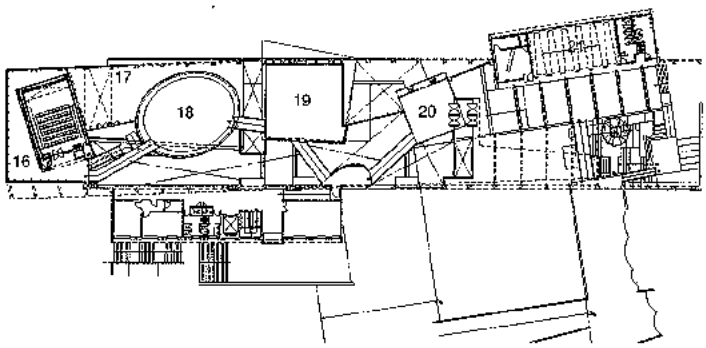
01_ 제1지방특색전시
02_ 수신과학전시
03_ 기계실
04_ 수장고
05_ 공작실
06_ 회의실
07_ 영상전시
08_ 전기실
09_ 제2지방특색전시
10_ 해양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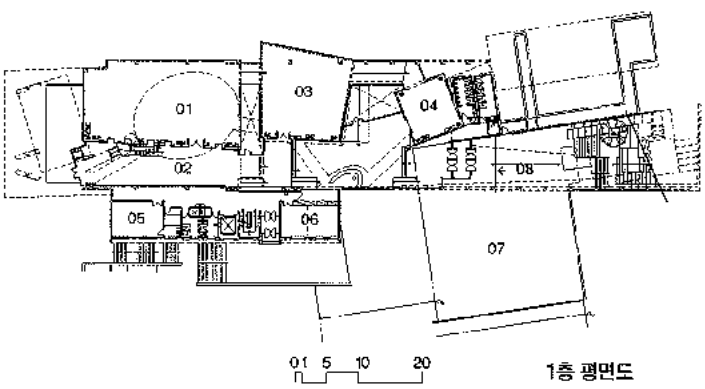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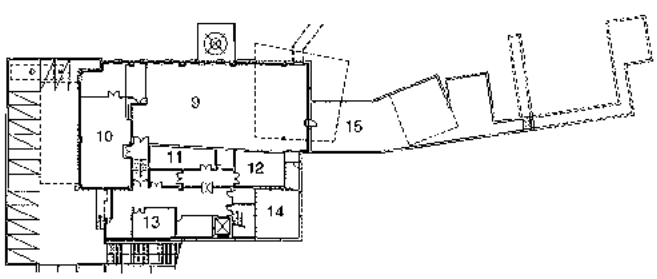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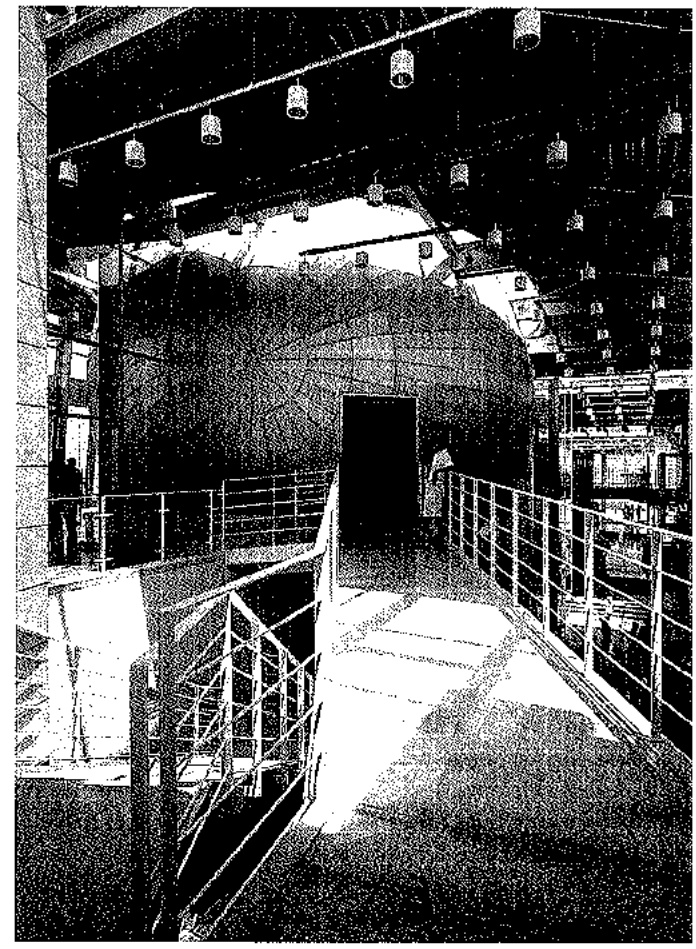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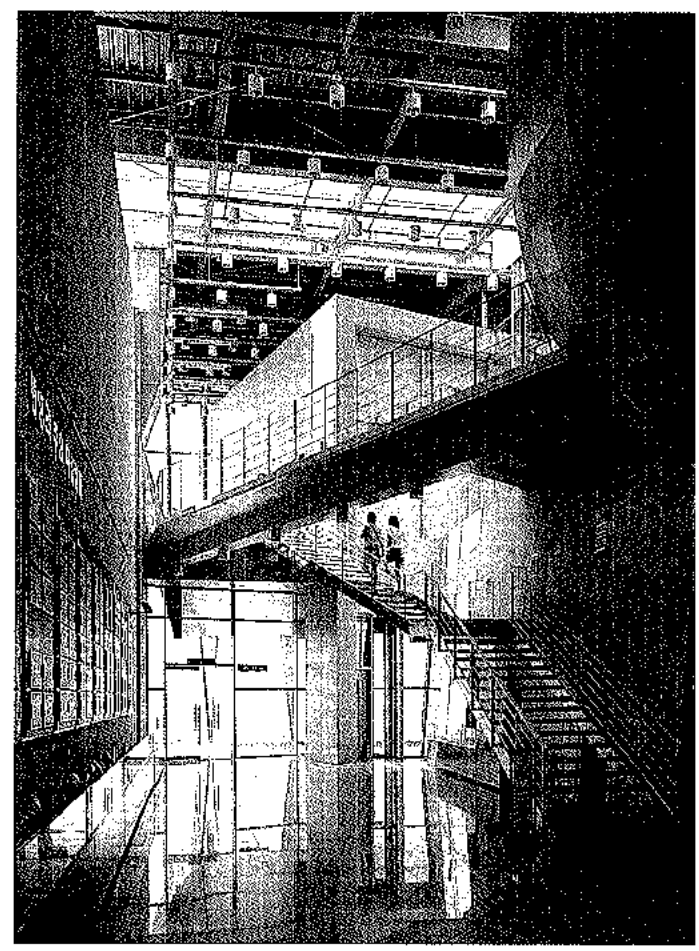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1_ 수산과학전시
02_ 중앙홀
03_ 해양전시
04_ 도입홀
05_ 관리실
06_ 용제실
07_ 놀이마당
08_ 주출입구
09_ 기계실
10_ 전기실
11_ 수장고
12_ 특수수장고
13_ 공작실
14_ 접견조
15_ 공동구
16_ 전망홀
17_ 체험전시
18_ 제1지방특색전시
19_ 제2지방특색전시
20_ 출구홀
21_ 야외전시장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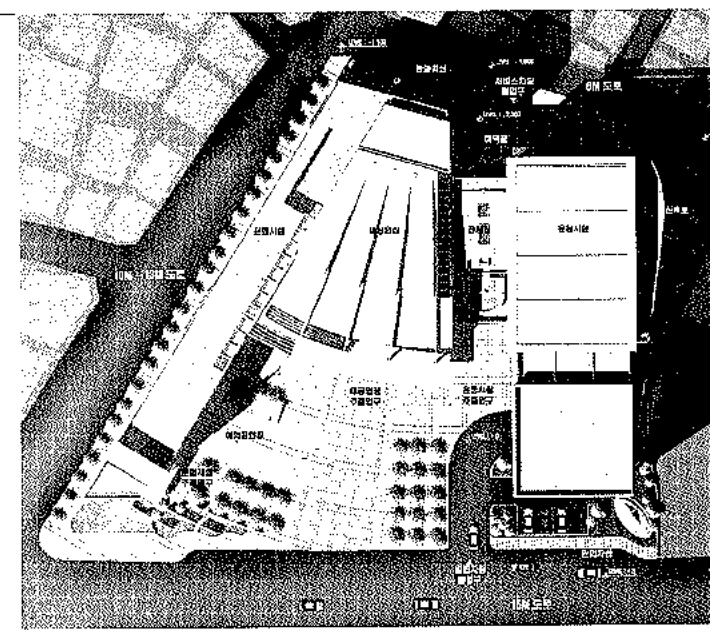


마포문화체육센터
Mapo-gu Culture and Sports Center

이영희 · 정영균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Jeong Young-Kyoon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0-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문화시설용지
주요용도	대강당 · 종합체육관
대지면적	8,466㎡
건축면적	3,988.86㎡
연 면 적	15,769.58㎡
건 폐 율	47.12%
용 적 률	102.45%
규 모	지하2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외부마감	THK30㎜ 화강석지정마감
	THK16㎜ 컬러복층유리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김재경)



배치도

이 프로젝트는 대강당, 전시실, 체육관, 수영장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시설, 여러 교육실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로 이루어진 지역의 복합 커뮤니티시설이다. 건물배치상, 도로를 연계성을 만들어 가변적 확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휴게집회장소로 쓰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동측문화시설 하부의 필로티는 광장의 개방감을 증대시키고, 주변과의 단절감을 없애주며, 운동관련시설과 문화관련시설은 서로 분리 배치하여 독자성을 확보하고 운영관리를 쉽게 한다. 행사시 사람이 집중되는 시설(대강당, 예식장, 종합체육관 등)은 진입 레벨을 다르게 하여 혼잡을 방지한다. 북쪽 주출입구 쪽에서 보이는 대강당홀과 전시장 부분의 투명한 입면은 개방감을 증대시키고 내외부공간의 연결효과를 만든다. 건물은 주변의 낙후된 주거군속에서 지역공공시설로써의 랜드마크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배치계획

대지의 남쪽과 동쪽, 서쪽으로 기존의 낙후된 주거군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넓고 개방된 외부공간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인접한 숭문중,고등학교의 학교마당과 구민회관의 외부공간을 연계시킨 넓고 개방된 광장을 계획하여 인근주민들의 휴게, 집회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주변 동네와의 단절감을 방지하고, 광장의 개방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동측의 문화시설 하부를 필로티로 처리하였다. 주차장은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공간만을 계획하여, 지상부분을 상대적으로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만들었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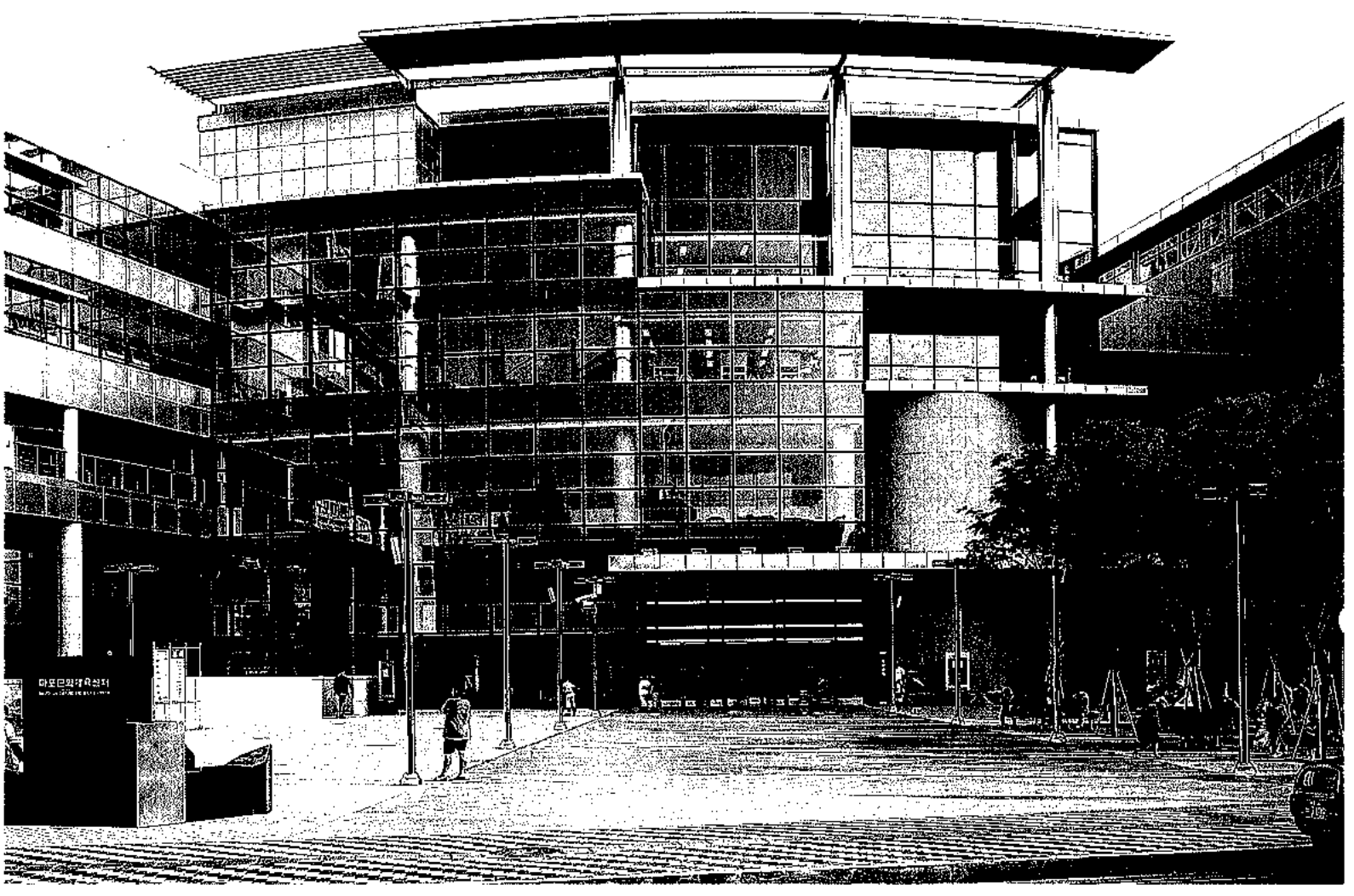
운동관련시설은 남서측에 배치하고, 문화관련시설은 채광을 고려하여 남동측에 배치하면서 시설별로 독자성을 확보하고 운영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행사시에 사람이 집중되는 시설들(대강당, 예식장, 종합체육관 등)은 진입레벨을 다르게 계획함으로써 혼잡을 방지하고 고유의 외부공간 또는 홀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대강당 로비를 필요에 따라 전시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시공간의 규모에 융통성을 준다. 각 건물별로 집약적인 배치를 하여 불필요한 복도의 면적을 줄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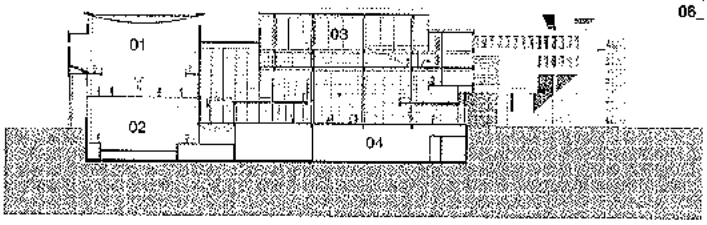
주변의 낙후된 주거군 속에서 지역공공시설로써의 랜드마크적인 이미지를 갖게하며, 주도로인 북측도로쪽에서 보이는 대강당홀과 전시장 부분의 입면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개방감을 증대시키고 내부공간과 외부의 전면광장을 공간적으로 연결시키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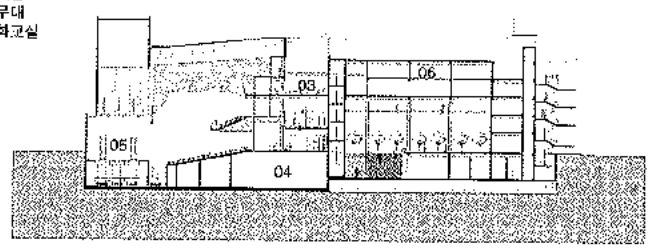
단면계획

전면광장을 북측의 도로레벨과 일치시켜 접근성을 높였다. 대지 남북간 1.8m정도의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건물 남측면의 대강당 무대에 동일한 레벨로 출입할 수 있는 하역장을 계획하였으며, 건물 서측외곽의 산책로 부분에 레벨변화를 주어서 대지 전체의 레벨차이를 연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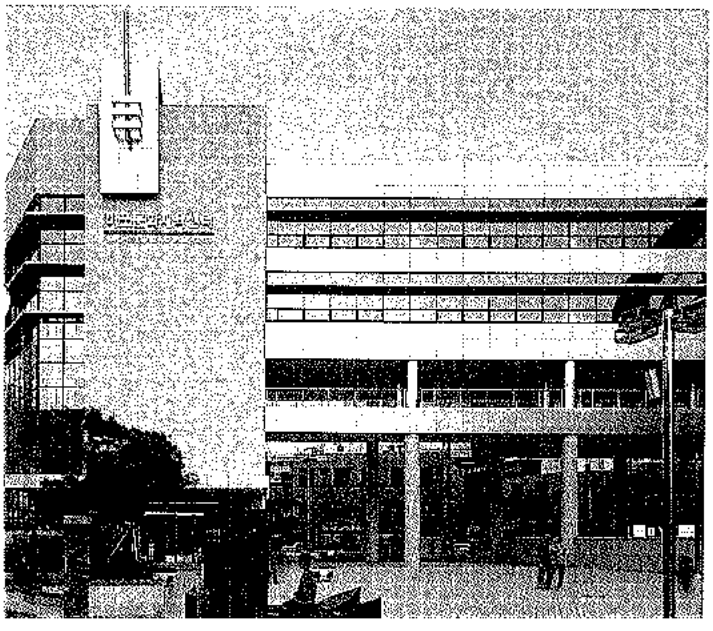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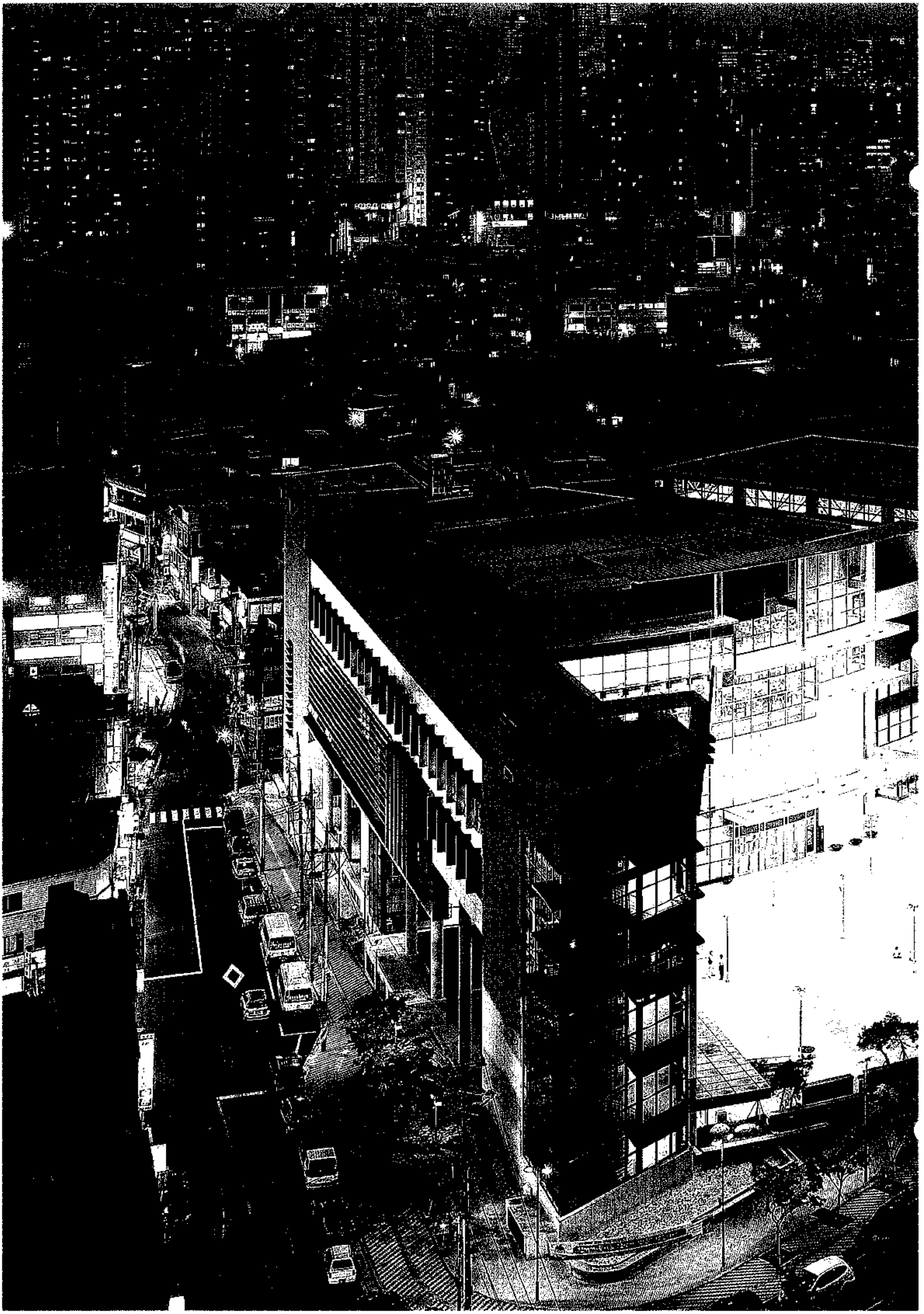
01_ 체육관
02_ 수영장
03_ 독서실
04_ 가게실
05_ 수무대
06_ 문화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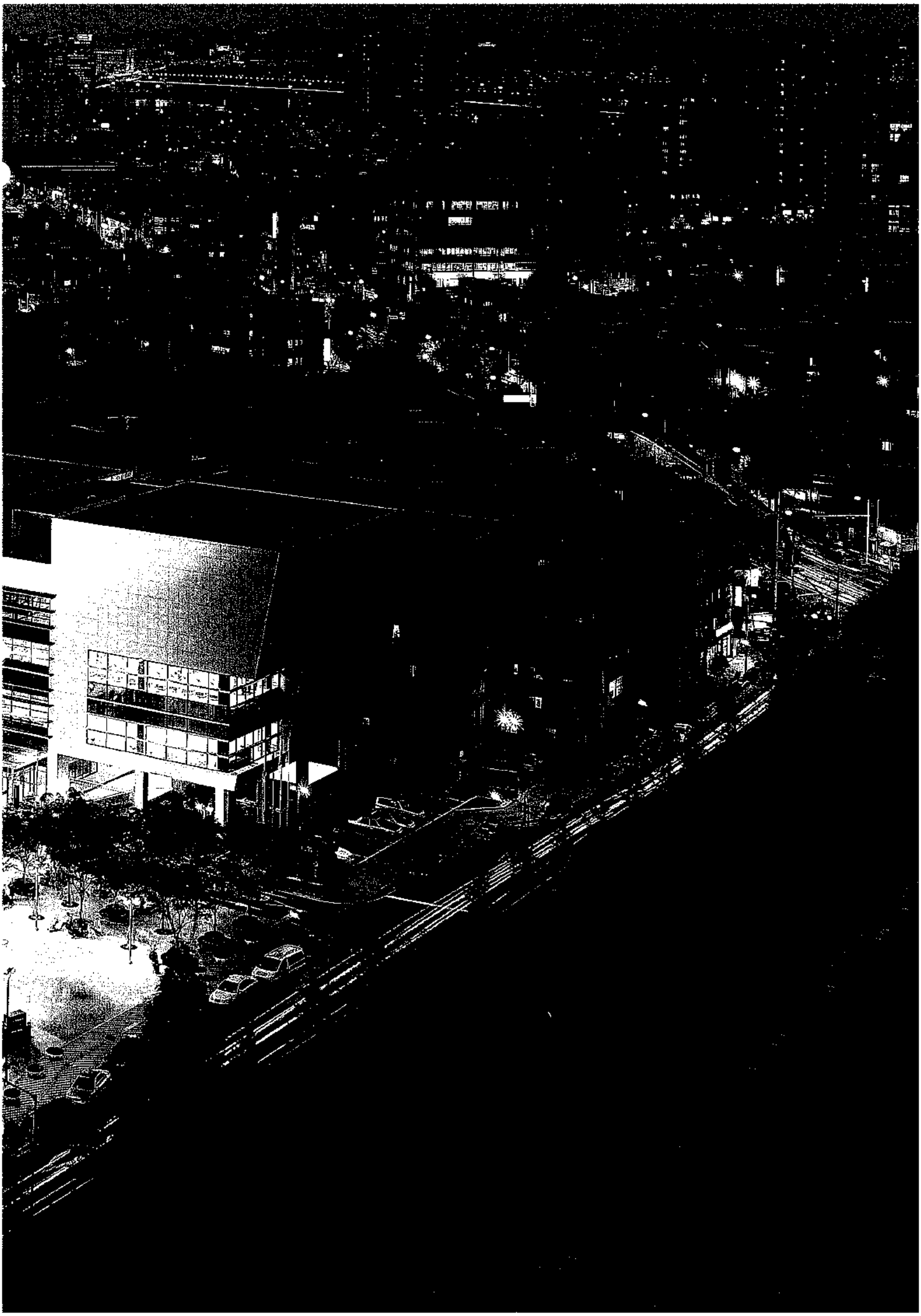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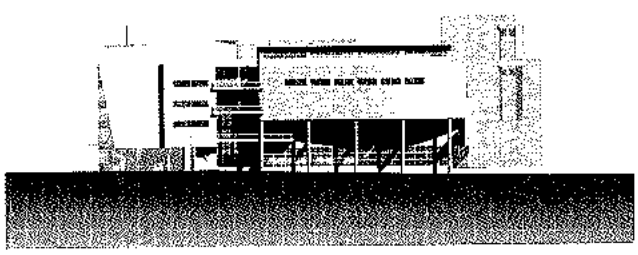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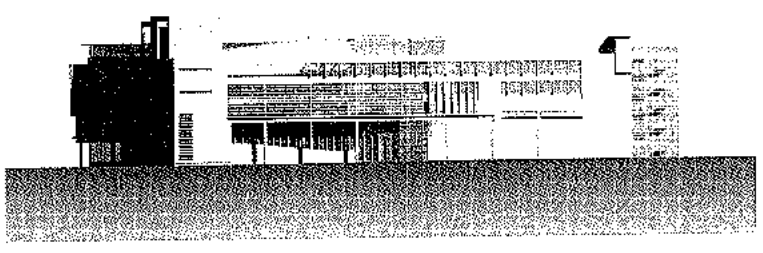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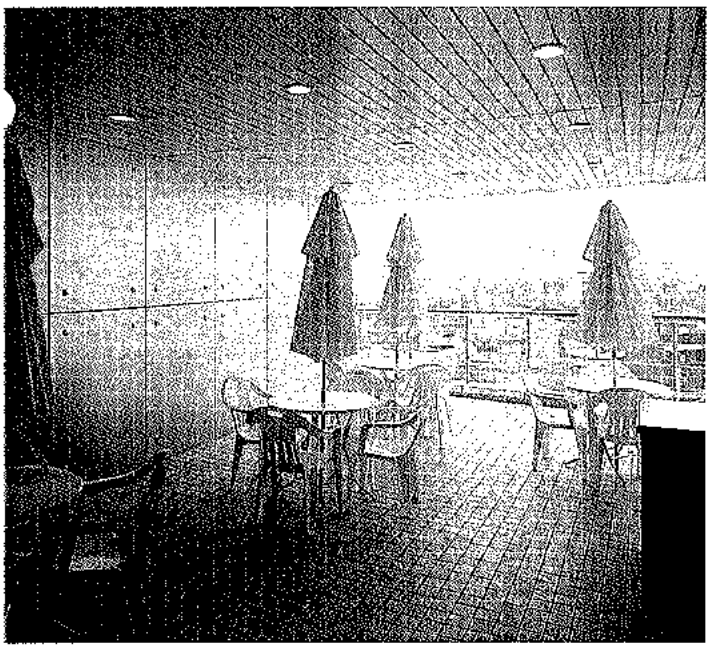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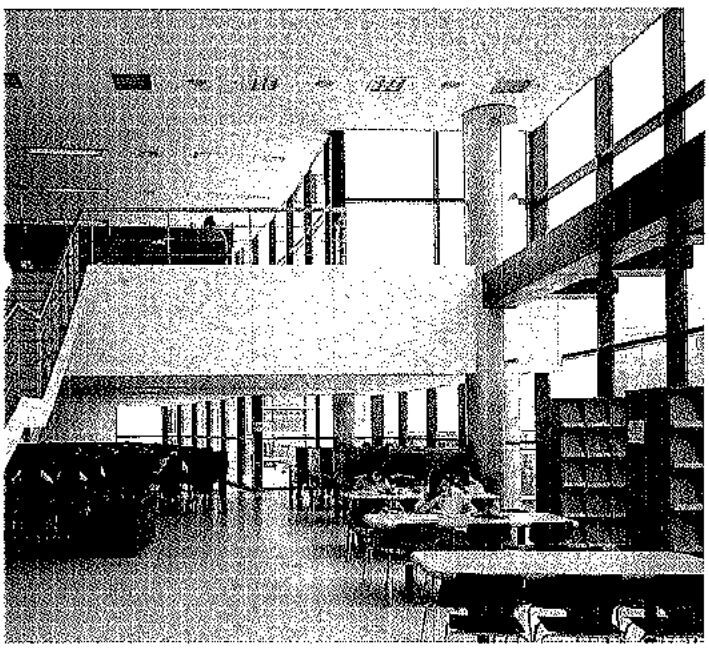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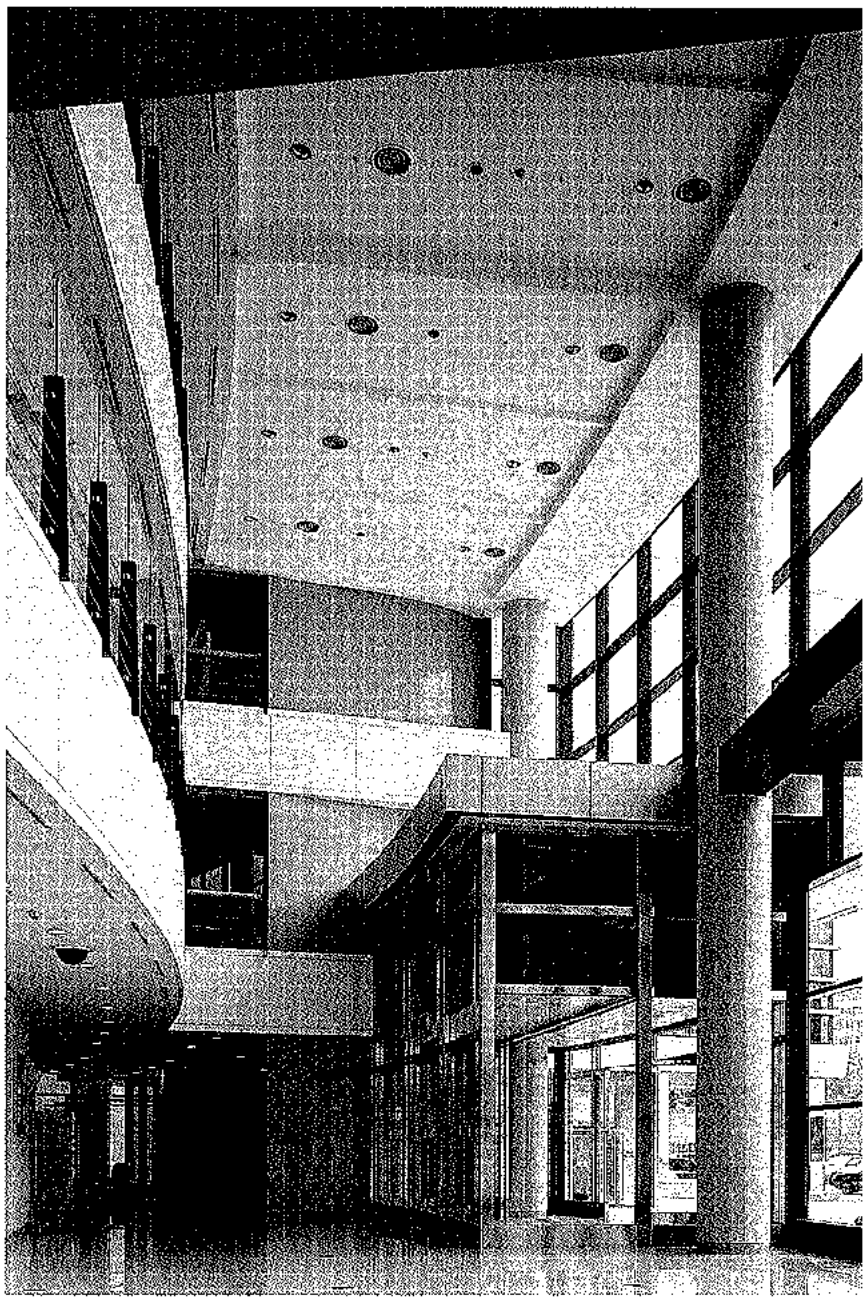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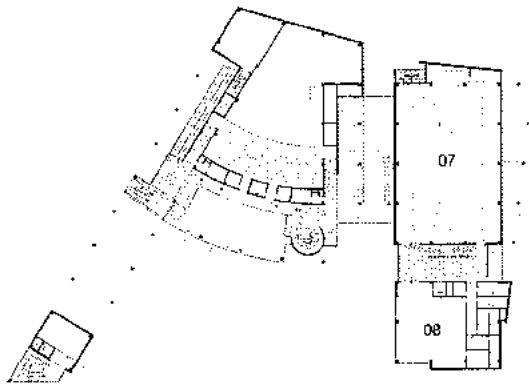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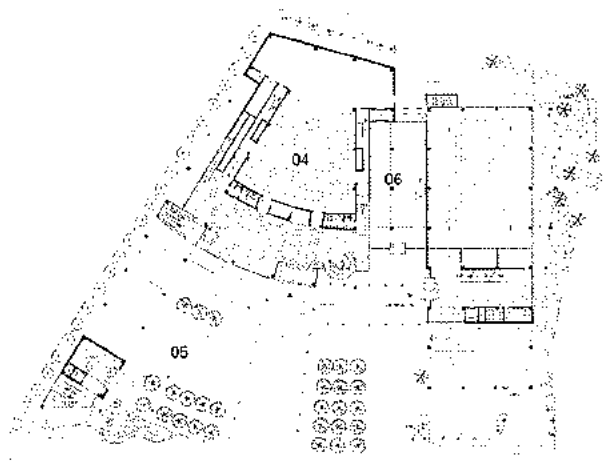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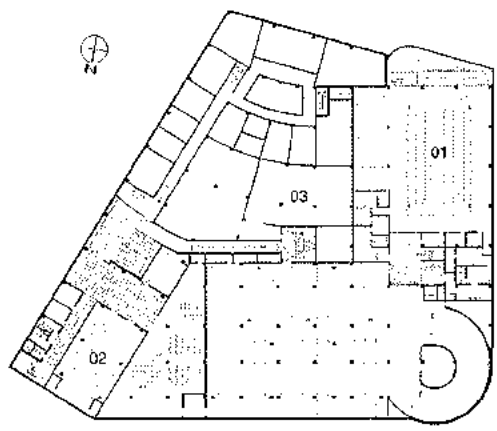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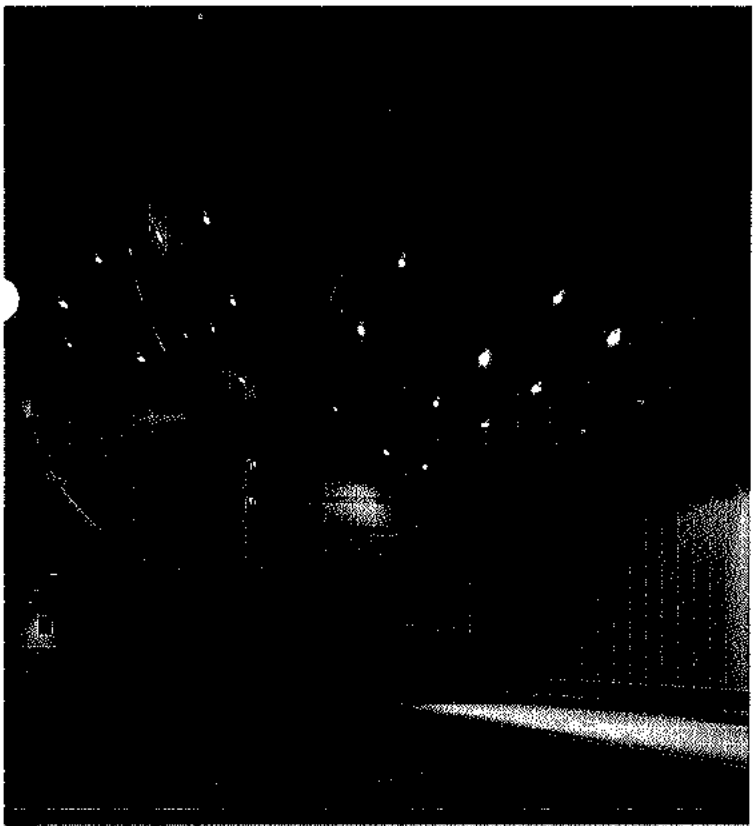
01_ 수영장
02_ 예식장
03_ 기계실 상부
04_ 대공연장
05_ 야외공연장
06_ 전시실
07_ 종합체육관
08_ 소체육관
09_ 헬스장
10_ 컴퓨터 실습실
11_ 독서실
12_ 라켓볼장
13_ 테라스
14_ 문화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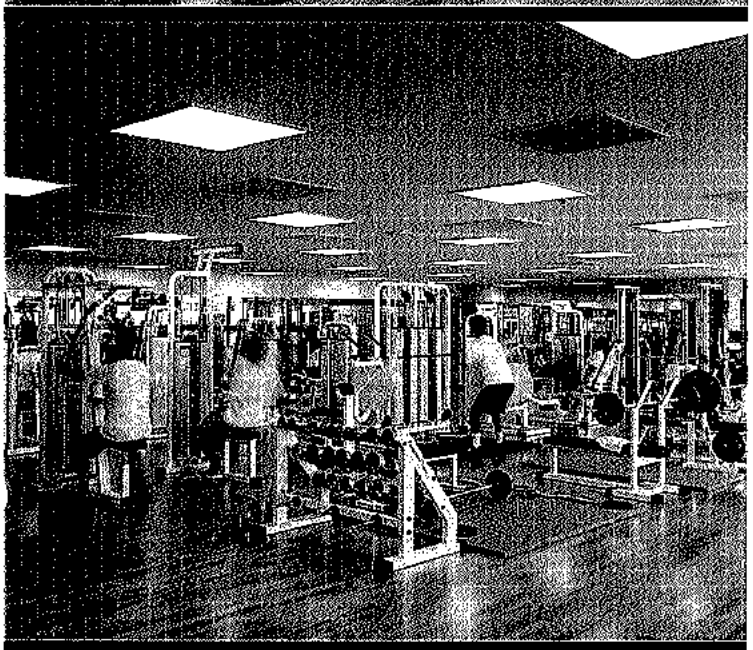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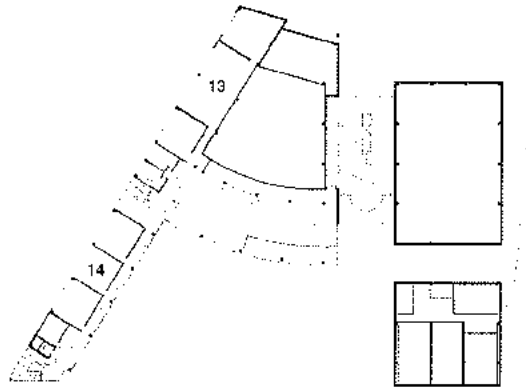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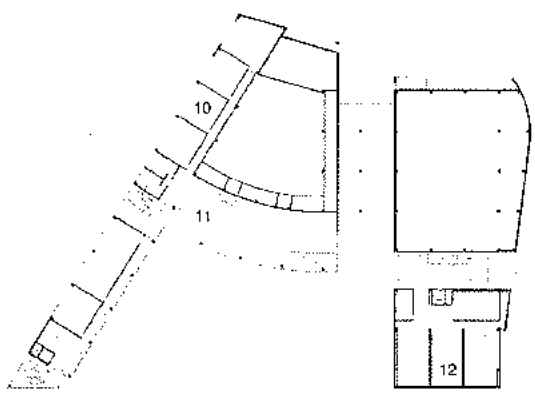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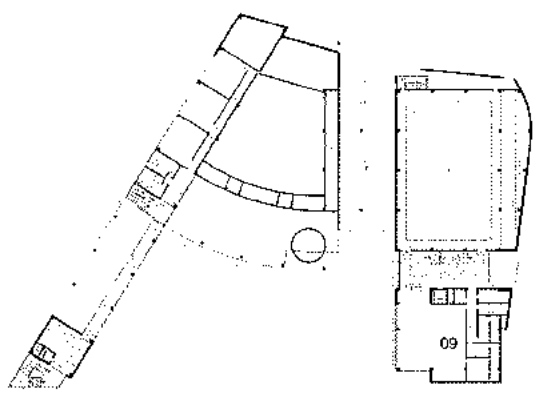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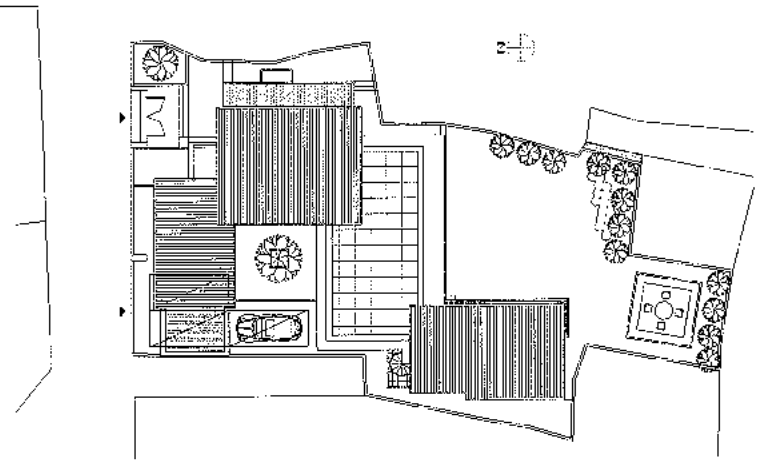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통인정(通人亭)
Tongin-jung House

정구은 / (주)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ung Koo-Ue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89-26외4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 도	주거시설
대지면적	615.60㎡
건물규모	지상2층
건축면적	223.22㎡
연 면 적	325.24㎡
건 폐 율	36.75%
용 적 률	53.54%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아연강판(zinc), 적벽돌, 화강석
설계담당	박찬원, 정종명, 황재영, 이희민
설계기간	2000.12~2001. 6
공사기간	2001. 7~2002. 6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임정의)



배치도

통인정(通人亭)은 북쪽으로는 북악산 봉우리가 있고, 서쪽으로는 인왕산 자락으로 둘러 싸인 통인동(通仁洞)의 한 자락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옛부터 선비들의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곳으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소규모 필지와 골목길들로 인하여 개발이 잘되지 않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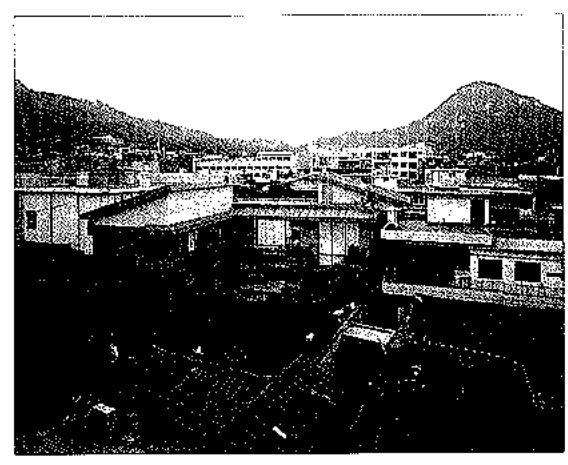
그러나 상점들이 인접해 있어 이미 도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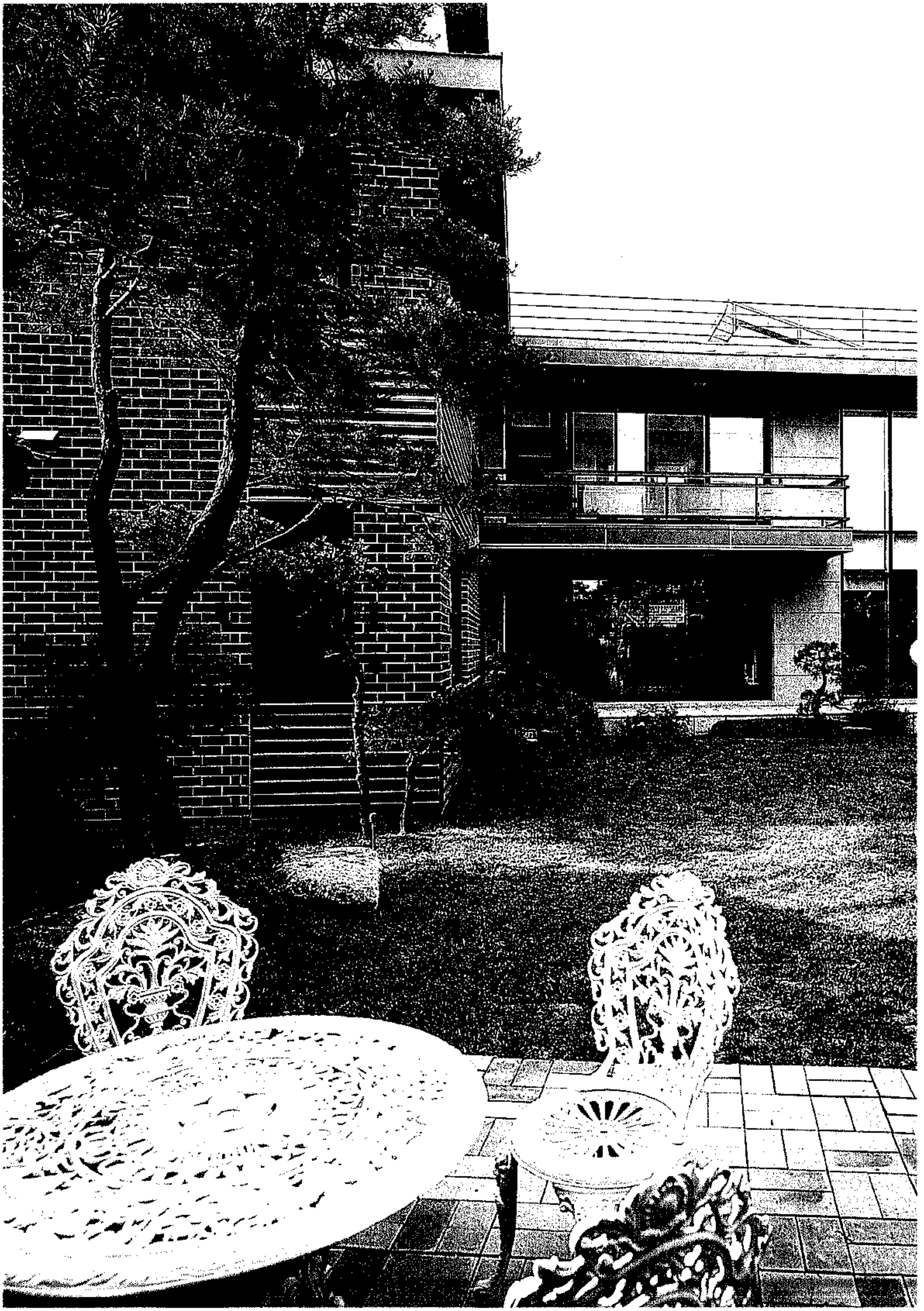
50대 중반에 접어든 부부와 대학에 다니는 남매와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축주는 오랫동안 자기가 살던 집 주위 소규모 필지를 하나 둘 구입하여 통인정을 계획하였다.

계획대지 서쪽 옆으로는 원불교 건물이 3층 높이로 중압감있게 누르고 있어서 건축주는 그 높이와 대등한 입면을 요구하였으며, 통인정에서 남산과 북악산과 인왕산을 관망 할 수 있는 트인 조망계획을 요구하였다.

대지 조건으로 북쪽으로 5m 의 진입도로를 가지는 한정된 폭으로 양편으로는 건물이 꽉 차 있었으며, 건축주가 살던 집 앞쪽 소규모 필지를 합친 결과 남북으로는 37m 되는 길쭉한 대지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남쪽 대지 끝에는 아직도 소규모 한옥이 두 채 남아있어, 남측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대지 조건이었다.

계획에 임하면서 우리는 남아있는 전통한옥을 모티브로 삼아, 우리 전통주거의 공간 분할 방법을 활용하여 남북으로 긴 대지를 채나눔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가운데 중정을 두어 공간 상호간에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내부와 외부가 서로 통하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계획을 통하여 도시주거의 전형을 만들어 보려 하였다.

북측 후면 진입으로 1m level up하여 현관에 이르게 하고, 주차진입을 open parking으로 하고, 피로티를 통하여 중정과 만나게 하여,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도로에서의 개방성을 유도하면서 주차장 피로티 상부를 중간층으로 하는 사랑방을 활용하게 함으로서 거실level과 다른, 누정과 같은 높이에서 좌식으로 중정을 내려다 보고, 사랑방 옆으로 마루를 설치하여 전통 누마루의 느낌을 도용함으로서, 이웃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각부분 level을 설정하였다.

현관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오면서 확 트인 열린 중정공간을 보게되며 거실로 가게된다. 거실의 위치는 대지의 중간에 위치시켜 전정(前庭)과 후정(後庭)을 상호 교감할 수 있게 하고, 중정을 통하여 사랑방까지 시선의 확장을 유도하여, 중정이 외부공간이 아니라 내부공간인 것처럼 인식시켜서, 외부에서 내부로 또 내부에서 외부로 즉 공간의 층이 반복되게 하면서 공간의 깊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정 중앙에는 배롱나무 한그루를 심어 사방에서 관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의 핵으로 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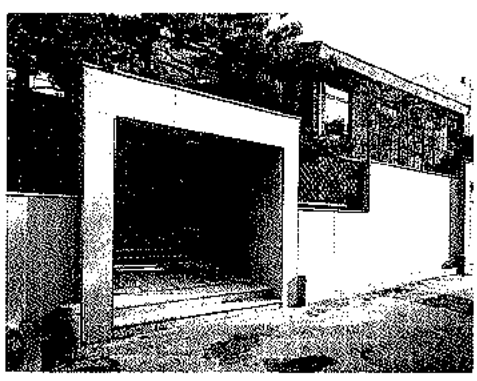
식당은 거실과 같은 공간에 두어 가구로서 분리시키고, 식당 상부를 open 시켜 2층과의 연계가 되도록 하여, 가족끼리의 대화가 있는 장소로 인식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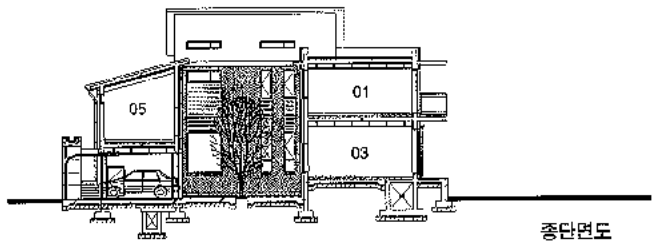
특히 이 집에서의 계단 처리는 긴 동선을 유도시켜 동선에 따른 시선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깊숙한 곳에 위치시켜, 거실을 통하여 2층을 오르게하여 가족 상호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되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이 주택의 모든 공간들은 시각적으로는 트여 있으면서 각 실들은 각각의 privacy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져 있다.

입면의 지붕 경사를 이용하여 천정을 변화시켜 자녀방에 다락을 이용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외부 테라스에서 스파이럴 계단을 통하여 옥상을 이용하게 하여, 옥상에서 사방으로 열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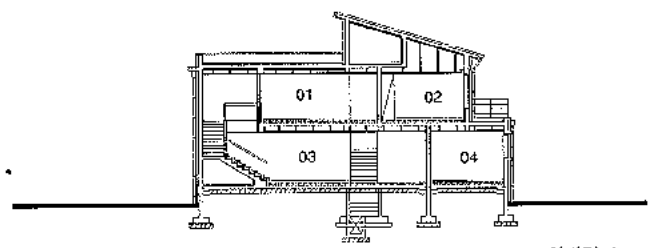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건축주의 건축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시공자의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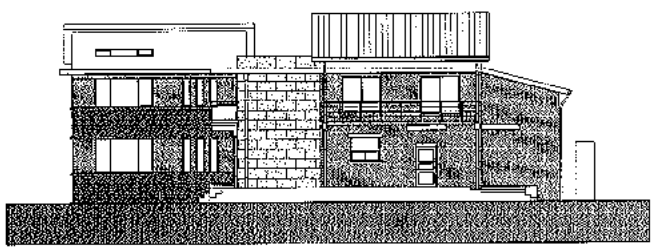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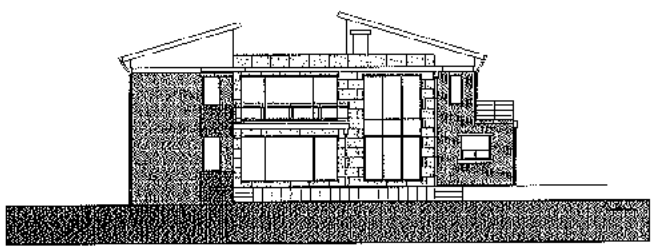
01_ 가족실
02_ 자녀방(여)
03_ 거실
04_ 주방
05_ 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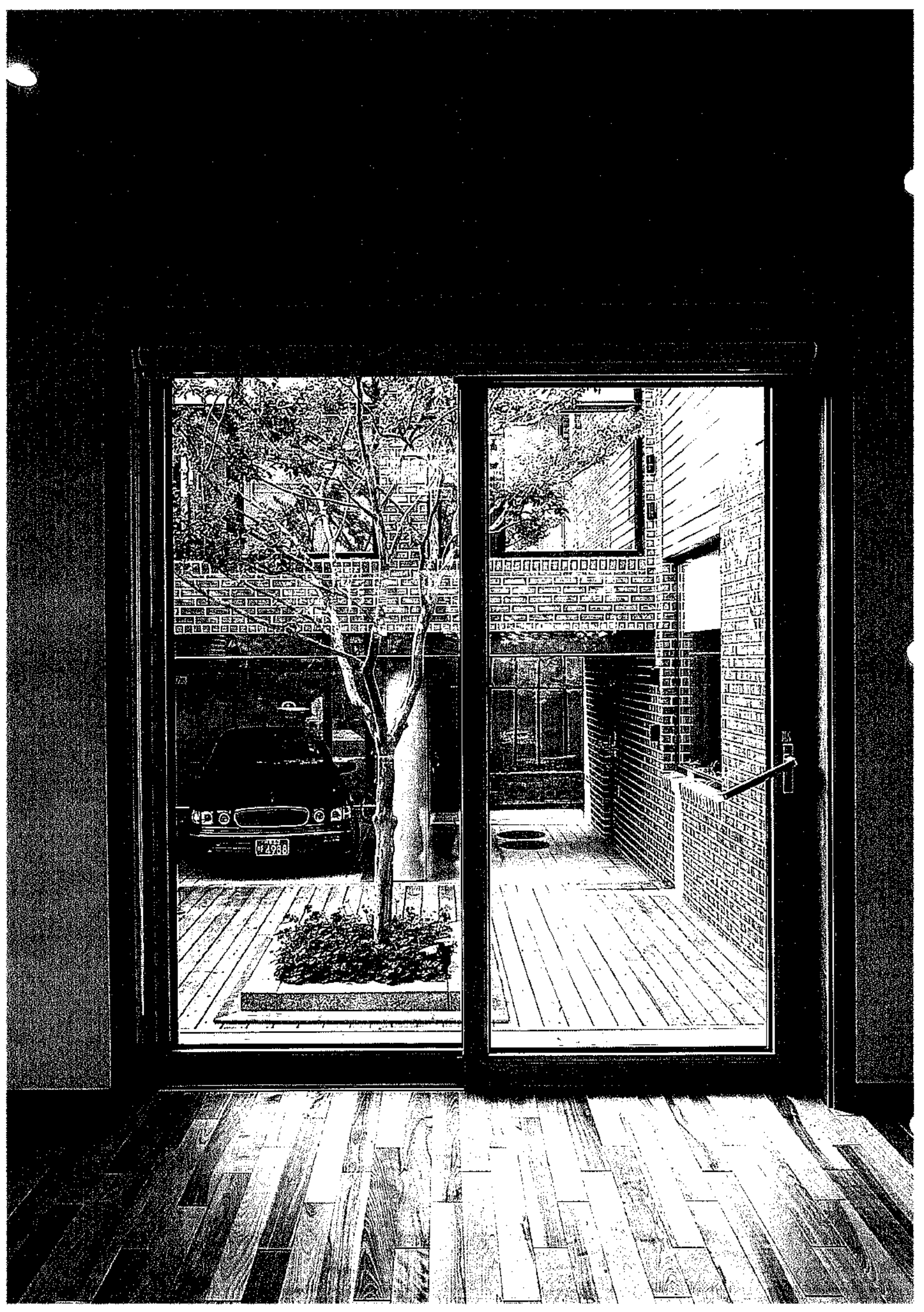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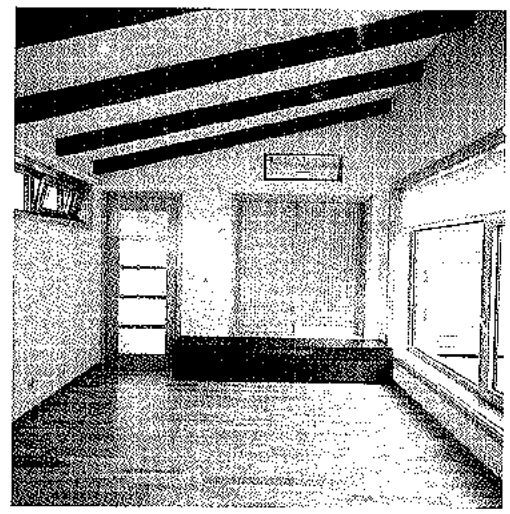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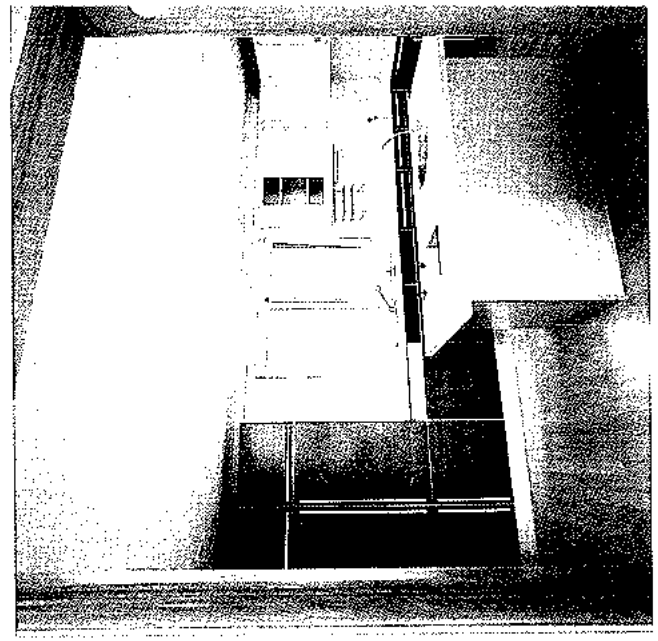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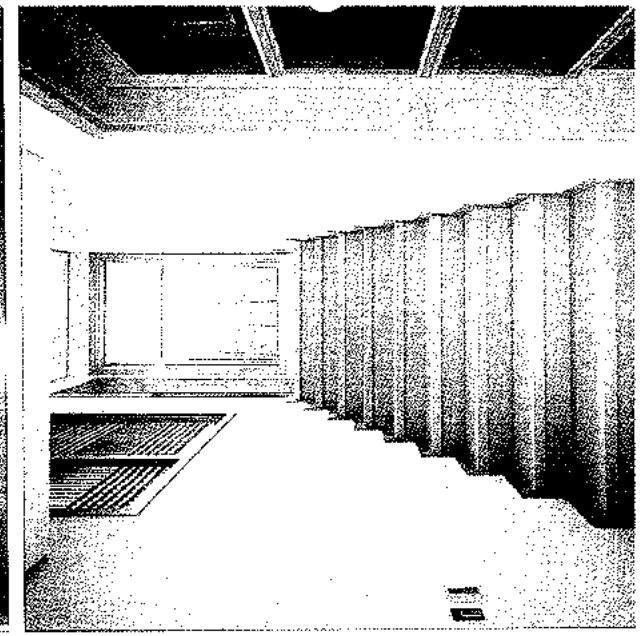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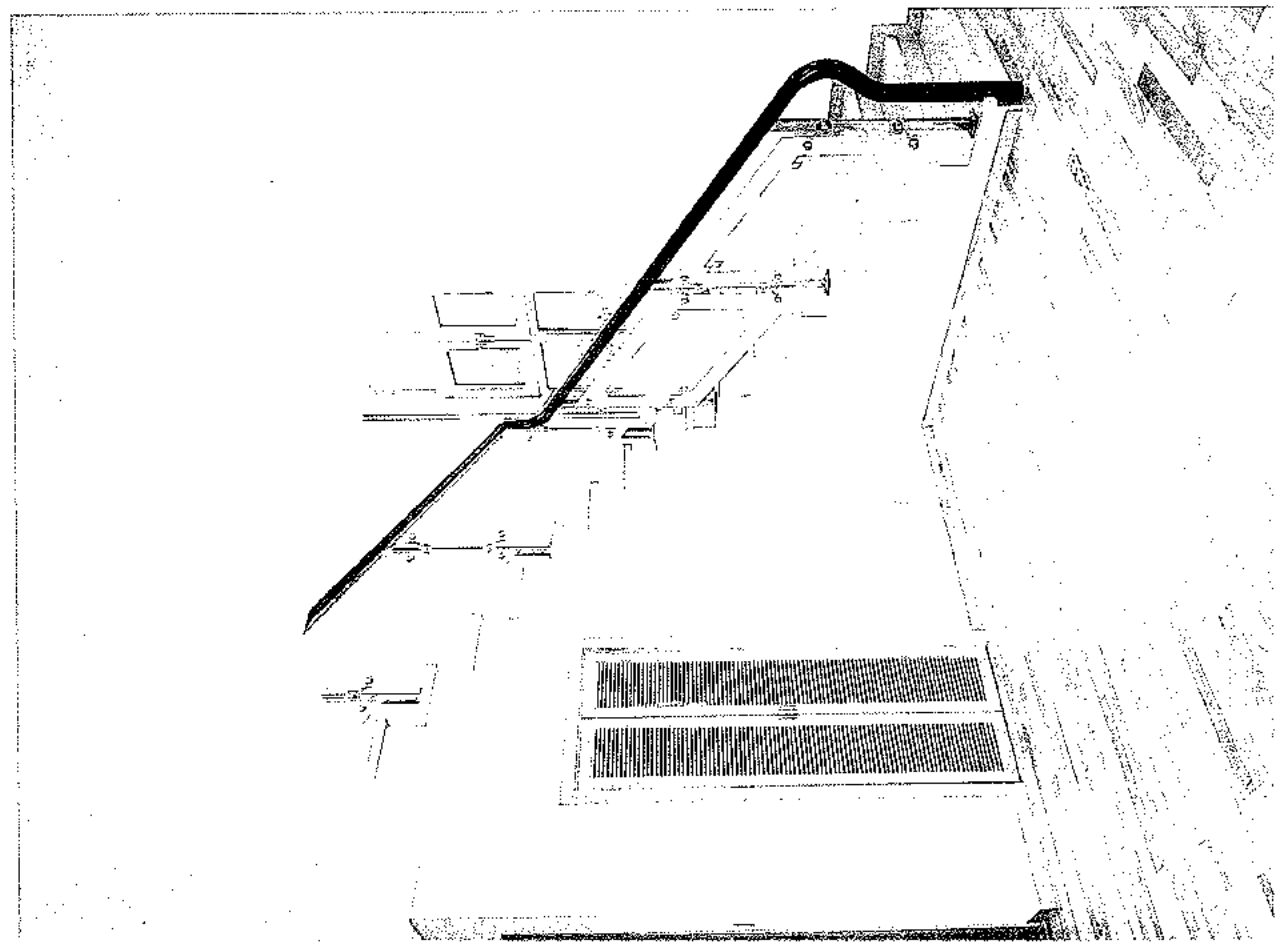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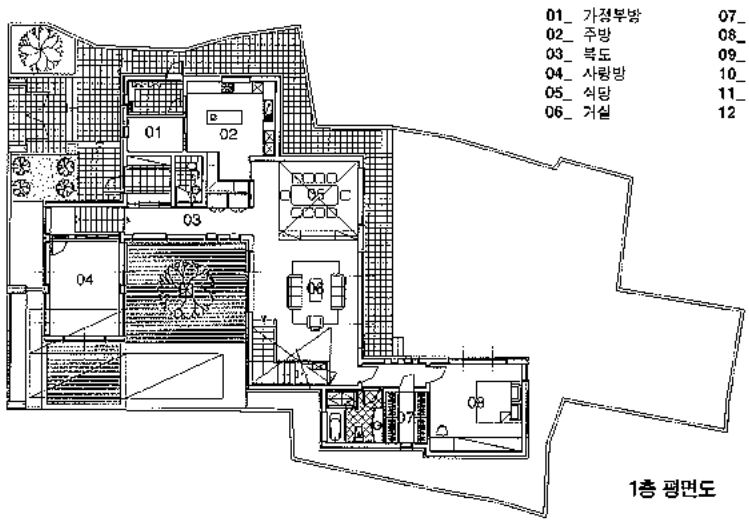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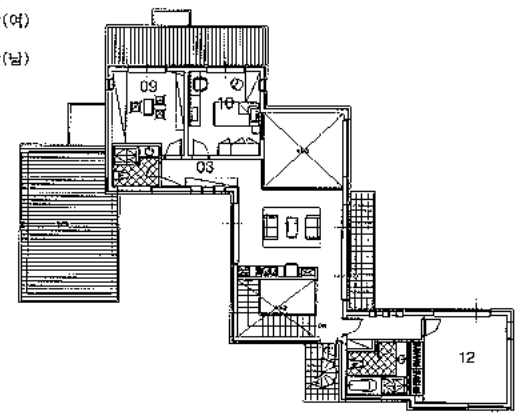






01_ 가정부방
02_ 주방
03_ 복도
04_ 사랑방
05_ 식당
06_ 거실
07_ 드레스룸
08_ 안방
09_ 노모방
10_ 자녀방(여)
11_ 가족실
12 자녀방(남)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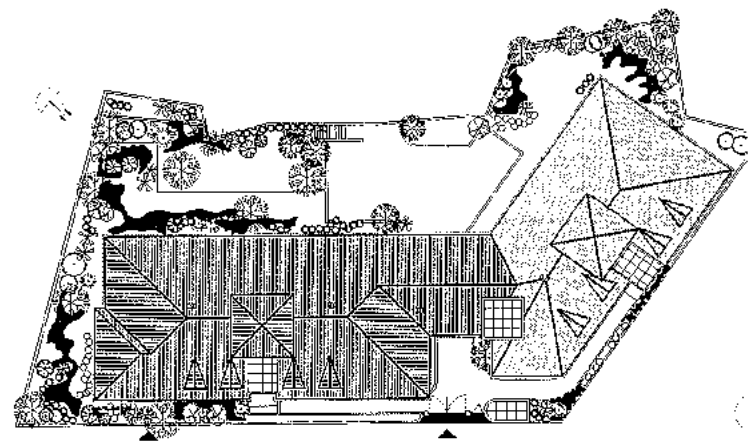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가나 힐 빌라
GA-NA Hill Villa

정구은 / (주)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ung Koo-Ue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66-25외 1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용 도	주거시설
대지면적	1981.00㎡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938.56㎡
연 면 적	4,724.02㎡
건 폐 율	47.38%
용 적 률	167.56%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적벽돌, 화강석, 동판후레싱
설계담당	박찬원, 정종명, 박순경, 윤병훈, 황재영, 이희민
설계기간	1998. 9~1999. 3
공사기간	1999. 4~2001. 1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임정의)



배치도

이 대지는 세검정에서 북악터널로 가는 대로에서 가나화랑으로 오르는 초입에 위치해 있다. 대로에서 급한 경사로를 타고 오르면, 왼편으로 대지와 7m의 level 차이가 있는 옹벽으로 이미 조성되어있는 대지 조건이었다.

대학교수님 다섯 분이 대지를 확보하여 보금자리를 꾸미고 나머지는 분양하여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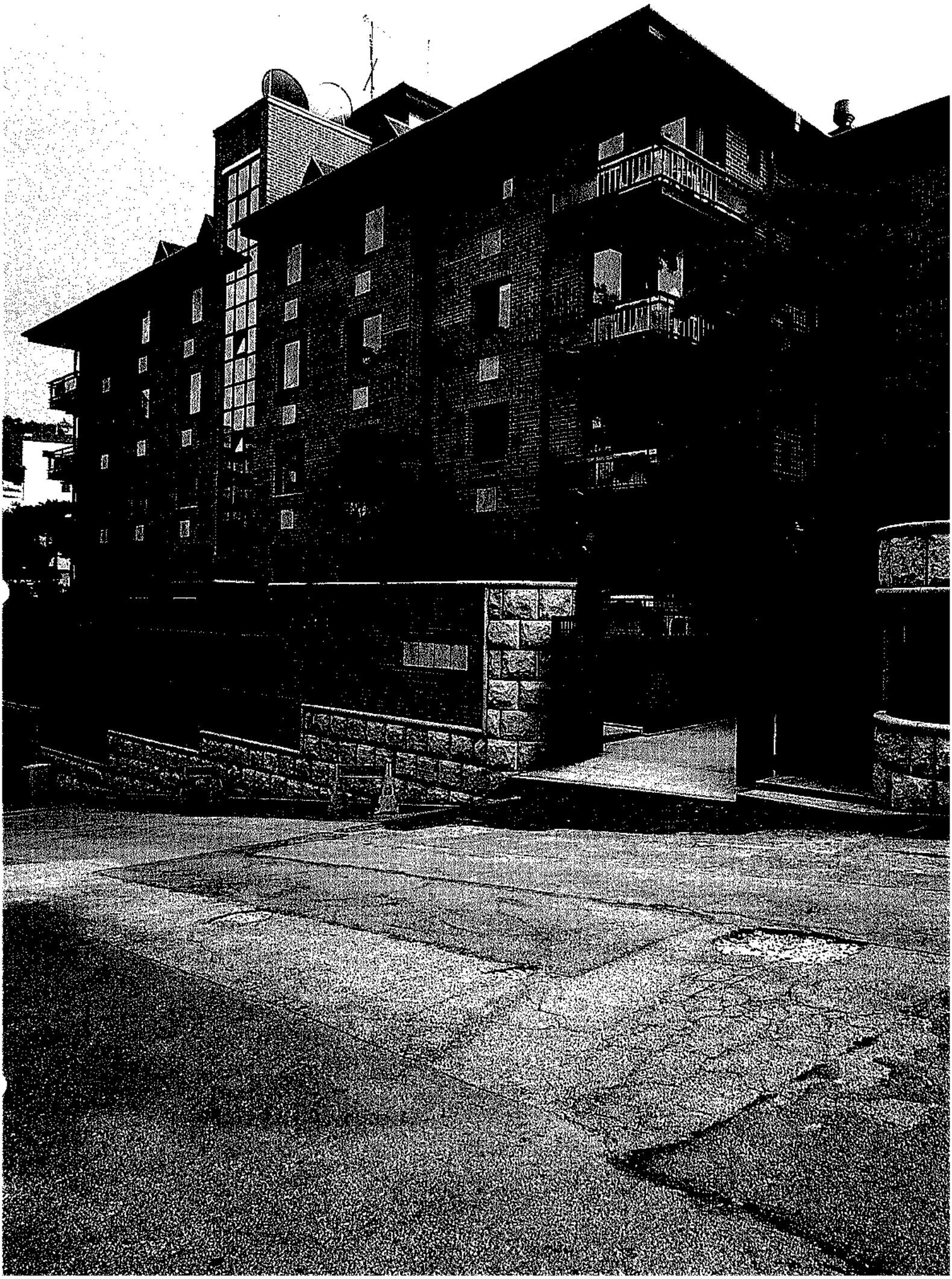
급한 경사로의 대지조건을 이용하여 지하로 주차장을 진입하게 하여 마당에는 주차장을 두지 않고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최대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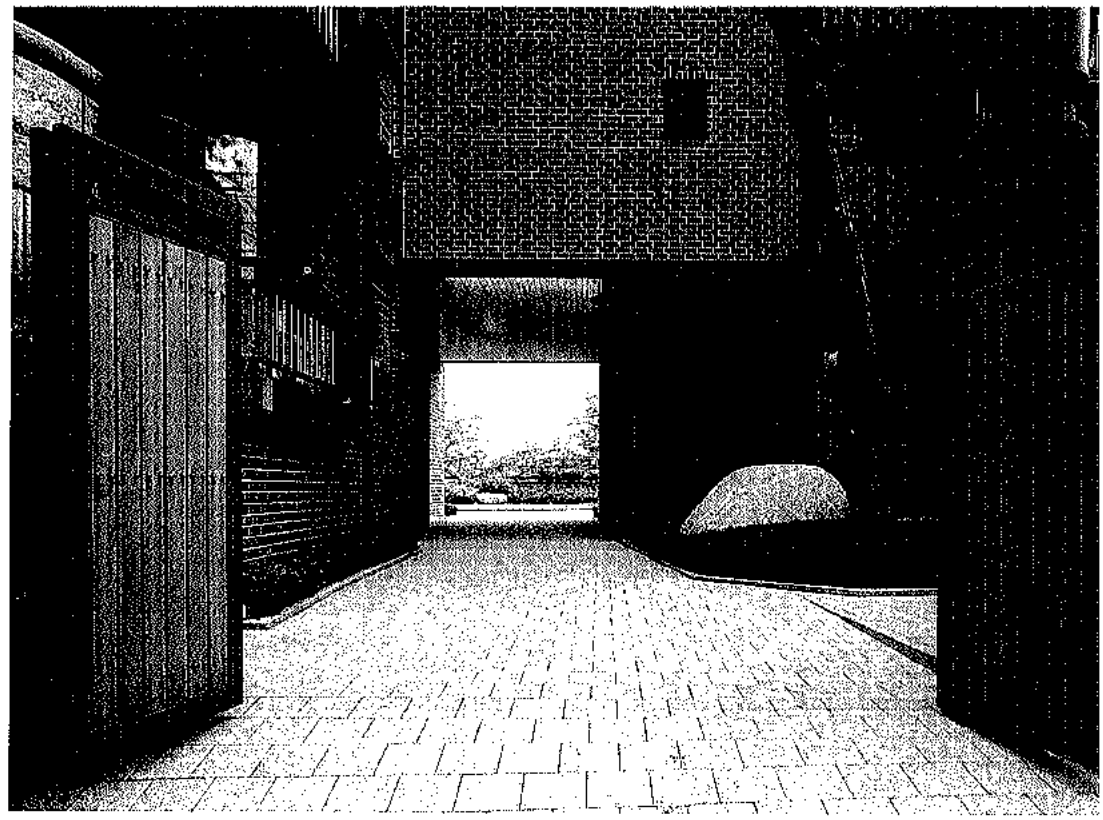
또한 후면 진입에서 진입 시 답답함을 해소하고 열린 공간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1층 일부를 할애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게 하고 후정과 전정을 연결하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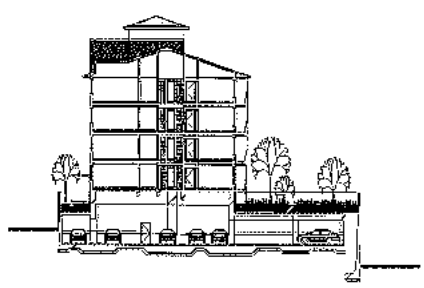
연립주택의 규모는 어느 정도의 가구 구성이 적당한 규모일까? 가족 공동체로서의 분위기는 20가구 미만의 구성이 적당할 것 같다. 이 가나 힐 빌라도 16가구의 구성으로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공유하는 정원에서 이벤트를 벌일 수 있는 조용한 썬큰 가든을 만들어 주었다.

불특정 다수를 예상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보편적인 평면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한 거실의 독립성을 주기 위하여 긴 동선을 통하여 거실에 도달케 하고, 거실과 식당 주방이 연결될 수 있게 하여 공간의 확장을 꾀할 수 있게 하며, 거실에서 안방을 출입하게 함으로서 안방의 프라이버시를 살려 주며, 안방에서 드레스실과 전용 욕실을 두는 일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우리의 주거양식의 하나의 system화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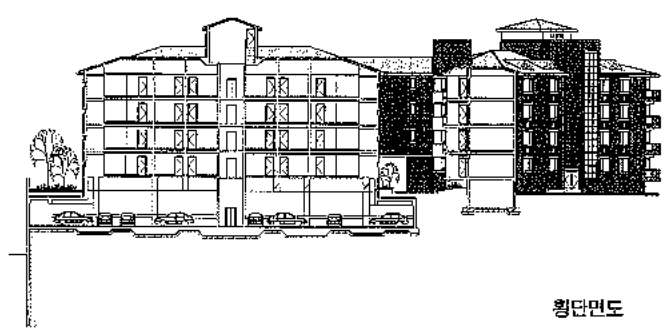
가능한 거실과 안방 어느 공간에서도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단위세대 조합에 가장 많은 역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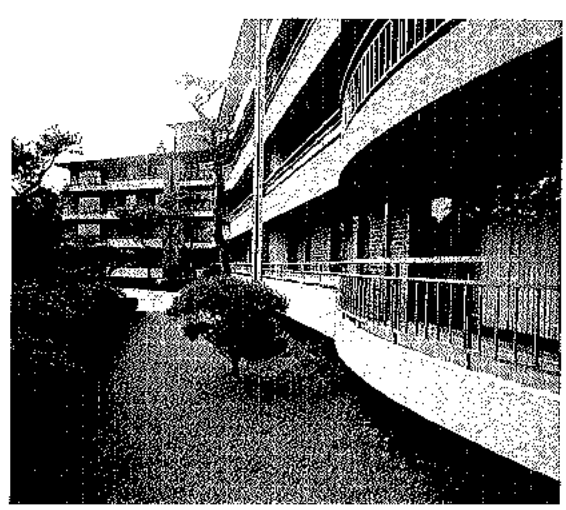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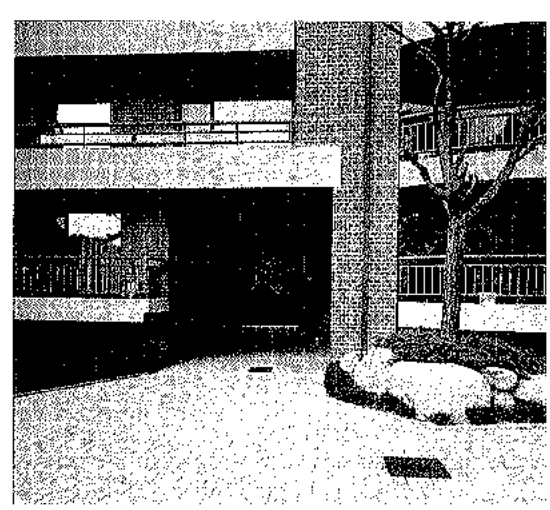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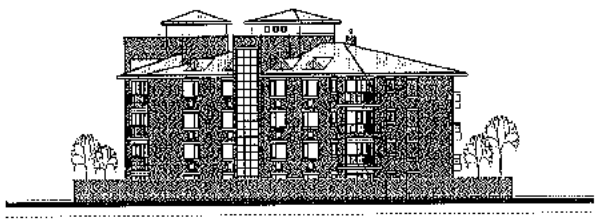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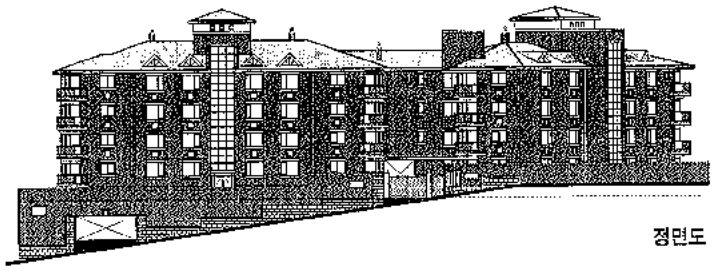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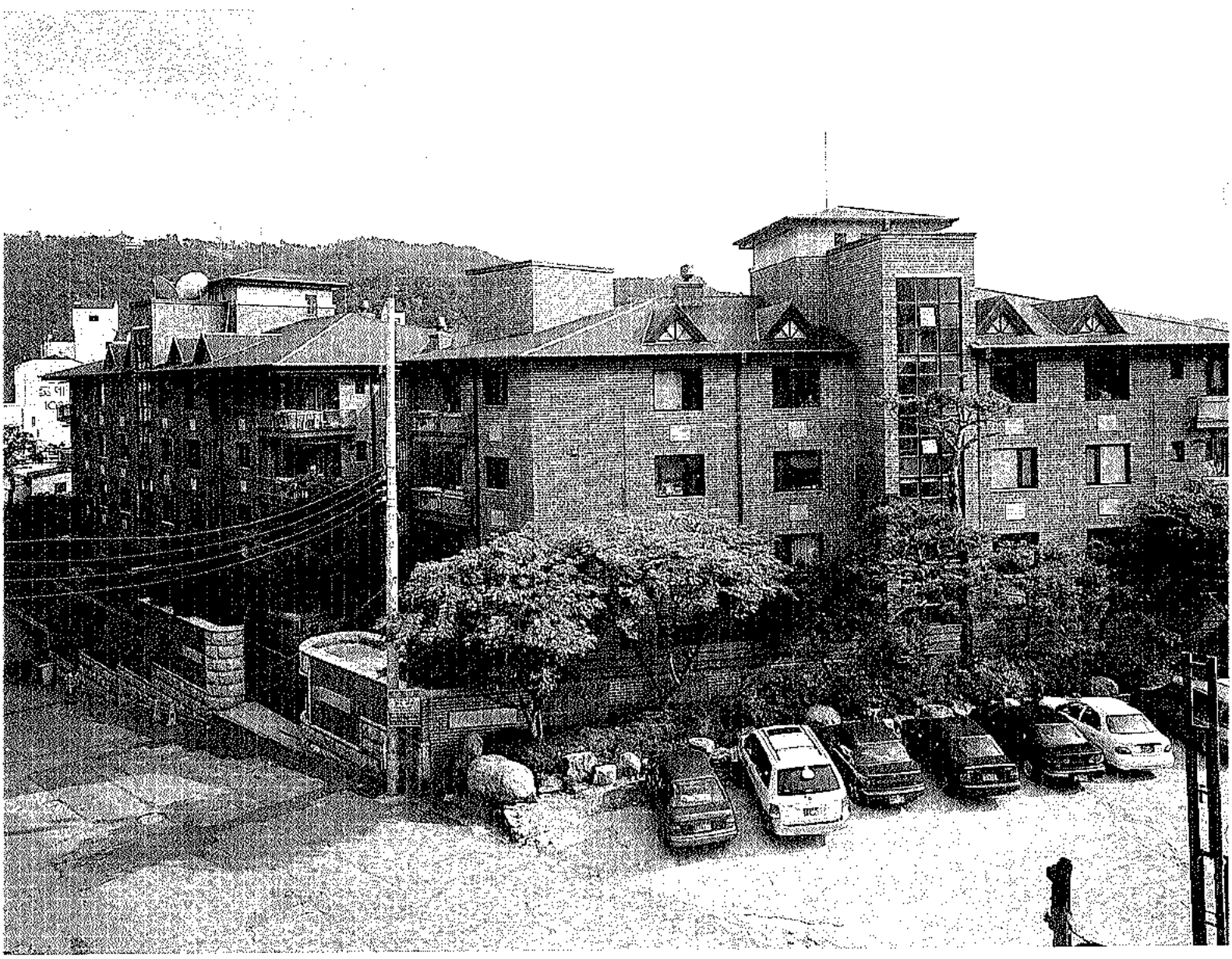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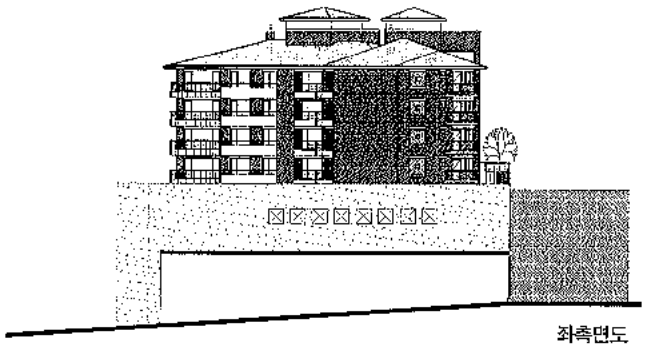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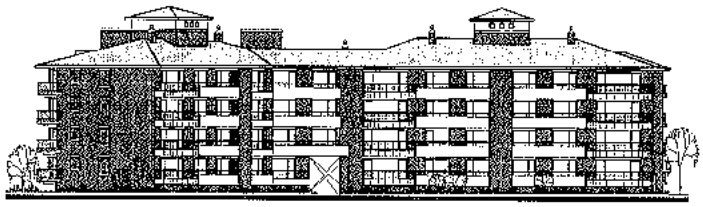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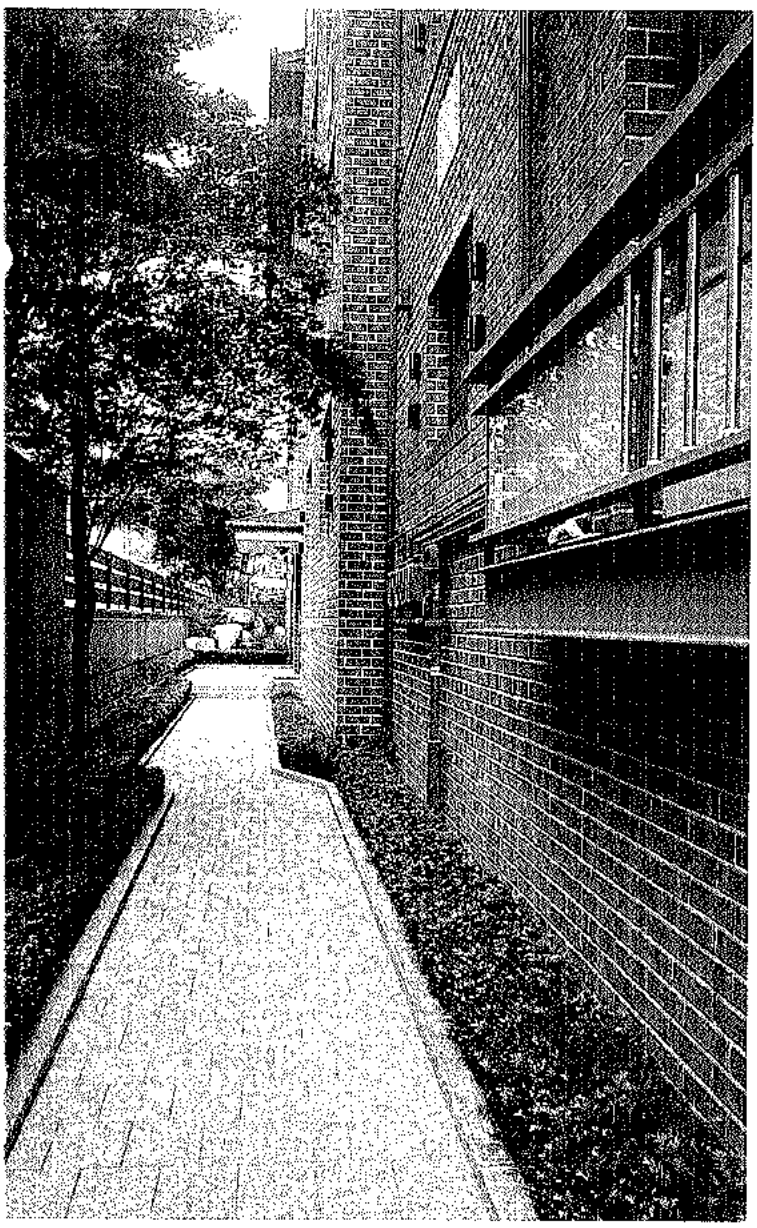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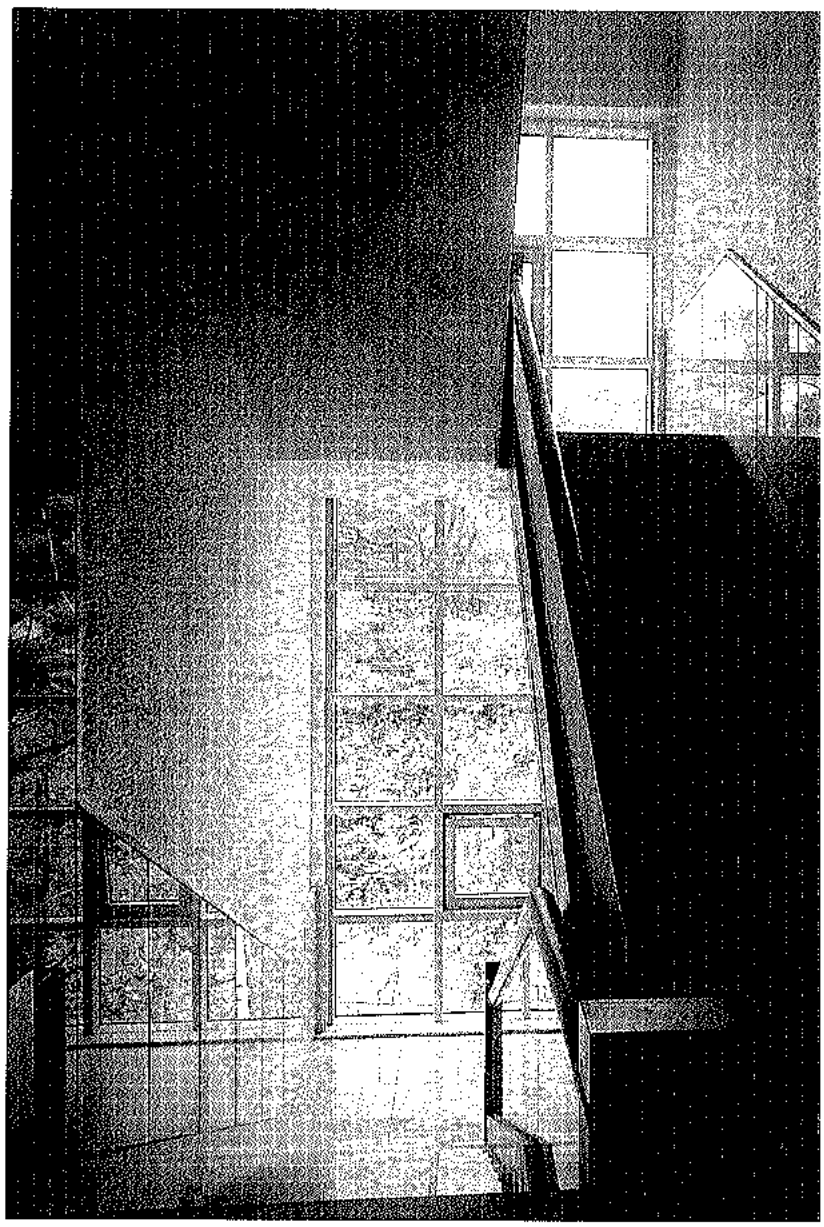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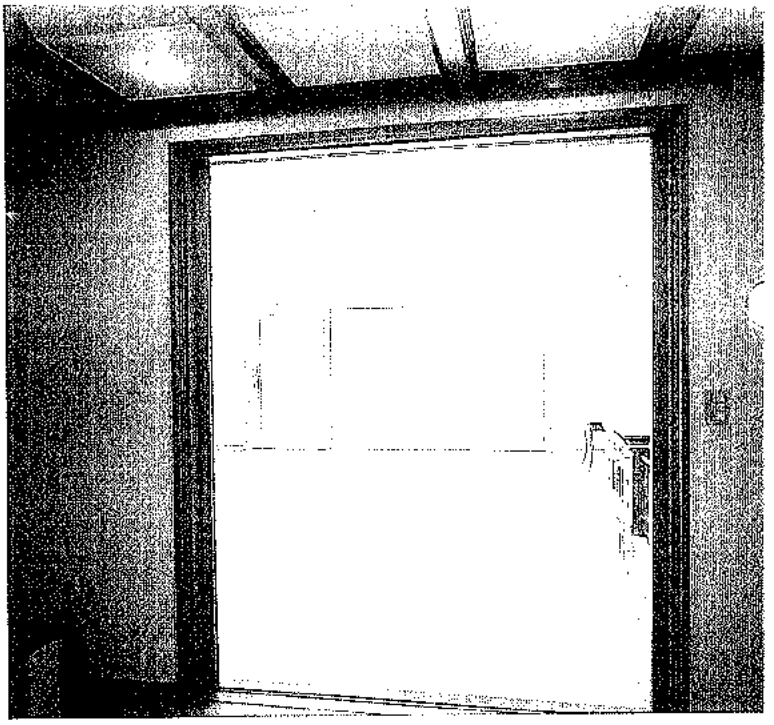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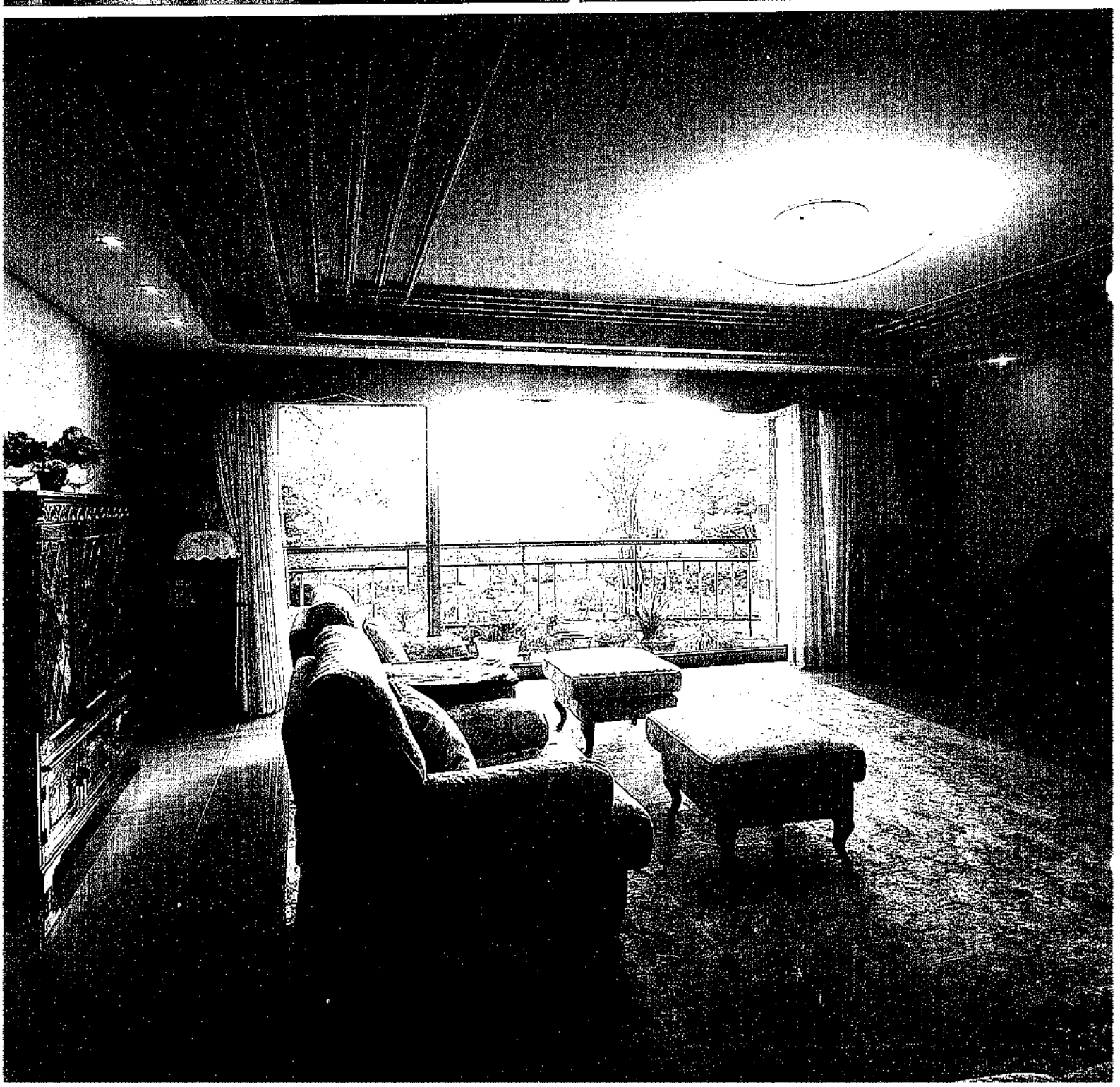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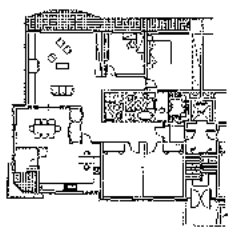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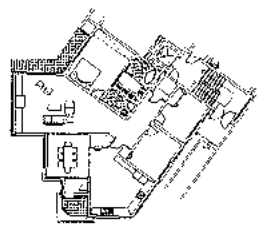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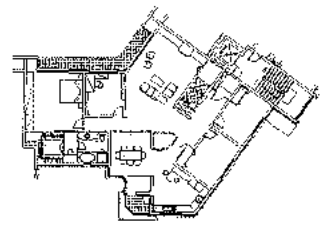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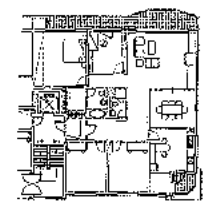
A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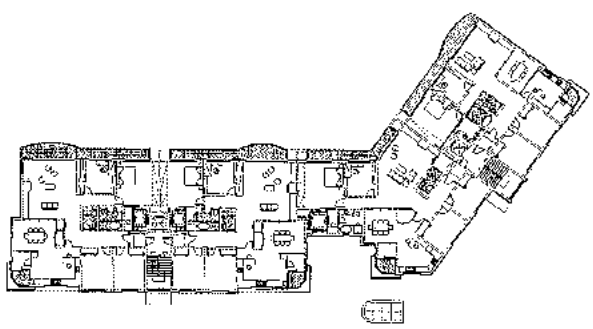
B-1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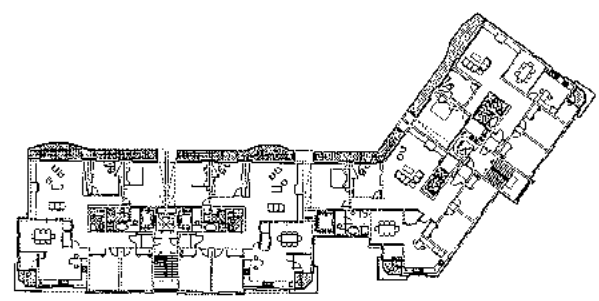
B-2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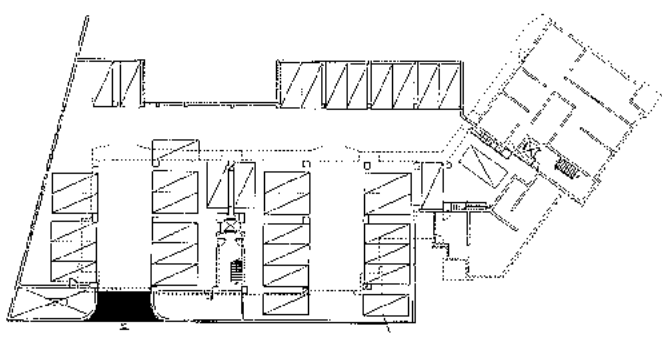
C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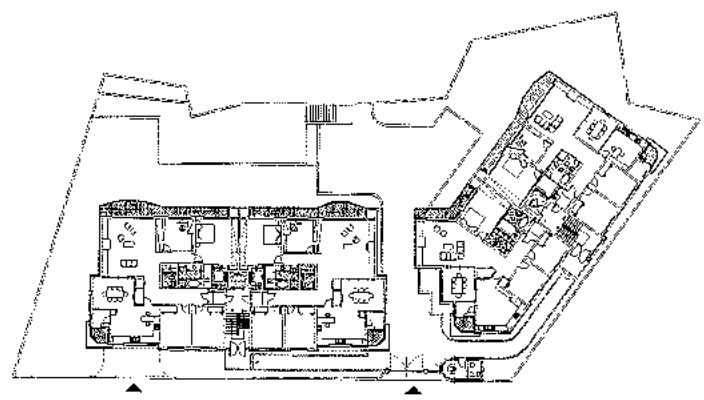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 4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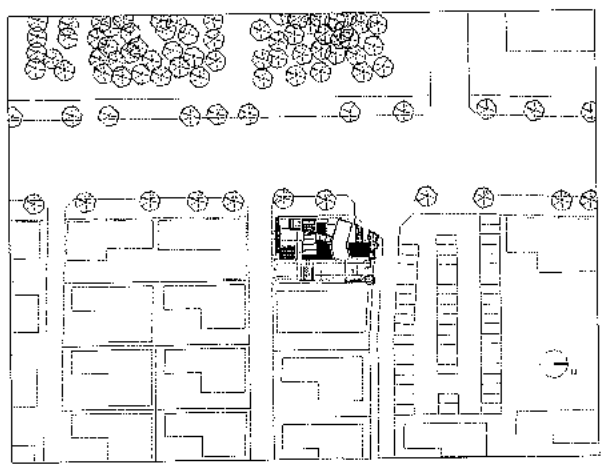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전치과의원
Daejeon Dental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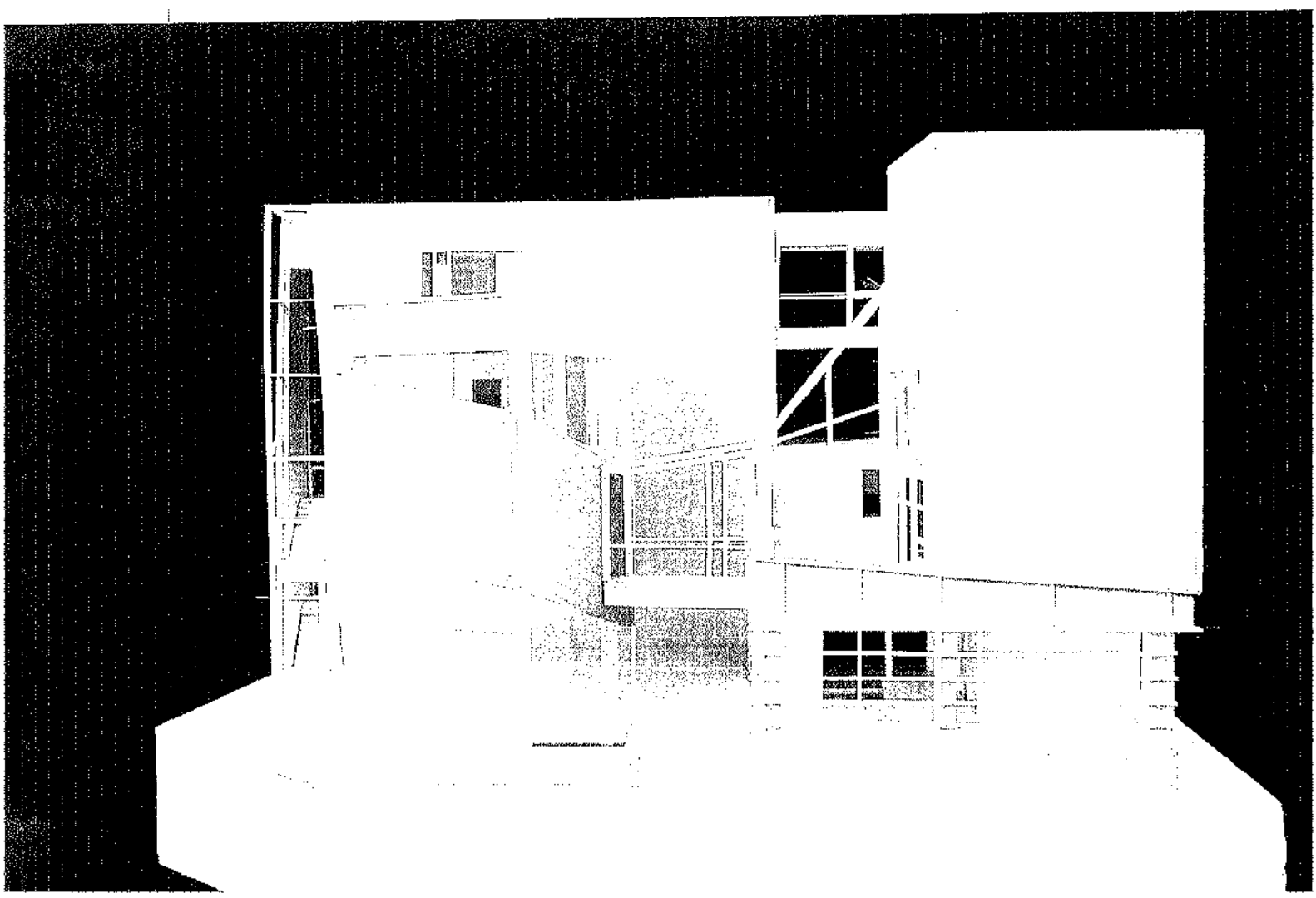
임재용/ 건축사사무소 O.C.A.
Designed by Im Jae-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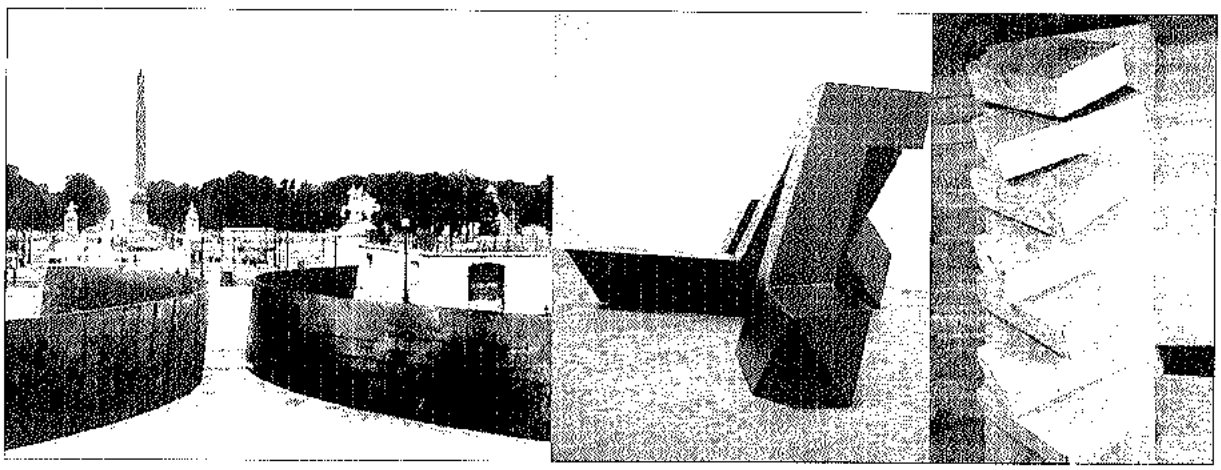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97-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420.7 ㎡
건축면적	251.68 ㎡
연 면 적	1011.11 ㎡
건 폐 율	59.82 %
용 적 률	173.31 %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용 도	치과의원, 주택
주요외장	압출성형시멘트패널, 라인징크판
주차대수	5대
조경면적	23.4 ㎡



배치도





흐름

Void의 흐름

이 프로젝트를 도시의 컨텍스트에 접목하는 장치는 외부공간의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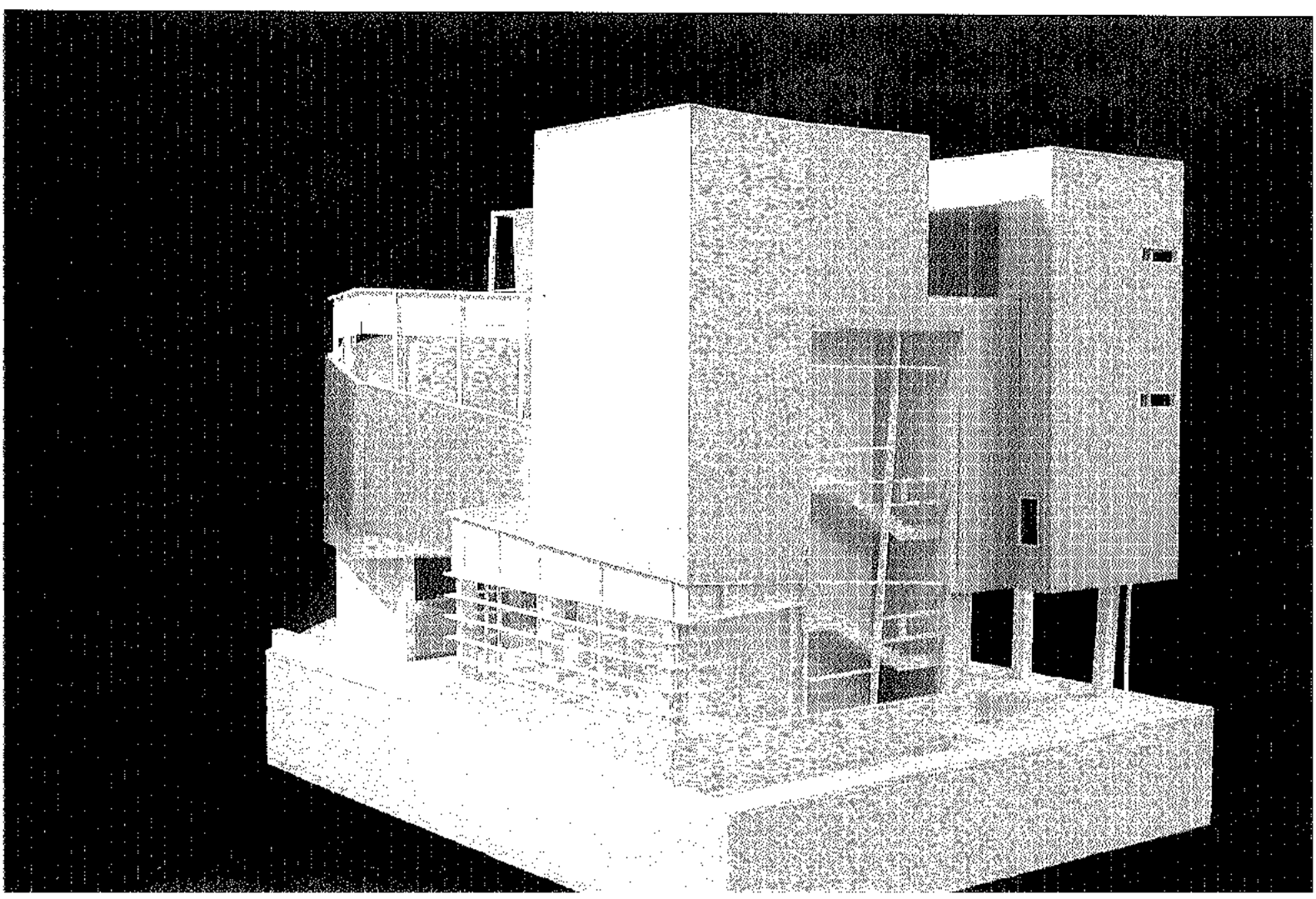
대지는 3면이 도로에 접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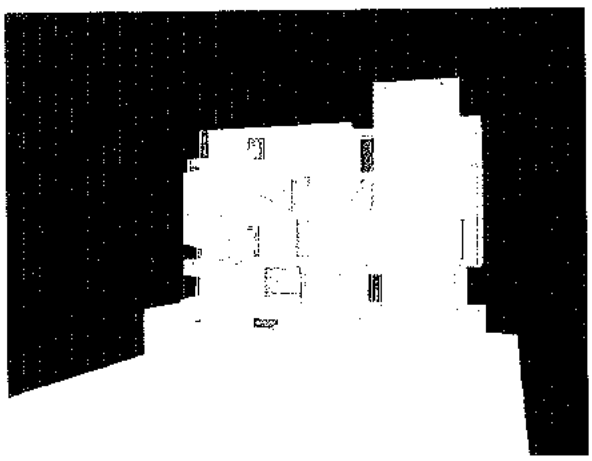
지상층에서 외부 공간은 세 도로는 서로 연결하며 관통한다.

외부 공간의 흐름으로 사람의 흐름을 대지 내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외부공간의 수평적 흐름은 Solid의 흐름으로 형성된 틈을 사이를 수직적으로 흐르며 확산된다.

Void는 Solid가 점유한 후의 남은 공간이 아니고 오히려 Void가 점유한 후 남은 공간이 Solid이다.





Solid의 흐름

Solid의 흐름은 프로그램을 담으면서 Void의 흐름의 틀이 된다.
Void가 주체이고 Solid는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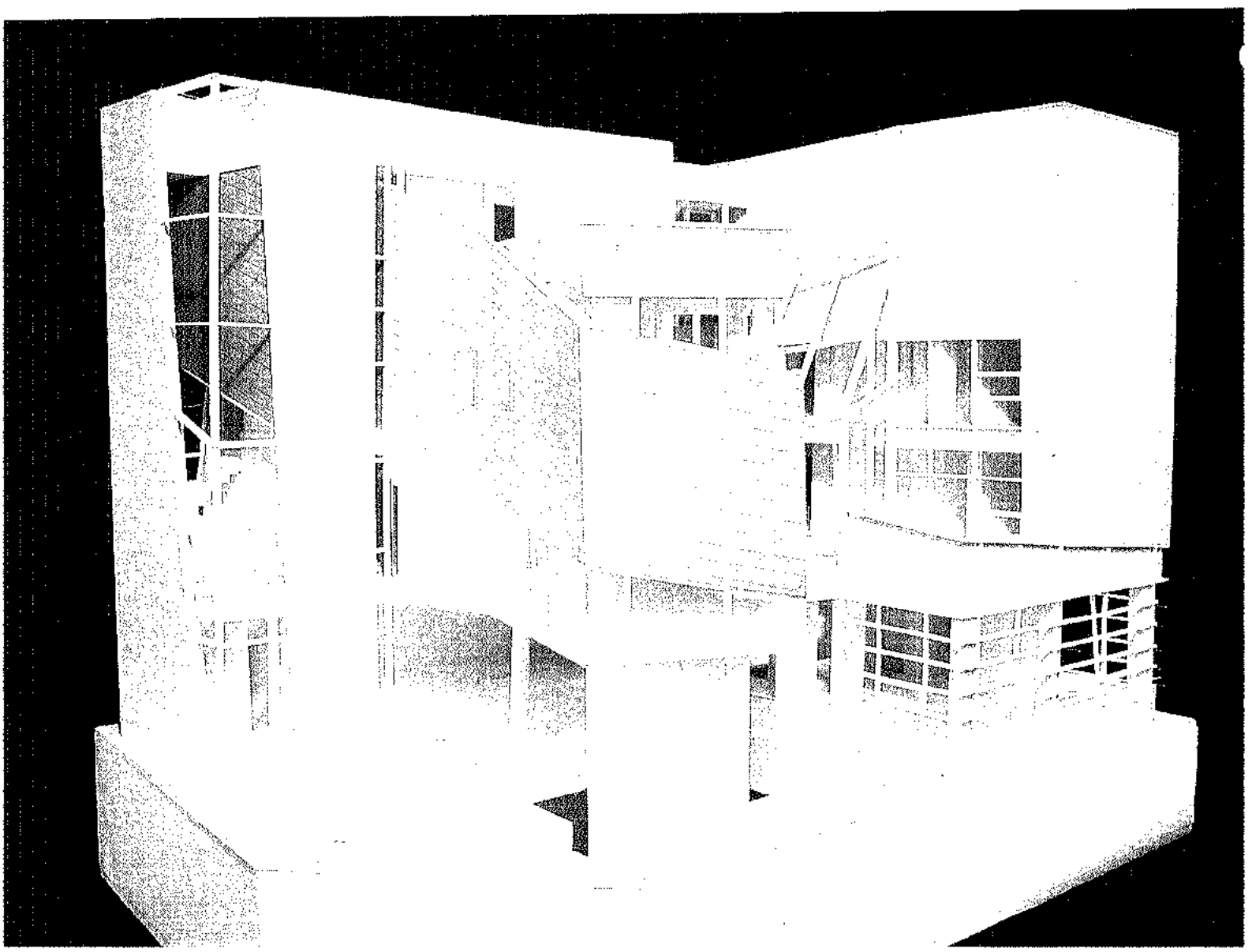
Solid의 흐름은 틈을 만드는 장치이고 틈의 흐름은 곧 Void의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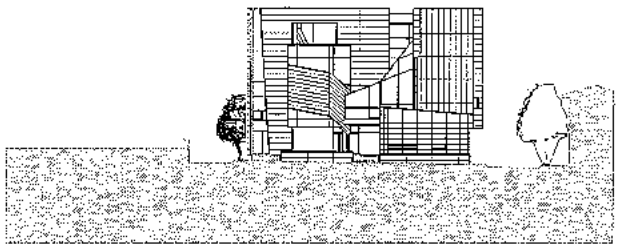
Skeleton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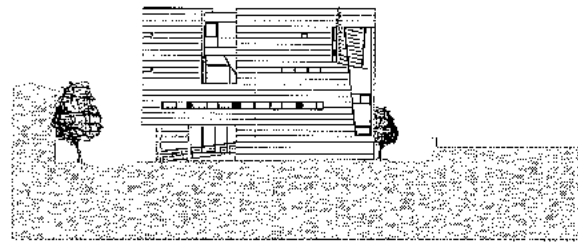
Solid와 Void의 흐름 위에 표피의 흐름을 더한다.
Skeleton의 흐름은 재료의 물성을 최대한 표현하면서
흐름의 방향성을 강조하거나 역행하면서 공간의 긴장감을 더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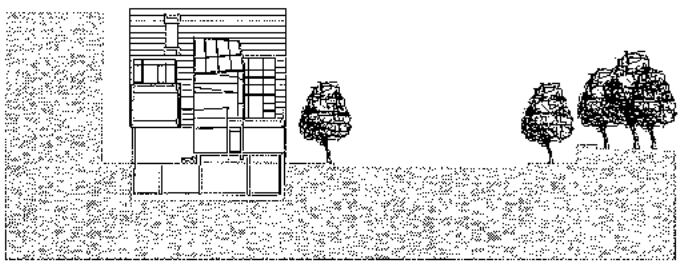
Program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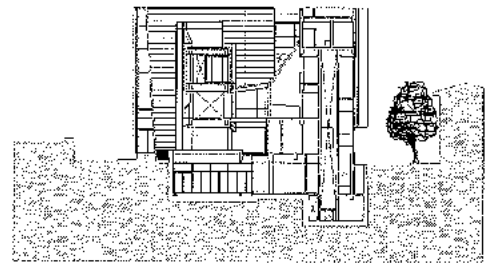
주어진 프로그램을 가능한 수직, 수평적으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프로그램과 만나게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흐름이 Solid와 Void의 흐름 속에 녹아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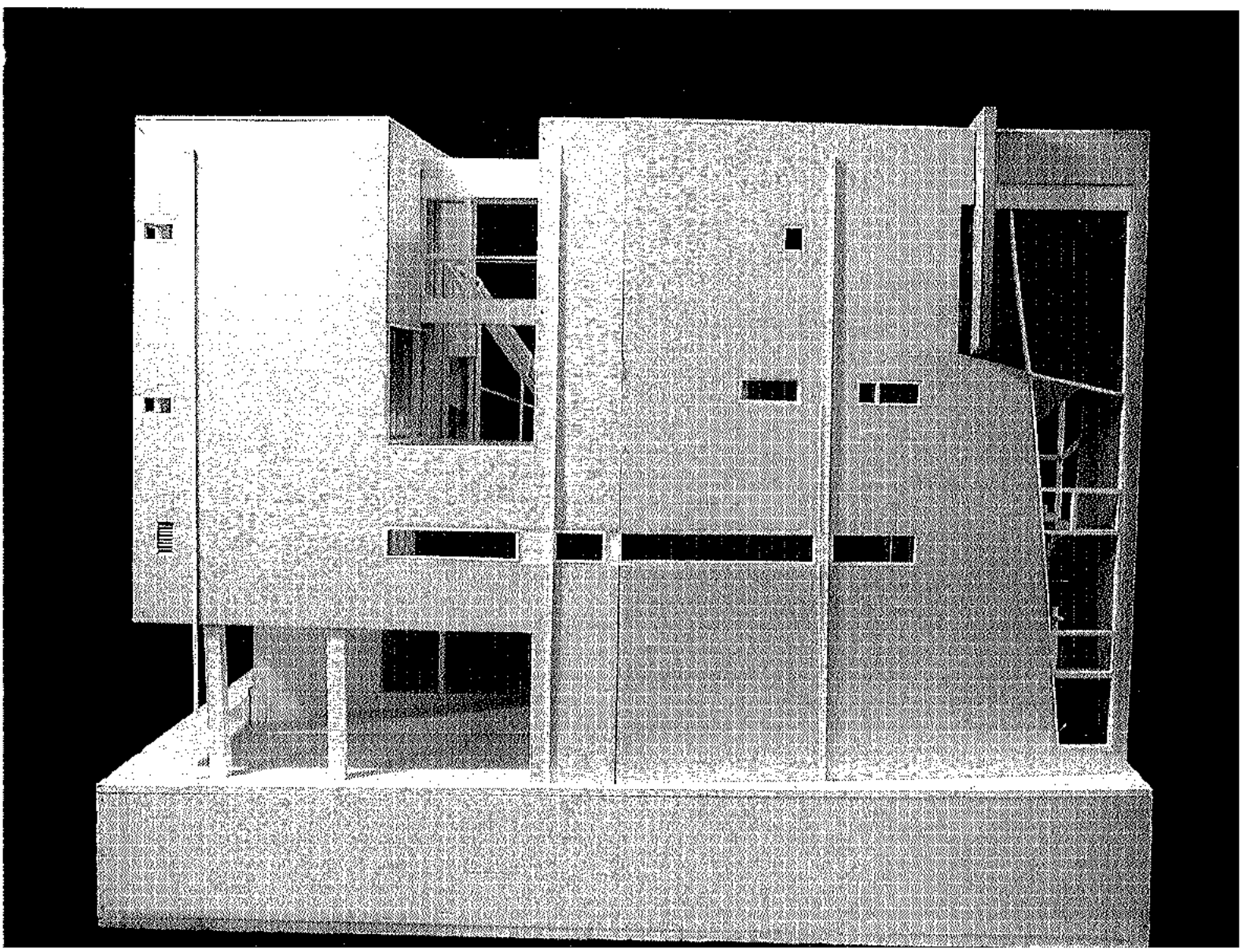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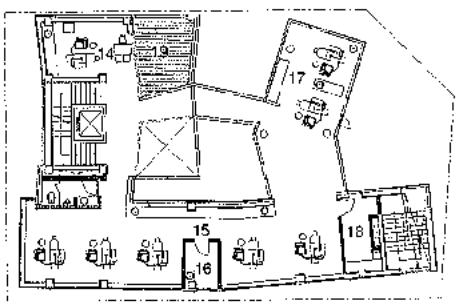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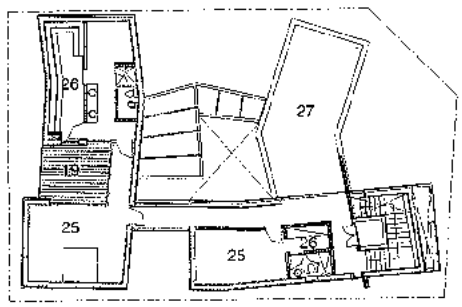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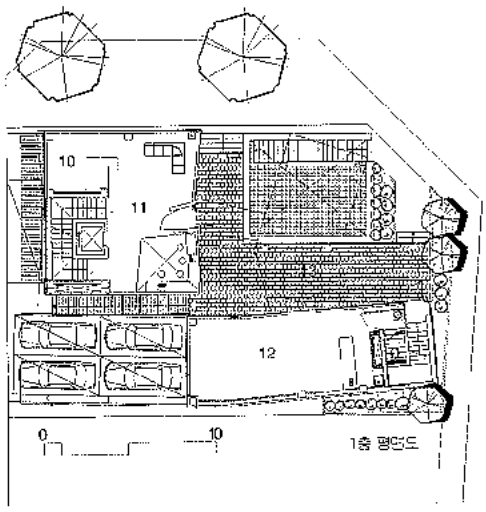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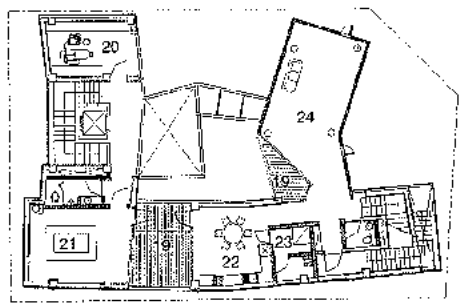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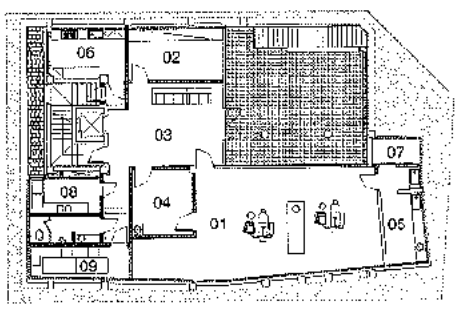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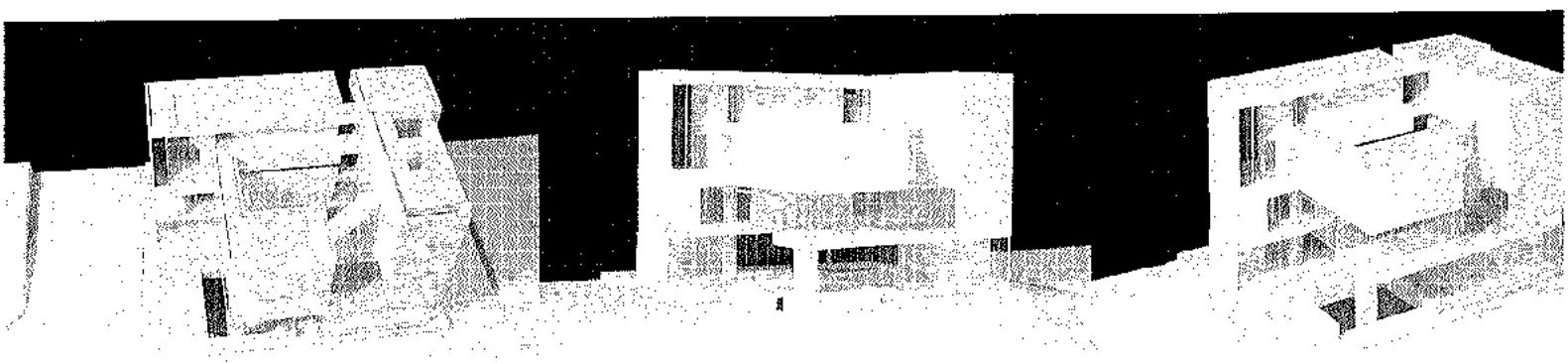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01_ 수술실
02_ 간호사실
03_ 대기실
04_ 파노라마 X-ray실
05_ 탈비실 / 기공실
06_ 주방 및 세탁실
07_ 창고
08_ 기계실
09_ 저수조실
10_ 휴무실
11_ 치과로비
12_ 커피숍
13_ 마당
14_ 예진 및 상담실
15_ 진료실
16_ X-ray실
17_ 욕진실
18_ 탈비실 및 기공실
19_ 데크
20_ 의사실
21_ 원장실
22_ 주방 및 식당(주택)
23_ 다용도실(주택)
24_ 거실(주택)
25_ 침실
26_ 드레스룸
27_ 잔디마당



초기모형

용인보라지구 공동주택 / 70
홍익대부속중고 다목적종합체육관 / 74
전남대 기숙사 8호관 / 76
달성군청사 / 80
금융감독원청사 증축 및 개보수 / 8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 84

용인보라지구 공동주택

BoRa Housing, Yon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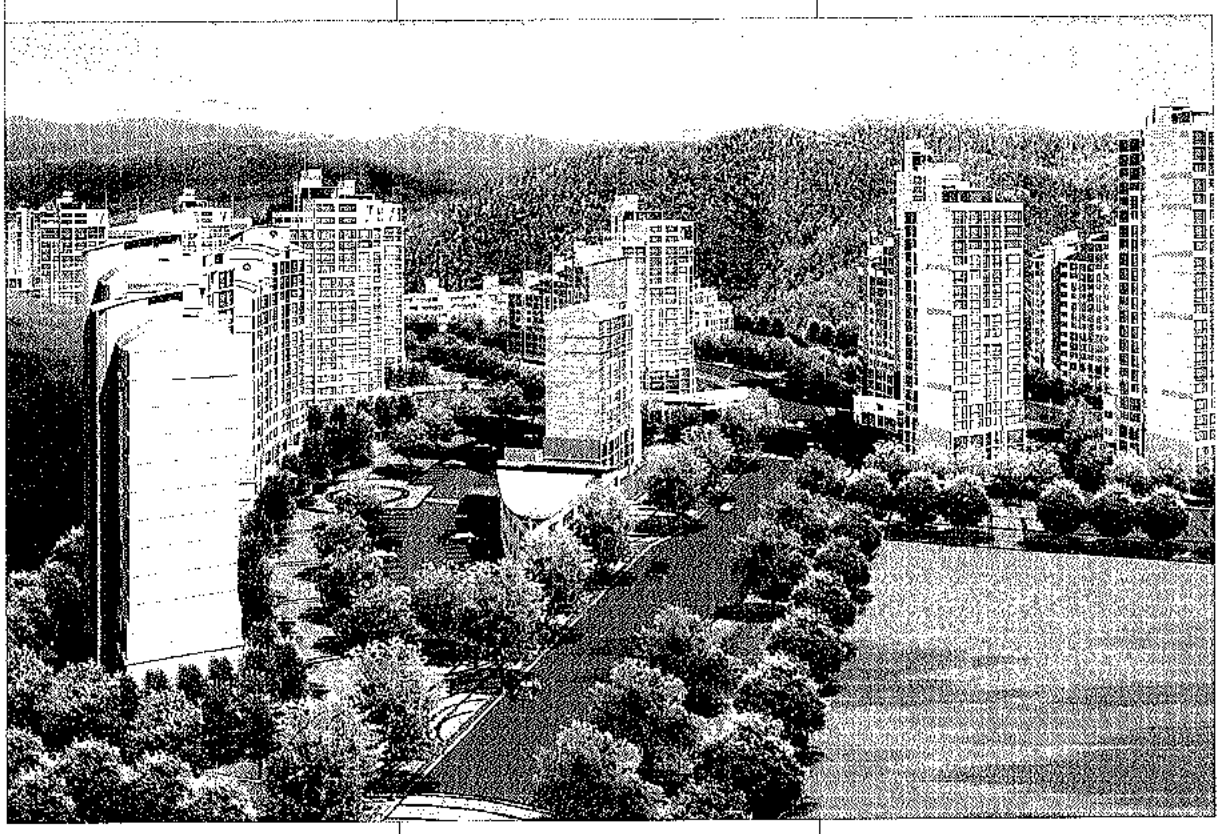
▶ 당선작 /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민승렬)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택지개발지구 1~9블럭, 내 5, 7, 9블럭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21,240㎡
건축면적	5블럭 - 3,202.653㎡
	7블럭 - 4,899.867㎡
	9블럭 - 3,705.612㎡
연면적	5블럭 - 54,823.281㎡
	7블럭 - 69,548.632㎡
	9블럭 - 61,598.063㎡
건폐율	5블럭 - 11.67%
	7블럭 - 13.74%
	9블럭 - 12.39%
용적률	5블럭 - 172.86%
	7블럭 - 162.48%
	9블럭 - 172.29%
주차대수	5블럭 - 471대
	7블럭 - 751대
	9블럭 - 580대
설계팀	조환우, 임채성, 남기광, 배태현, 김진홍, 최봉진, 김형규, 조두연, 정영태, 김태환

주공택공사 40주년 기념단지인 용인보라지구는 입지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원경 및 이동경관의 대상이며, 지구 내외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원형 주거단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설계의 전제사항으로는 M.A(Master Architect)팀에서 제시한 설계목표(Design Goal)와 Design Guideline이 제시되어 있다.

금번 현상설계에 대한 설계목표는 용인보라지구 전체가 한 마을과 같은 개념의 유기적이고 아름다운 쾌적한 주거단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목표구현을 위한 설계전략으로는 조화로운 경관구성과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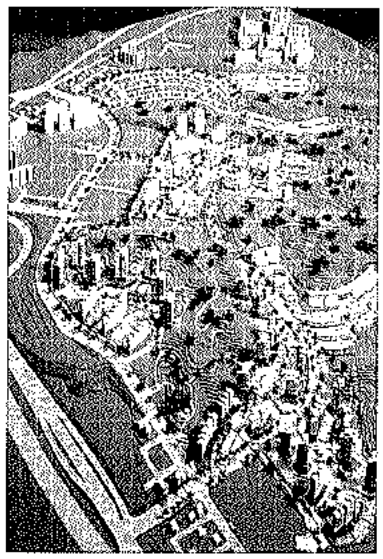


보행공간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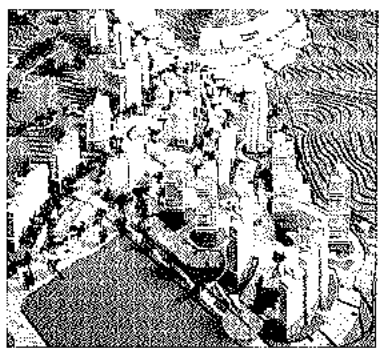
조화로운 경관구성을 위한 디자인요소는 경관역(景觀域)에 따라 구분 적용하였으며 원경의 경우 자연과 인공이 중첩된 다양하고 조화로운 Skyline(스카이라인)과 탑상형 포인트 주동에 의한 Landmark(랜드마크), 자연경관이 조망될 수 있는 Visual corridor(시각통로)를 적용하였다. 중경 및 근경의 경우 주 대상을 가로경관으로 삼았으며, 이를 위한 설계로는 가로변에서의 휴먼스케일과 비스타(Vista)를 감안한 저층의 부대시설과 중층의 주거동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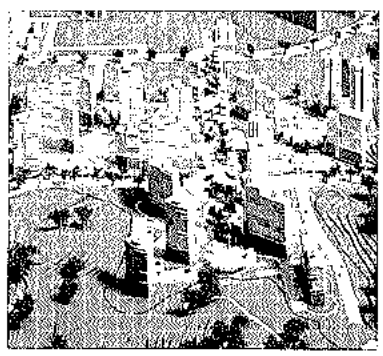
친 보행공간 구성을 위한 설계개념으로는 지구전체를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구 내 20m 도로를 보행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단지와 가로가 서로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도를 단지 내부 쪽으로 확장하였으며, 구간별로 테마형 Pocket Park을 계획하였다. 또한 가로와 단지가 마치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공간적으로 상호 관입되고 시각적인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건축디자인과 조경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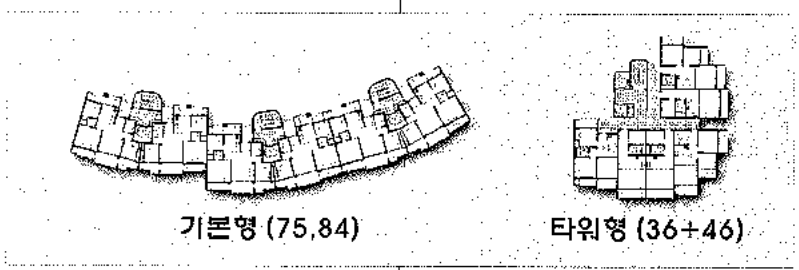
용인보라지구는 향후 M. A(Master Architect)와 설계자(Block Architect), 발주처(주택공사)간의 협력과 의견조율을 거쳐 기념단지에 걸맞는 모범적인 주거단지로 탄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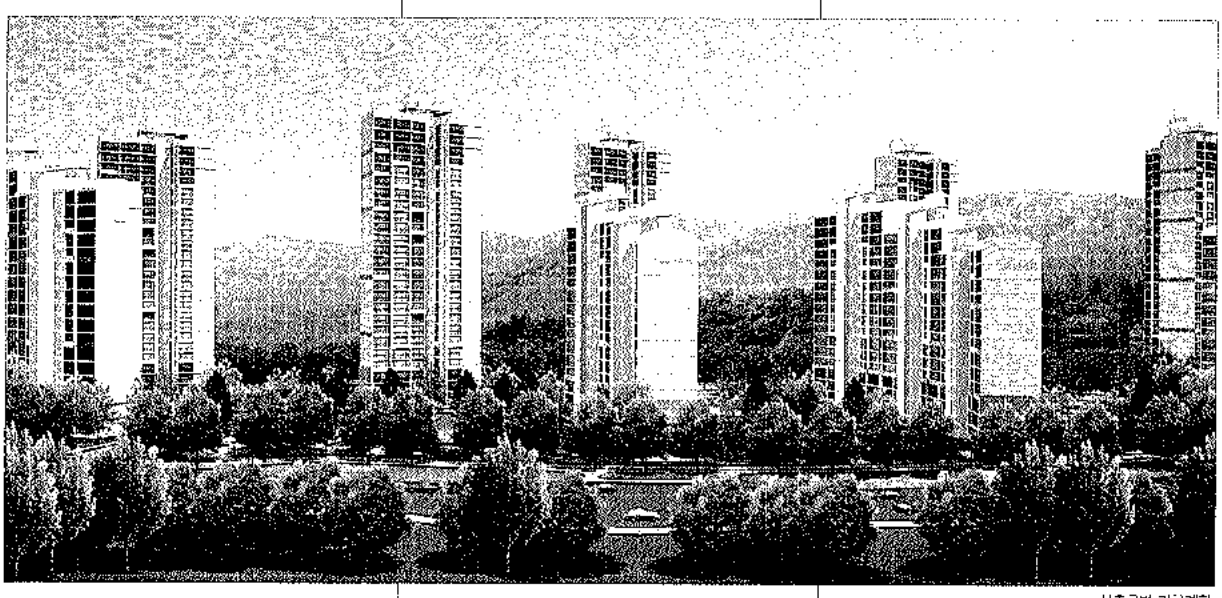
배치도







주동 평면계획



서측루빈 가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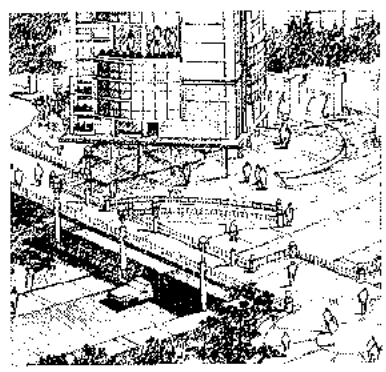
▶ 우수작 / (주)강남종합건축사 사무소(최병찬 · 정세진)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택지 개발지구 1~9블럭, 내 5, 7, 9 블럭
용도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5블럭 - 27,450㎡ 7블럭 - 34,650㎡ 9블럭 - 29,900㎡
건축면적	5블럭 - 3,086.49㎡ 7블럭 - 3,965.73㎡ 9블럭 - 2,914.62㎡
연면적	5블럭 - 54,194.0㎡ 7블럭 - 75,881.92㎡ 9블럭 - 60,816.365㎡
건폐율	5블럭 - 11.24% 7블럭 - 11.44% 9블럭 - 9.74%
용적률	5블럭 - 169.95% 7블럭 - 178.08% 9블럭 - 172.20%
주차대수	5블럭 - 471대 7블럭 - 748대 9블럭 - 587대
설계팀	박종서, 이승기, 신현국, 김선호, 장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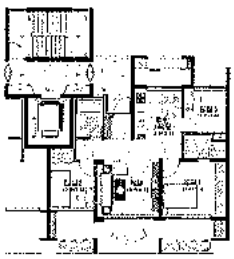
한국 민속촌 남서측에 위치한 용인 보라지구는 주변이 자연 녹지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서측에 경부 고속도로와 42번 국도가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하다.

"자연과 생활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경관도시(산/내/들)"를 주제로 경관, 친보행, 교육을 중심테마로 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된 주거지 경관과 생활가로변의 중경 및 근경 그리고 중심가로에서의 통경축을 형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했으며, 주거지 가로의 생활, 보행 공간의 형성 및 확충과 생활 거점과의 연계로 보행 친화적인 생활공간을 실현하며, 교육지원 생활공간 확충과 자녀 생활 중시형 단위주택 개발 및 생태 · 문화 학습장을 조성하여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구의 통일성 및 균형성을 고려하였고, 주요 조망점에서의 통경축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층수변화형 주동 배치로 스카이 라인을 형성하였다. 근린 공원측에는 탑상형 배치로 개방감 및 블록별 연계성을 부여하고 도로변에 저층 배치로 보행시 위압감을 완화하였다. 주요 중심 가로는 테마형 가로 공간으로 야외 장터, 문화마당, 예술탐방로, 문화탐방로, 다목적 광장을 형성하여 보고 배우고 걷는 가로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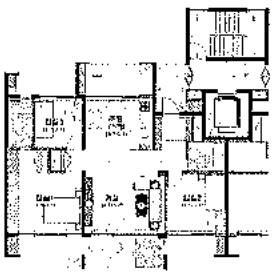


59㎡A형(기본형) 축척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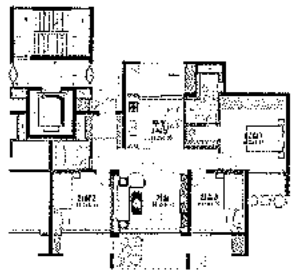


59㎡B형(측세대형) 축척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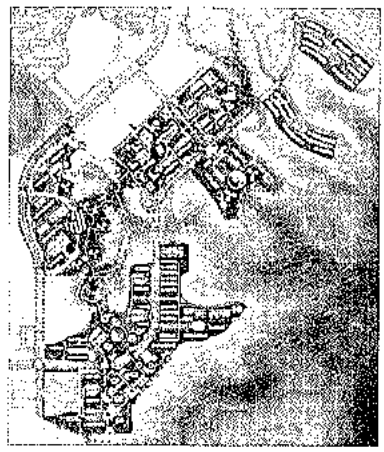
84㎡A형(기본형) 축척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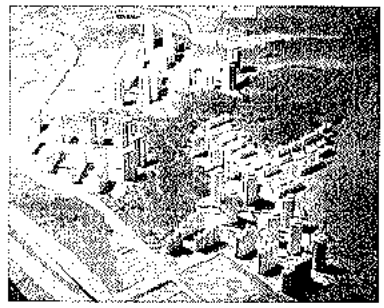
84㎡C형(측세대형) 축척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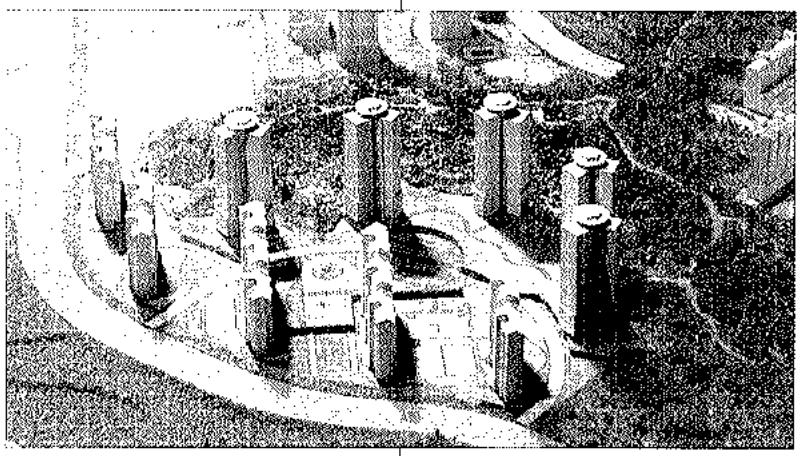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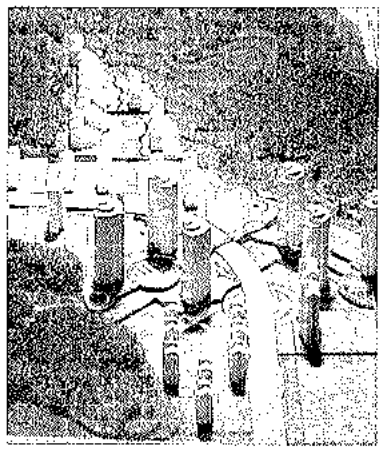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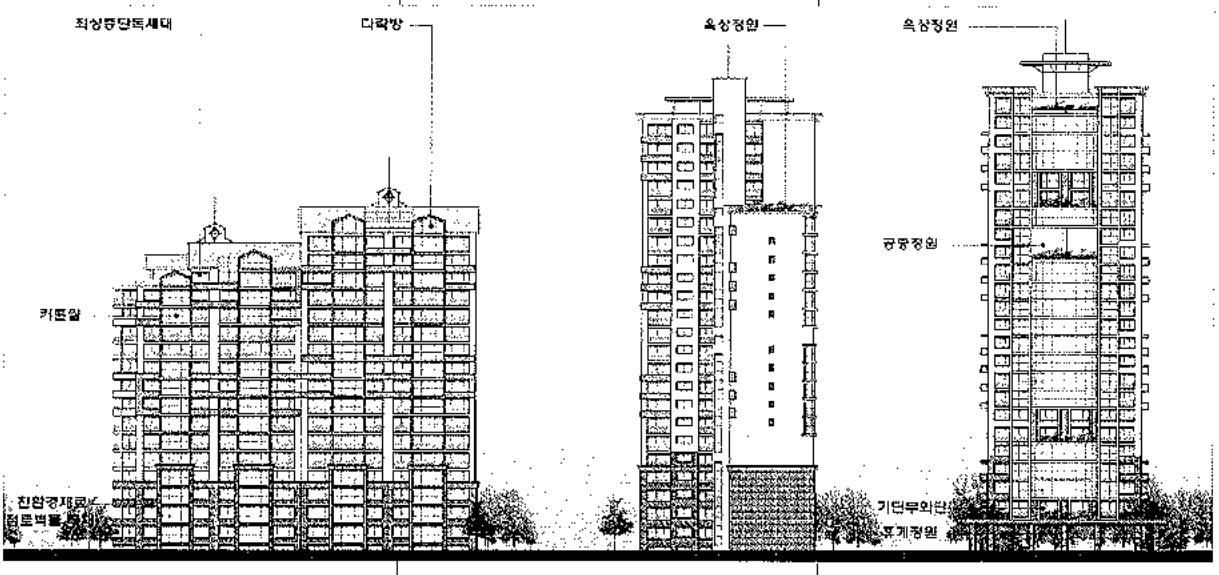


배치도









홍익대학교 부속 중·고 다목적체육관

Hong-Ik Middle-High School Gymnasium

▶ 당선작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노형래)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51 홍익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구내
건축면적	1,455.17㎡
연면적	1,714.21㎡
구조	철골조, 일부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상 3층
외부마감	THK24 복층유리, AL 패널, 아연도강판
설계팀	고종준, 주영준, 선혜령, 허 한, 김동원, 이준우, 권영환, 김진환

성북동에 위치한 계획부지는 홍익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에 있는 기존 식당(1개층)과 테니스장 부지로, 기존 식당의 구조를 이용해 계획이 되어야 한다. 기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레벨에 위치한 부지는 남측으로 중학교에 면하고 북측으로는 북한산 자락의 암벽과 면하는 좁고 긴 장방형의 대지가 되며, 주출입은 서측의 좁은 진입도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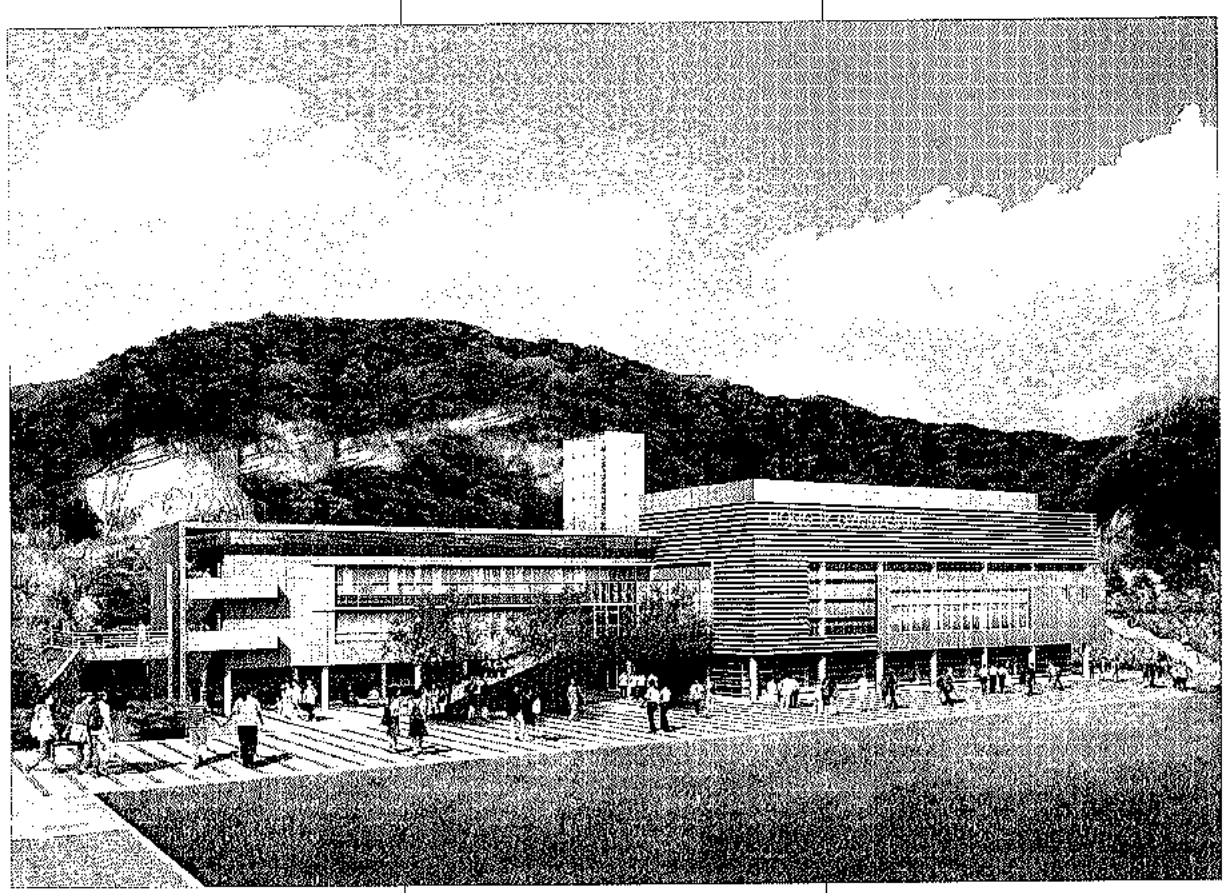
공간구성은 복잡하지 않지만 좁은 대지에 기존 구조물을 이용해 2층에 대공간을 구성하는 것과 협소한 진출입동선의 문제를 기존 테니스장(부지 서측)이 제공했던 오픈스페이스와 같은 광장을 진출입부에 배치하고, 부속시설(헬스장, 특활실) 매스를 피로티로 들어올려 주 진입광장의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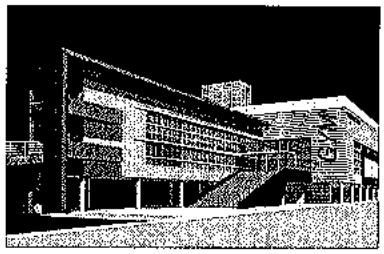
오픈된 휴게광장을 통해 학생들의 행위들이 일어나고, 작은 공연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2층 체육관 진입계단을 스탠드형으로 계획해 관람석으로 사용하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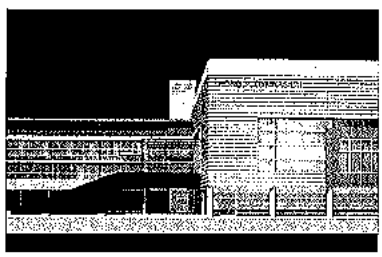
주 용도인 체육관과 헬스장은 2층에 홀을 중심으로 공유하도록 계획하고, 3층은 특활실을 배치해 독립된 학생들의 영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 시청각실의 증축을 고려해 계단식 시청각실을 헬스장/특활실 매스의 하부 피로티 부분에 계획해 증축전에는 스탠드식 야외학습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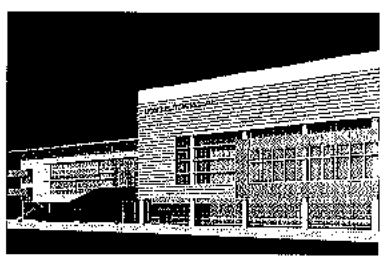
이번 계획안은 중,고등학생들 모두 사용하는 활동적 공간인 만큼, 밝고 다양한 색상과 알루미늄 패널, 금속루버 등의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해 중,고등학교 교사동의 절곡점인 동시에 계획부지 내의 새로운 활동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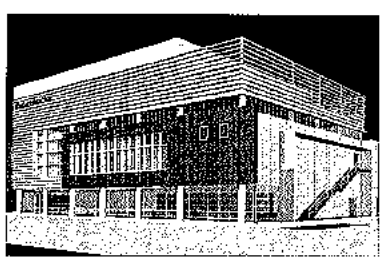
본 계획으로 학생들의 밝은 모습들이 가득차 비둘기들의 번지가 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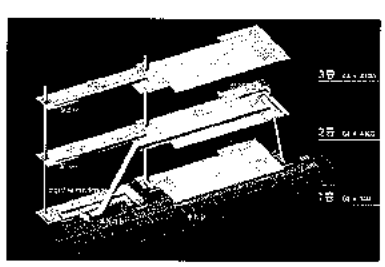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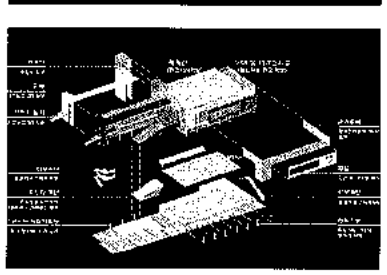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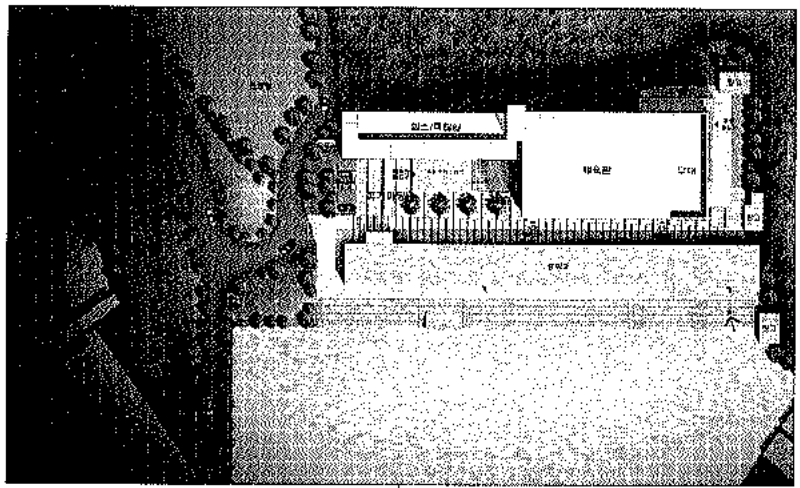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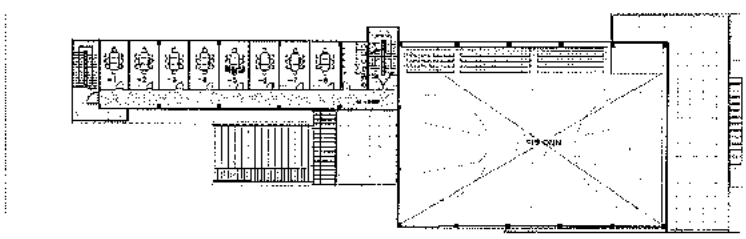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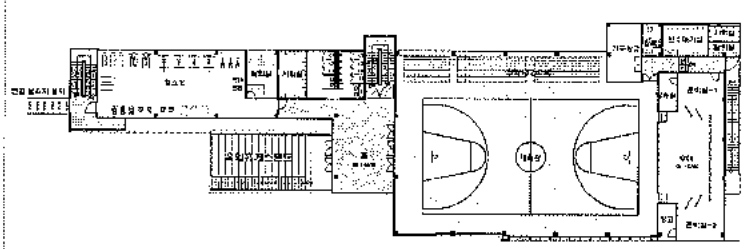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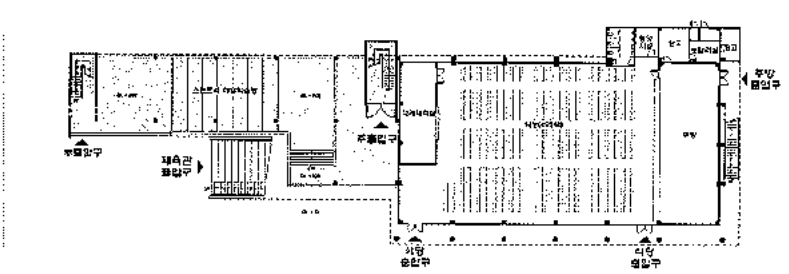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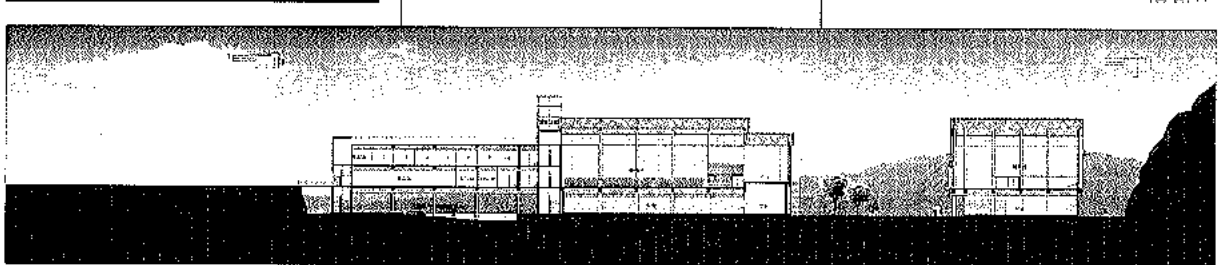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전남대 기숙사 8호관

The Dormitory of Chonnam National Univercity

▶ 당선작 / 남건축사사무소(남상금)

대지위치	전남대학교 기숙사 7호관 전면 좌측부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약 2,200㎡
건축면적	724.56㎡
연면적	7,306.6㎡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규모	지하1층, 지상 11층(가동), 8층(나동)
주차대수	24대(법정24대)

계획의 방침

• 토지이용
- 대학의 현실 고려 토지이용 극대화
- 장래 확장을 고려
- 단지의 특성을 주목 토지의 함축적 잠재력 중시

• 기능성
- 접근이 편리하고 친근한 이미지 구현
-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 거주성의 증대
- 통제와 개방의 양면적 기능에 효율적 대응
- 8호관 및 9호관(예정)과의 연계 고려

• 조형성
- 기숙사의 독자성(IDENTITY)
- 주변환경과의 조화
- 기존 8호관과의 통일성 유지하되 획일적 구성을 탈피
- 장차 9호관을 포함한 기숙사 단지의 이미지 구축
- 경제성을 고려한 과잉 표현의 절제
- 이용자의 정서적 활동에 기여하는 조형적 환경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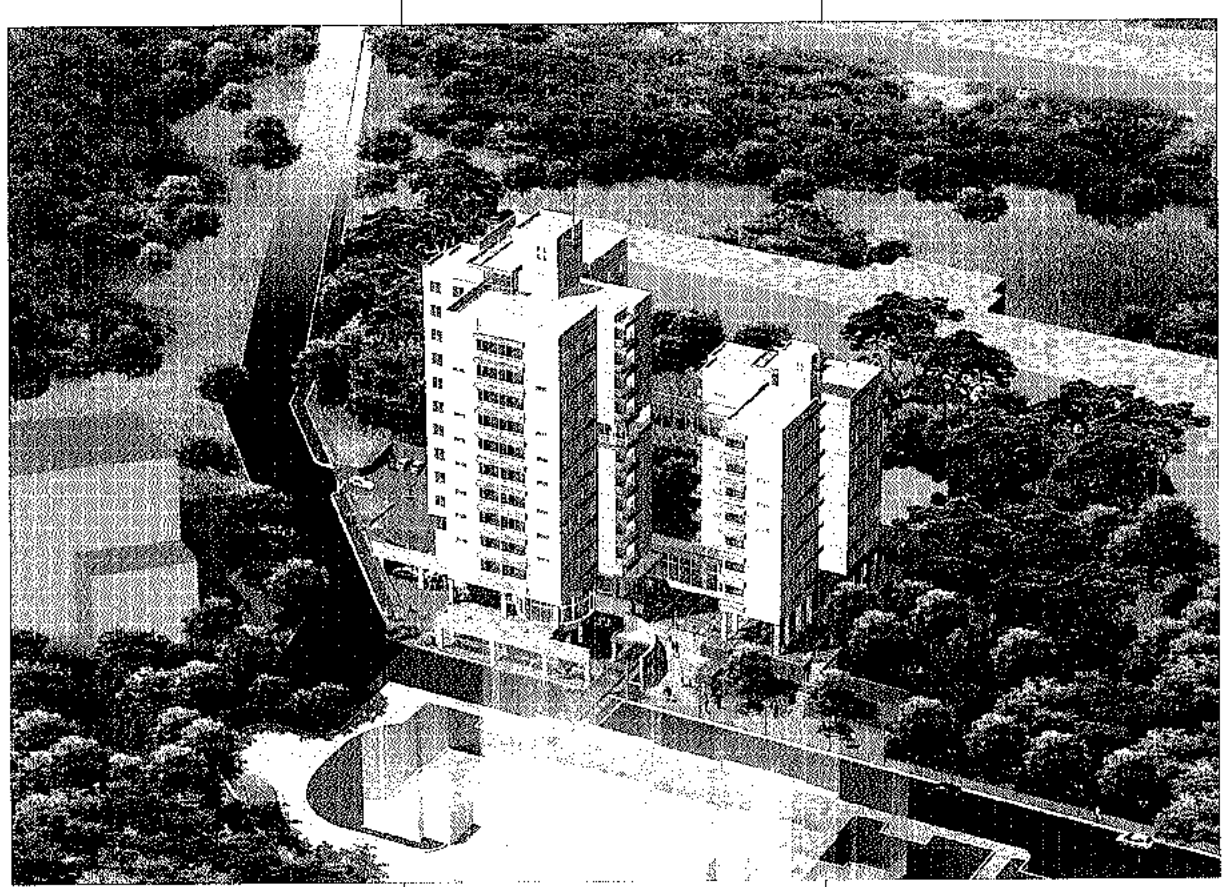
• 안정성
- 장애인의 이용고려
- 다양한 활동성에 대응한 적정 공간의 배치

• 경제성
- 시설유지관리의 편의성 증대
- 관리인력을 줄일 수 있는 현대적 시스템 도입
- 과도한 시설투자의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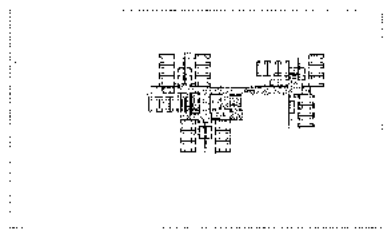
배치계획

• 접근성과 건물축
- 주진입부의 강조(진입마당)
- 보행자 접근의 보차분리
- 주진입 레벨 및 피로티 통로, 7호관 연결(식당 이용)의 입체적 접근(대지레벨 극복)
- 진입축과 7호관 축에 따른 배치의 축
- 건물축의 연장선에 9호관 예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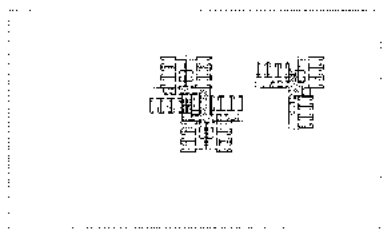
• 일조와 조망
- 서향을 최대한 배제한 양호한 조망 확보
- 정북방향 일조권 고려 인접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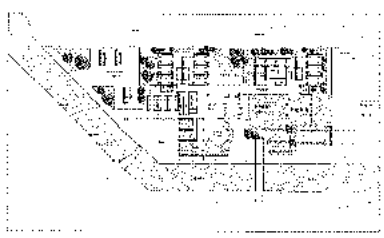
경계선 이격거리 확보
- 7호관 프라이버시, 조망권을 위한
블럭단위 배치와 적정 이격거리 확보
- 오픈스페이스 도입, 트임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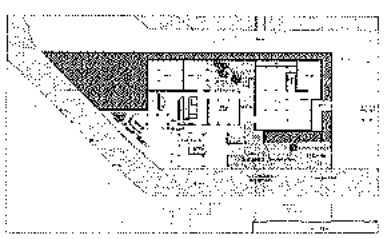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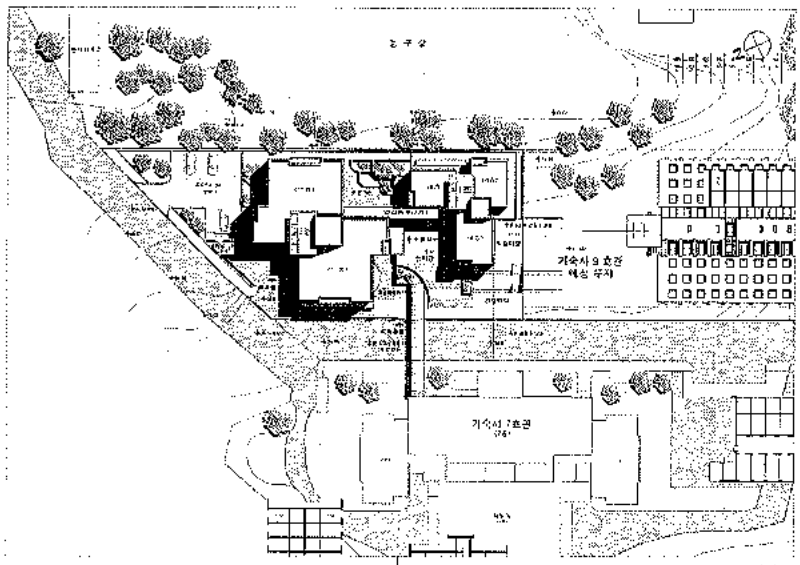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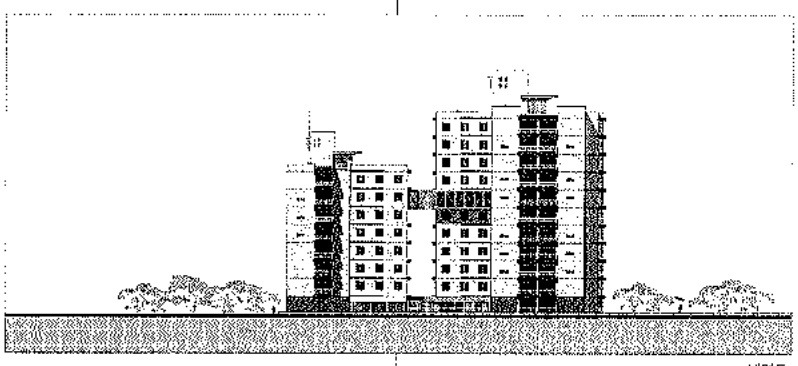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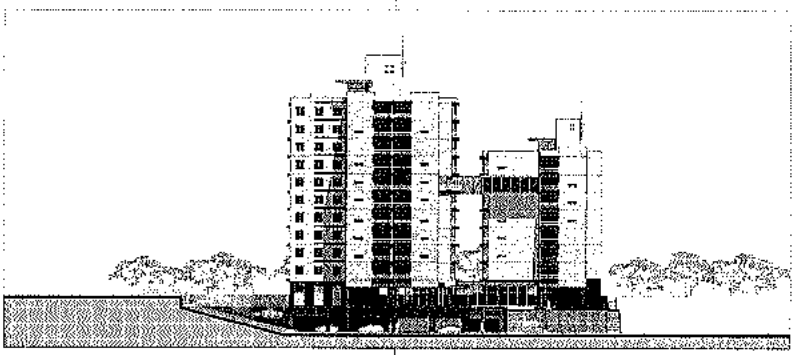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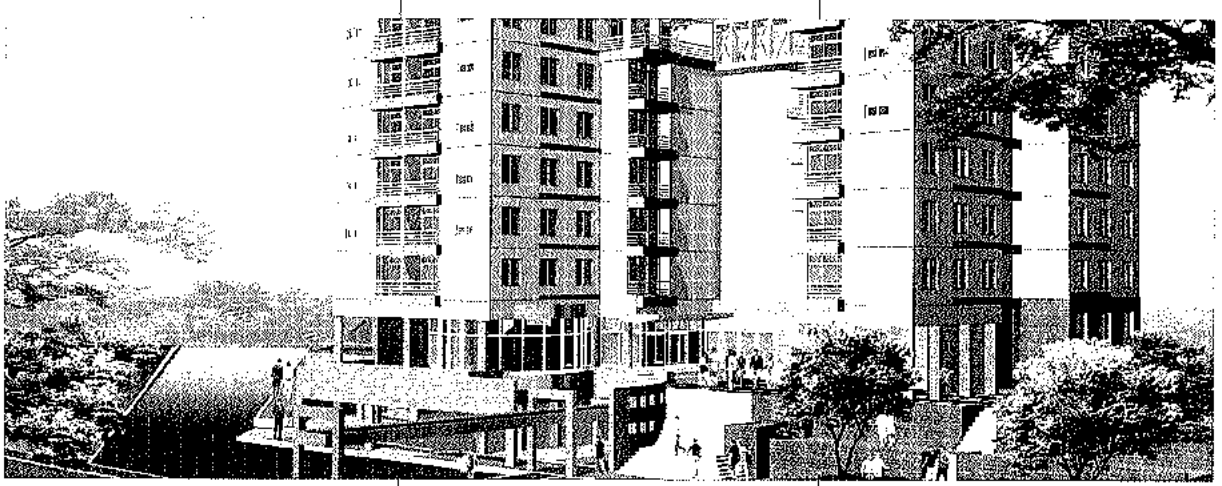
배치도



배면도



정면도



▶ 우수작 / (주)금성 종합건축사 사무소(한종언)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기숙사 7호관 전면부지
건축면적	768.98㎡
연면적	7,346.9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구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13층
주차대수	25대(장애인용 1대 포함)
외부마감	외벽-치장벽돌, 치장콘크리트, 알루미늄복합패널 창호-T18 복층유리

평면계획

• 계획의 주안점

- 전남대학교의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조형 이미지로 상징성 부여
- 기숙사로 인지될 수 있는 Total Design으로서의 주변환경 계획
- 가정과 같은 생활의 보금자리로 편안하고 쾌적한 기숙사 실현
- 기존 수림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자연속의 기숙사 구현
- 데크하부에 지원시설을 집중화하여 사용자의 편의 고려
- 외부와 내부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매개공간 계획
- 이벤트 유인 및 진입 SEQUENCE로서 계단과 삼부데크의 건축장치화
- 레벨차를 이용한 데크층 구성(선큰을 이용하여 지하공간을 활성화하고 지상층과의 연계성을 높임)

• 조닝 및 동선

- 각 실의 주향이 남, 동향을 향하도록 계획
- 향, 일조, 환기, 조망을 고려한 단위공간 배치(전세대 편복도형 조합으로, 모든 단위공간이 외기와 접하도록 계획)
- 주거동 고층부에 하늘정원을 설치하여 변화있는 입면과 상층부의 접지성 높임(휴게 및 학생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
- 기존 기숙사 7호관 및 추후 증축될 9호관과의 조화를 통한 통합 기숙사단지 구성
- 코어, 부대시설 상호간 연계이용의 편리성 증대

외부공간계획

-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공간개념
- 버퍼존을 통한 소음 차단 효과
- 개방과 접근성을 고려한 외부공간의 위계 형성
-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 캠퍼스 계획에 순응한 유기적인 배치로 친근감 및 신뢰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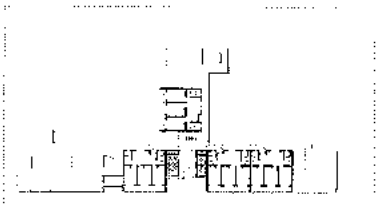
입면개념

- 주변환경과의 CONTEXT를 고려한 시각적, 경관적 조화구성
- 최상층의 매스분절과 각 공간의 기능에 맞게 수평요소를 분절하여 건물 전체의 안정감 부여
- 하이테크한 이미지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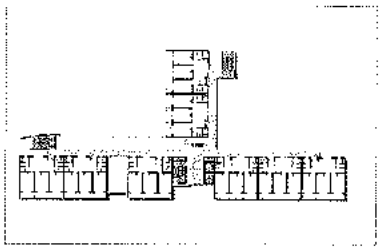
- 적절한 공간분할 및 변화와 볼륨을 다양하게 계획하여 조형성 강조
- 상징적인 입면구성으로 인지도와 장소성 부각

단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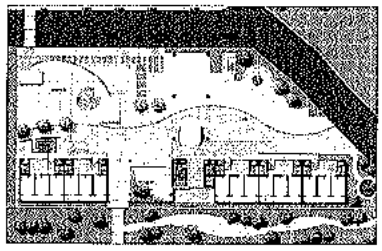
- 합리적인 모듈과 공간계획으로 적합한 단면계획
- 공간의 입체적 분리와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자연스로운 공간의 흐름 유도
- 지형을 이용한 데크 및 필로티의 구성
- 경사진입을 통한 시선의 변화를 통해 시, 지각적 체험 유도
- 공간을 기능별로 집중화시켜 경제적인 층고계획
- 채광 및 환기를 확보하고 보이드된 하늘마당을 통해 옥외 휴게공간 및 OPEN VIEW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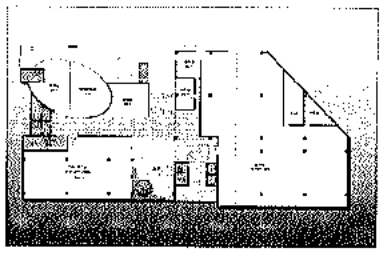
11~1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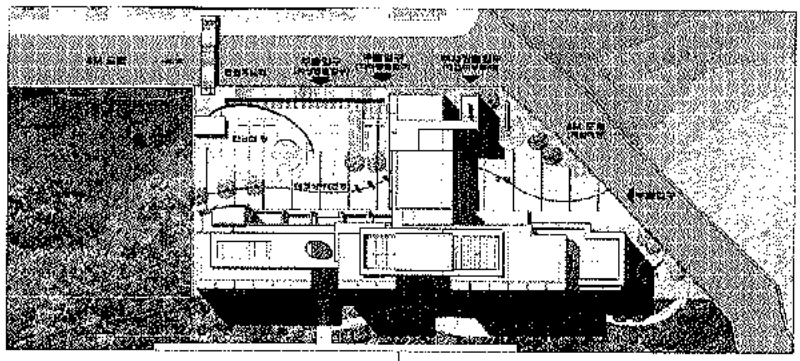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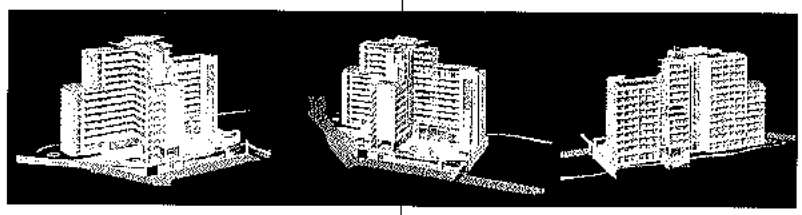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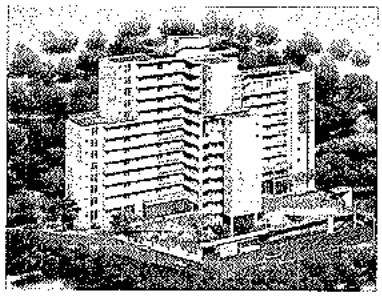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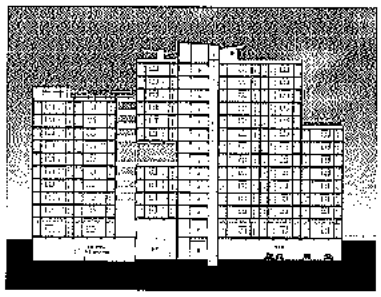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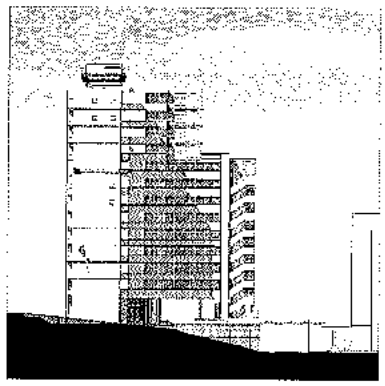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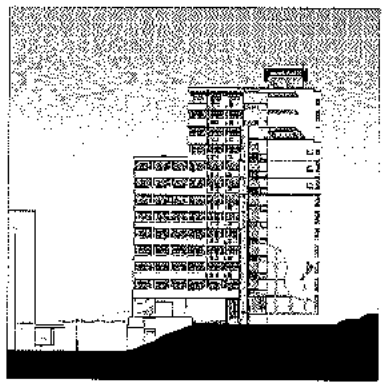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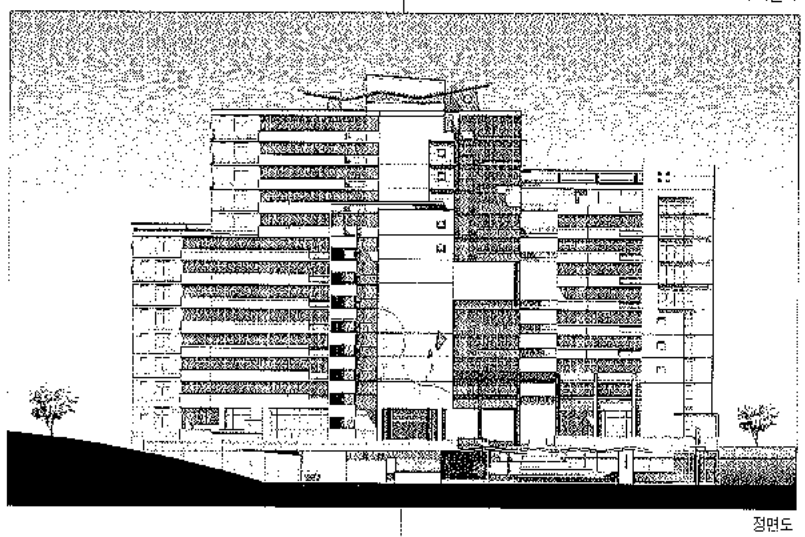
횡단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달성군청사

Dalseong-gun Office

▶ 당선작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이상림 · 강희성)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남양(함종관) + 현대건설(주) + 화성산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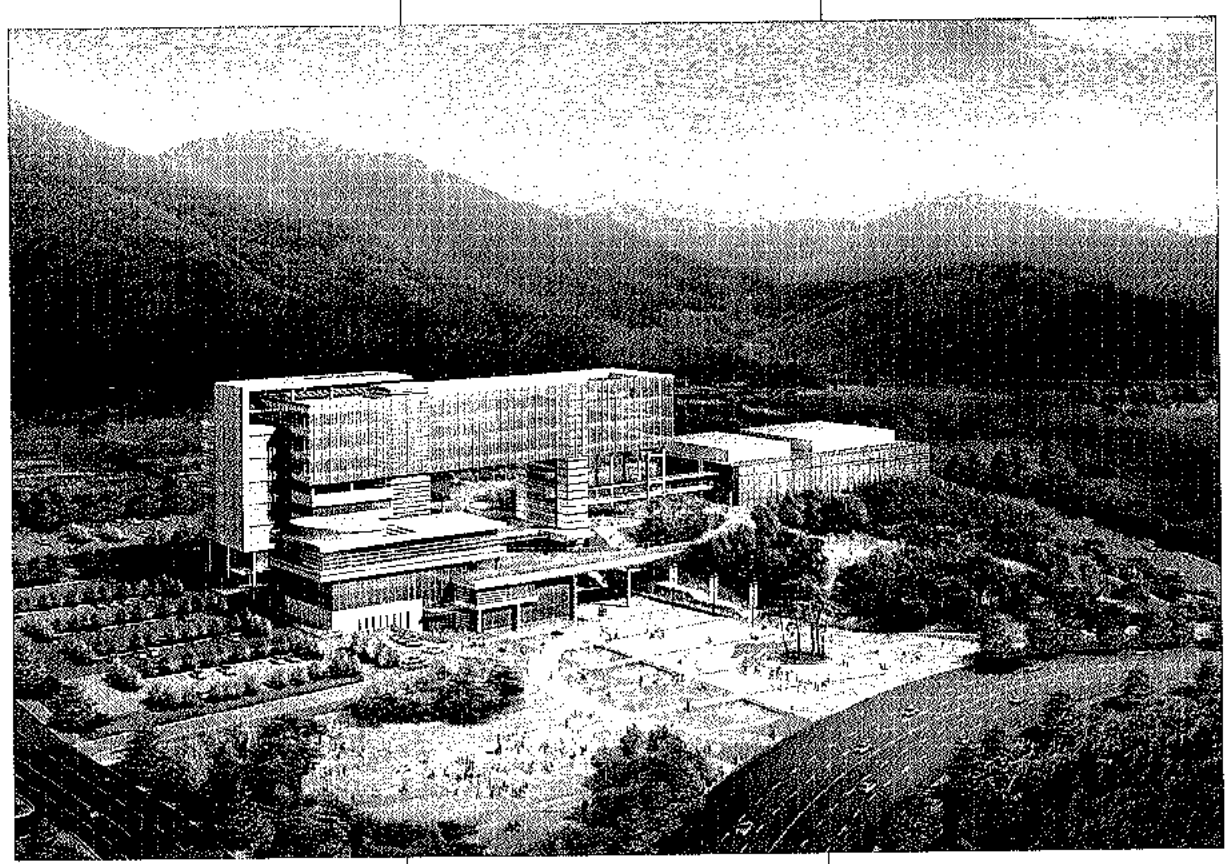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13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50,000㎡
건축면적	6,258.7㎡
연면적	23,214.5㎡
조경면적	18,580.8㎡
건폐율	12.5%
용적률	39.9%
규모	행정청사 : 지상 9층, 지하 1층 의회청사 : 지상 4층 문화복지시설 : 지상 4층
외부마감	Thk30 화강석 / Thk24복층유리 / Thk60 압출성형시멘트판
설계팀	박남규, 배연수, 최영희, 이평주, 양민규, 윤태준, 조성준, 이종희, 김미수

대구시 달성군에서는 21세기 첨단 산업도시로 발전하는 달성군의 기상을 표현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 및 문화, 복지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지방화 시대의 군민에 대한 봉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달성군청사 신축공사'의 턴키 현상설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선안은 달성군의 선형적 도시 구조에 따른 선형의 군청사를 강조하였으며, 전체 배치에서도 5번국도에서 바라본 선형성이 강한 달성군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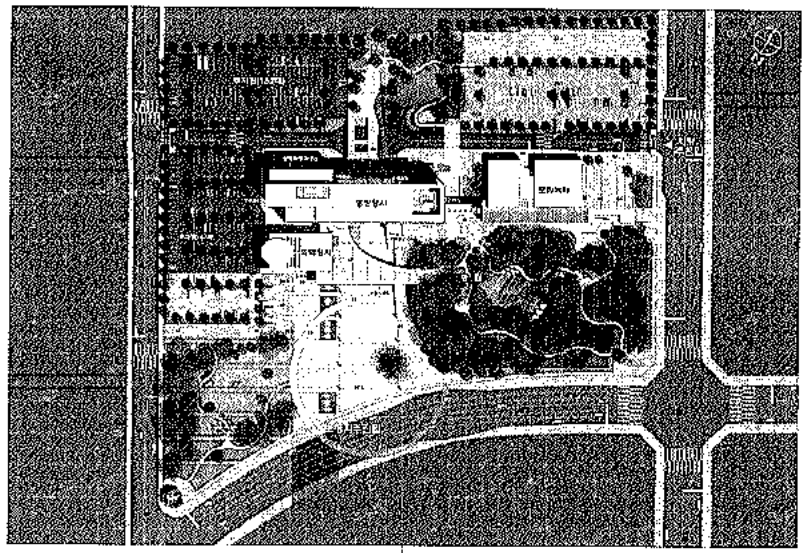
전체 배치에서 진입부에 넓은 전면광장을 배치함으로써 군민에게 개방된 청사의 모습을 구현하였으며, 민원홀은 진입레벨에서 보행자를 보다 편하게 유도 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되었다. 경사 대지를 활용하여, 의회청사와 행정청사는 각각의 레벨에서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차출입구에 인접하여 위치한 문화 복지동은 군민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를 선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건축계획은 空(자연 유입, 중심공간의 입체화), 瞬(환경이 투영, 투명적 이미지 창출), 面(행정 · 민원 · 문화 · 복지 · 자연의 복합, 합리적 기능연계), 線(빛과 경관의 유입, 선형도시와 지형에 순응)이라는 네 가지의 디자인 요소가 바탕이 되었다. 업무 공간은 국 단위의 가변성 공간으로, 중심에 홀을 구성하여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정제된 조형과 자연을 융합시켰고, 인공지반을 활용하여 좁은 대지 안에서 공간을 입체화시켰다. 적극적으로 보이드 공간을 도입하여 남향 광장을 연결시켰고, 대지 내의 송림을 보존시켜 그 곳에 야외공연장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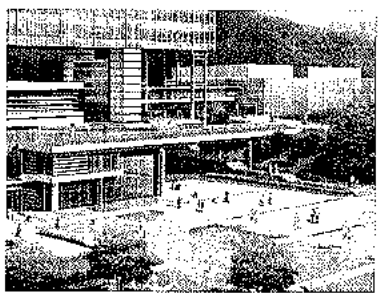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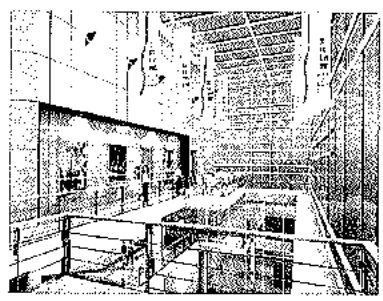
공공업무시설 외에 주민복지시설과 도서관, 공연시설, 카페테리아 등을 계획하여 군민에게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외부공간에 문화복지마당과 하늘마당, 달맞이 언덕 등을 계획하여 자연의 유기적인 연결 동선을 확보하고 시간별, 계절별로 다양한 외부공간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적인 경관자원 활용을 극대화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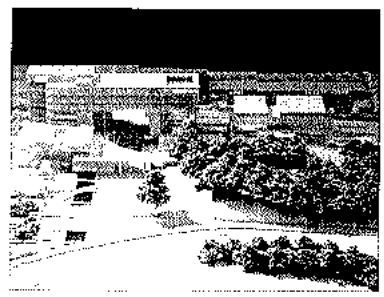
달성군청사 신축공사 계획안은 지역적 배경을 고려한 중규모 청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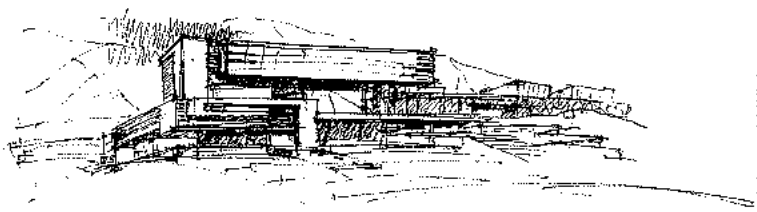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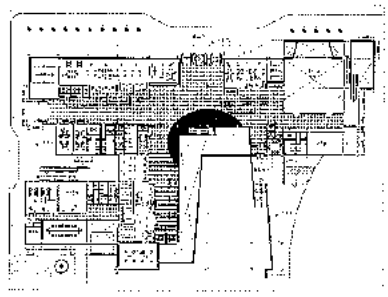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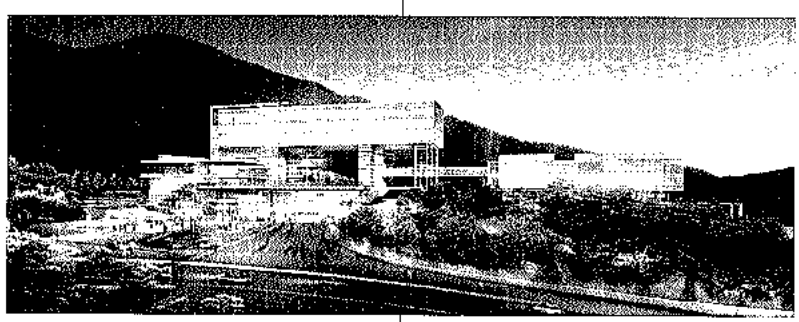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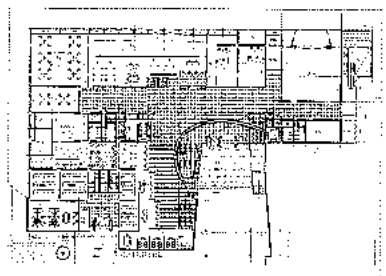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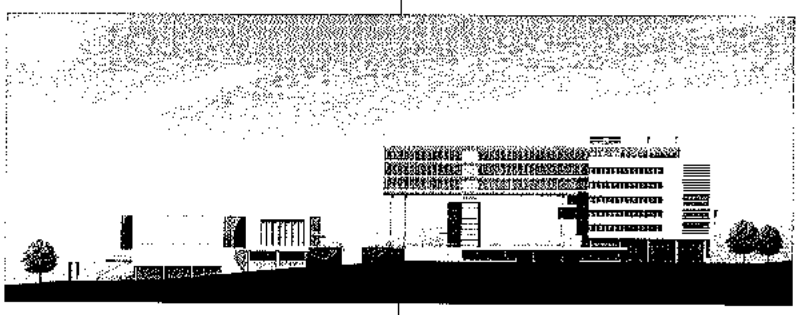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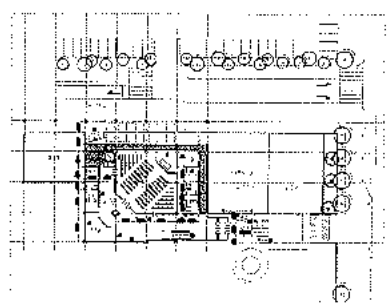
황전청사 2층 평면도





행정청사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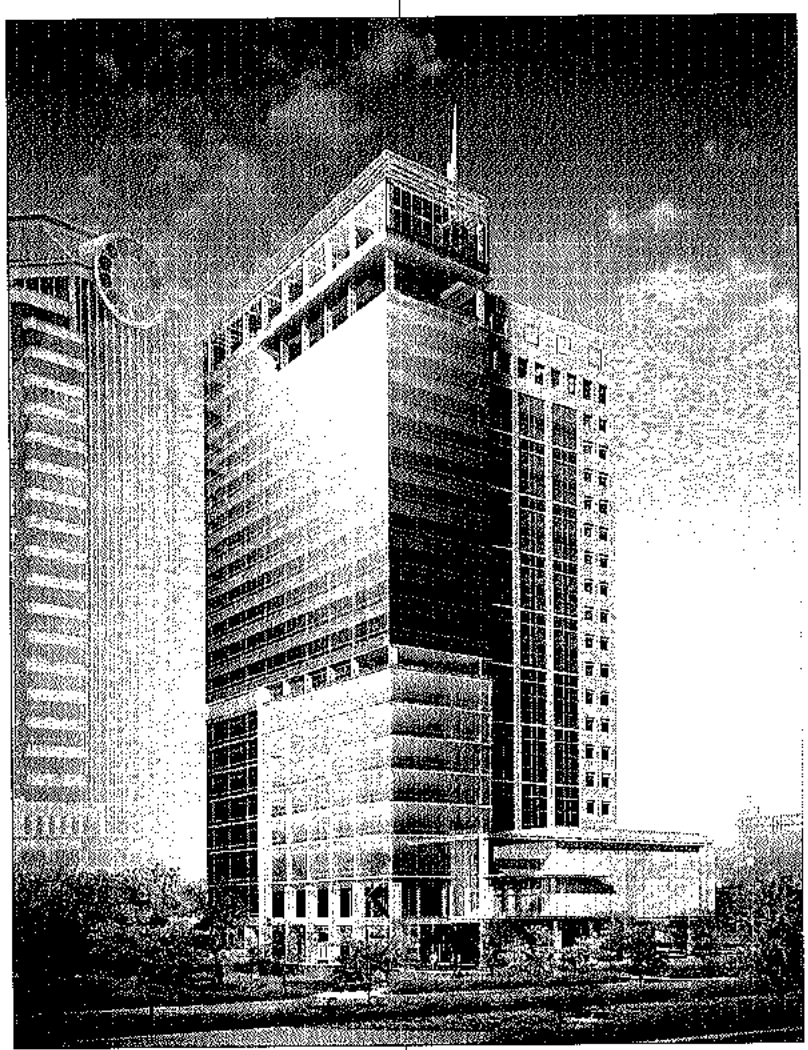
문화복지 1층 평면도

금융감독원청사 증축 및 개보수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당선작 / 삼성물산(주) + 대림산업(주)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 · 장영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김종문)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대지면적	6,612.00㎡
건축면적	3,024.23㎡
연면적	65,817.20㎡
건폐율	45.74%
용적률	699.87%
규모	지하 4층, 지상 20층
설계팀	총괄 - 임동건(희림건축) 희림건축 - 김은식, 윤영구, 정진환, 백봉주, 장나일, 윤종호, 조성익 근정건축 - 최영식, 조진현, 고영탁, 김태한, 이우용, 김잔석, 이영희



이 계획은 기존 증권감독원이 보험감독원, 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통합되면서 금융감독원으로 재편성됨에 따른 사무공간부족 해결 및 사무자동화를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재실자 근무중에 증축 및 개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FAST TRACK 공사였기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기존개보수 부분을 최소화하고, 공간의 비효율적 이용, 도시맥락과의 부조화 등을 해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본개념은 '시간 · 공간의 가치창출' '감독과 서비스의 균형'을 뜻하는 'VALUE CREATIVE 2002'로 정하여 계획하였으며 감독과 서비스의 균형, 금융감독원의 투명성, 건전성, 업무환경개선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극대화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진행되었다.

1층은 민원공간이 양분화 되어 동선 충돌이 있었으나 여의도 역에서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에 민원실을 배치하여 직원동선과의 혼선을 방지시켰으며, 2층은 강당 및 전시, 홍보실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배치, 공연 및 예식 등 다목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민 개방시 별도의 보안확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준층은 기존 공용공간을 통합하여 사무실 사용면적을 극대화하였으며, 20층은 직원복지시설을 집중시키고 자연과 연계할 수 있게 대규모 정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기존 옥상정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CORE의 위치에 따른 사무환경은 주변건물의 CORE형성에 따른 실구성을 통해 독립된 사무환경을 확보하였고, 사무환경 대안분석을 통해 증축부 사무zone의 최대외피 면적확보로 사무실 채광면적율 극대화했다. 쾌적한 사무환경계획은 기존부 청사에 OA FLOOR를 설치하여,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전환하고 천정의 라인디퓨저를 교체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였다. 강당계획은 의사당로와 여의대로의 직각연결점에 배치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강당 외부면은 기업 홍보 이미지 WALL로 계획하였다.

배치개념은 여의도역 방향에서 민원인 출입을 적극 수용, 여의도 공원과 증권단지 몰에서의 인지성 강조, 여의도 공원으로의 사무환경 확보, 기존 및 증축청사의 사무공간 최대개방, 여의도공원-증권단지몰-금융감독원-광장APT로 이어지는 그린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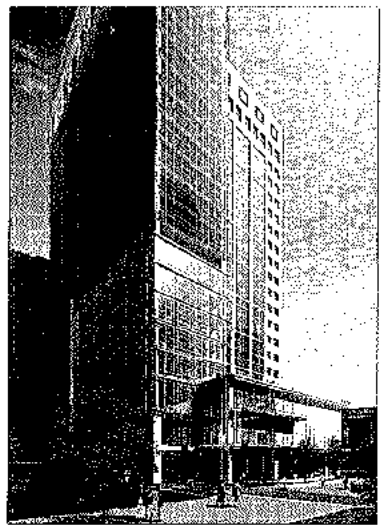
차량진출입계획은 주차타워 별동 설치로 교통영향 평가 후 SYSTEM 결정에 가변성확보, VIP 차량회차동선, 대기주차공간, 대지내 차량 CIRCULATION이 이루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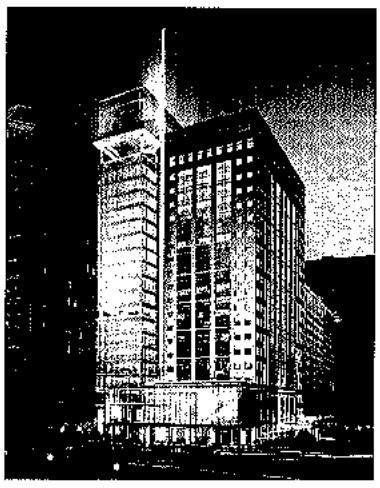
도록 하였으며 보행자동선계획은 직원, 민원 방문객 동선으로 따로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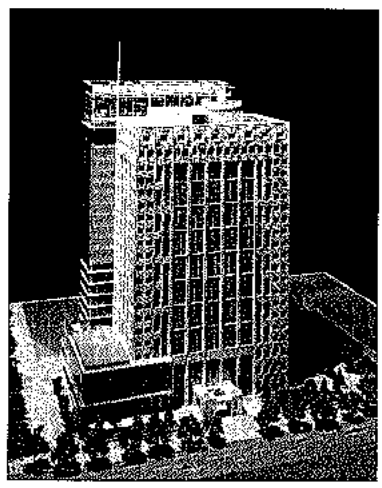
입면계획은 증축부를 유리로 계획하여 여의도 공원과 증권단지물의 쾌적한 외부환경을 받아들이는 공간형성과 어긋난 매스와 투명한 입면으로 최대한의 시야를 확보하고, 열린 행정을 표현했으며, 도시 공간의 연속성 및 사이공간에 여유를 확보하여 가로환경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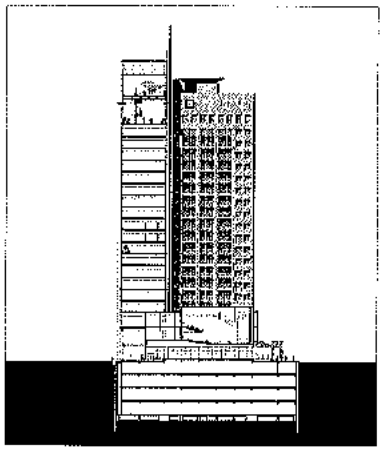
친환경계획으로는 '투명하게 열린 친환경 청사'를 목표로 강당지붕과 옥상부에는 하늘 정원과 새를 부르는 정원을 조성, 도시 소생물 이동의 STEPPING STONE 역할을 담당하여 도시내 GREEN NETWORK을 완성시키는 친환경적 청사로 거듭나게 하였다. 또한 도시내 자연을 수직파크의 개념을 통해 청사건물 내부까지 연계하여 랜드스케이프의 연속성을 이루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준공 후 10년도 채 되지 않은 유지관리가 양호한 건물이다. 그럼에도 증축 및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조직의 통합에 따른 시설 확장 및 서비스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다. 따라서 본 계획은 사무환경 및 동선의 효율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부 개보수 부분을 최소화하고 도시맥락과의 조화, 개방된 강당 및 민원실 배치를 통해 '감독과 서비스 기능의 균형'을 이루는 금융감독원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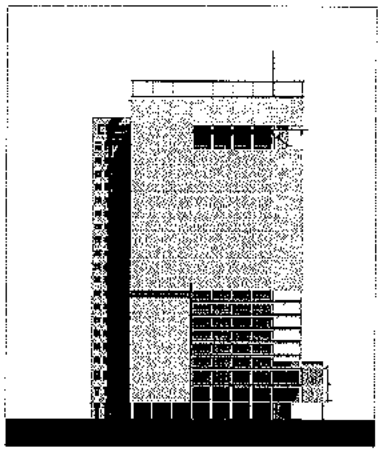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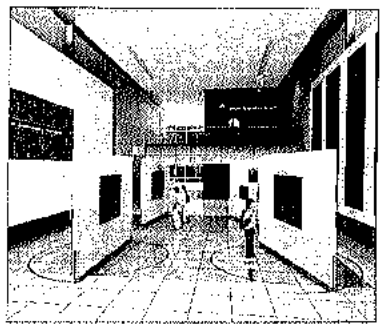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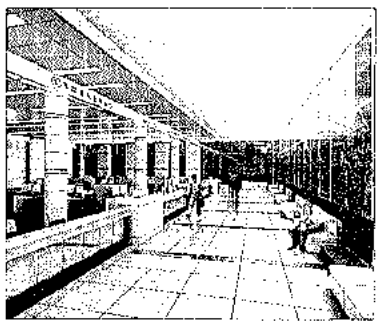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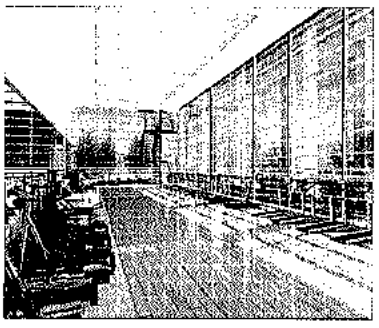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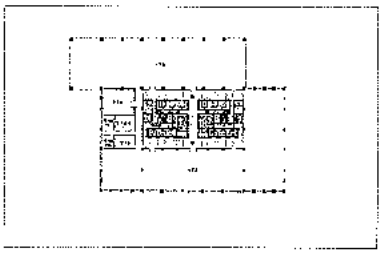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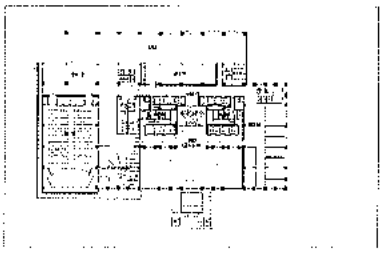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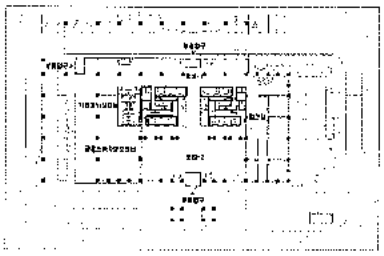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Western Branch of Taegu District Court

▶ **당선작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김병년 · 현태헌)**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9,445.50㎡
건축면적	3,828.23㎡
연면적	20,872.95㎡
건폐율	19.69%
용적률	93.16%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9층
주차대수	법정 - 128대(장애자 주차 3대) 계획 - 173대(장애자 주차 5대)
외부마감	THK30 화강석, THK18 컬러 복층유리

설계팀 전영성, 안성일, 최의석, 김동수, 김종우, 곽동진, 감성일, 신기수, 김대영, 서보성, 배형식, 고범진, 황정기, 배준호, 전대열, 안은숙
C.G : 김창현, 이의정, 이수연

"사법부를 상징할 수 있도록 법의 존엄성과 재판의 권위를 표현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법부를 신뢰하고 친근감을 갖고 쉽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
현상설계 지침서 첫 머리의 공모의 목적을 표현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형식적인 멘트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적인 해결, 조형의 아름다움, 추상적인 컨셉의 추구에 밀려 간과되기 쉬운 디자인의 과제이자 방향이다.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개념에 형태적인 어휘와 프로그램, 기능을 맞추어가는 디자인 Process가 어떻게 보면 법원이라는 건물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지 모른다.
그 만큼 기능적인 요구사항, 각각의 실들 사이의 연계관계, 주어진 위치, 동서의 명확한 분리등... 한마디로 기능이 우선시 되는 건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원의 이미지, 친근감을 주고 싶고 편안히 접근할 수 있으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의 존엄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 계획의 목표이자 첫머리 현상공모의 목적을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주어진 대지는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으로 구 도심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 · 남 · 북 3면의 45개 도로와 서측 검찰청 예정부지, 동측면의 대구학생문화센터를 제외하고 앞뒤가 아파트단지로 막힌 상황에서 주어진 대지가 가지는 장소성이나 역사적인 흔적보다는 전통적인 정서를 가지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배치형태, 중정타입의 ㅁ자형 건물을 원형으로 설정하였다. 새로운 법원의 이미지 형상화를 위한 첫 번째 키워드로 '민원을 우선시하는 동선상의 변화'로 설정하고 민원동선을 동측면 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하여 접근의 용이성 확보 및 동선상의 명확한 분리를 꾀하였으며, 내부중정을 중심으로 이동경로를 두어 각 실별 접근 및 업무처리를 쉽게 하였다.
열린중정을 저층부 민원/법정 MASS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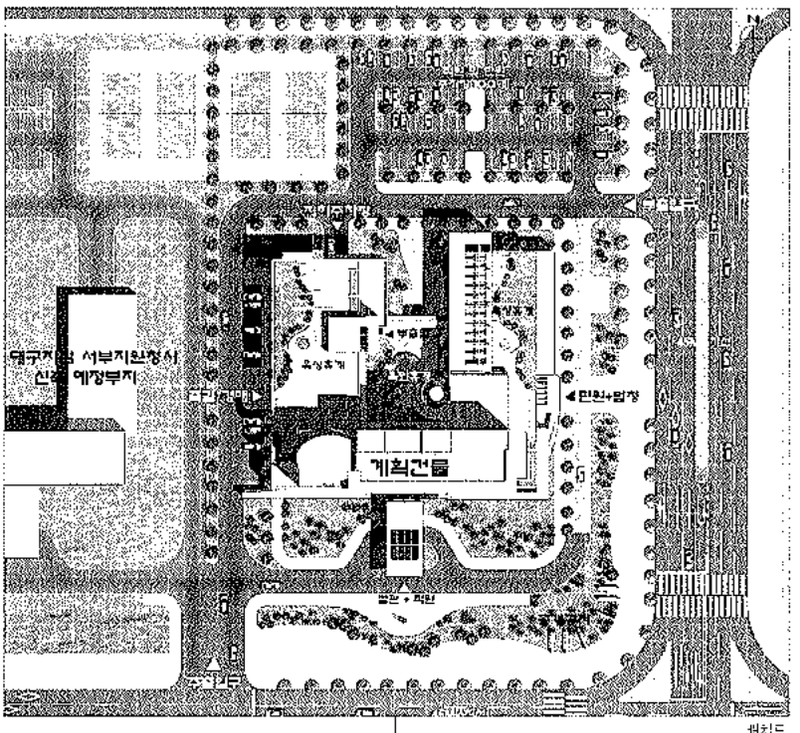
에 끌어들여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심리적인 안정감 및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단면상으로는 중정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층의 변화를 통해 자연광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단면적으로 투명하게 열린 민원홀, 진입로비를 외부→홀→중정 이라는 Sequence를 주어 시각적인 흐름, 연속성, 쾌적감을 연출하였다.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두 번째 디자인 키워드로 투명한 커튼월의 입면상의 변화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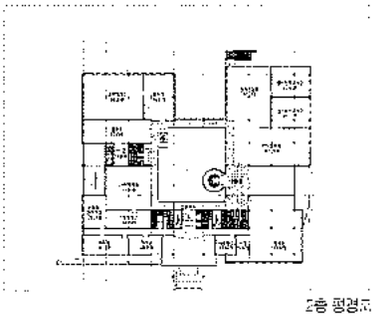
기존의 무겁고 닫힌 이미지의 법원이 아니라 Solid & Void의 다양한 변화와 고층부 법관/사무를 위한 사무동, 저층부의 민원 법정을 위한 입면을 각각 기능에 맞게 설정하고, 수직이동동선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MASS상의 변화와 입면상의 투명성, 열린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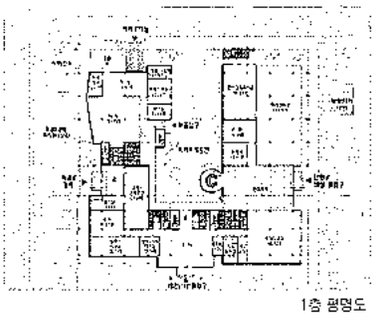
동시에 사법부의 존엄성과 권위, 법의 균형을 나타내기위해 정면에서는 대칭적인 동적 균형상태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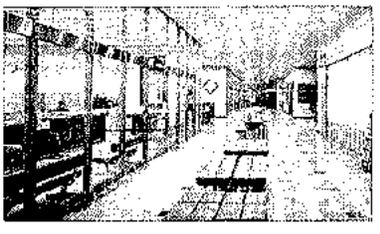
이러한 몇가지 시도들이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라는 큰 목표에 작은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풀지 못한 미흡함이나 문제점들을 실시설계를 해나가며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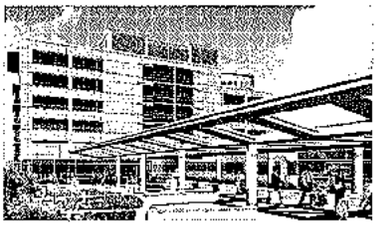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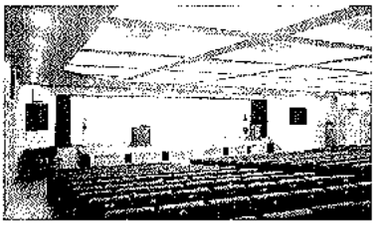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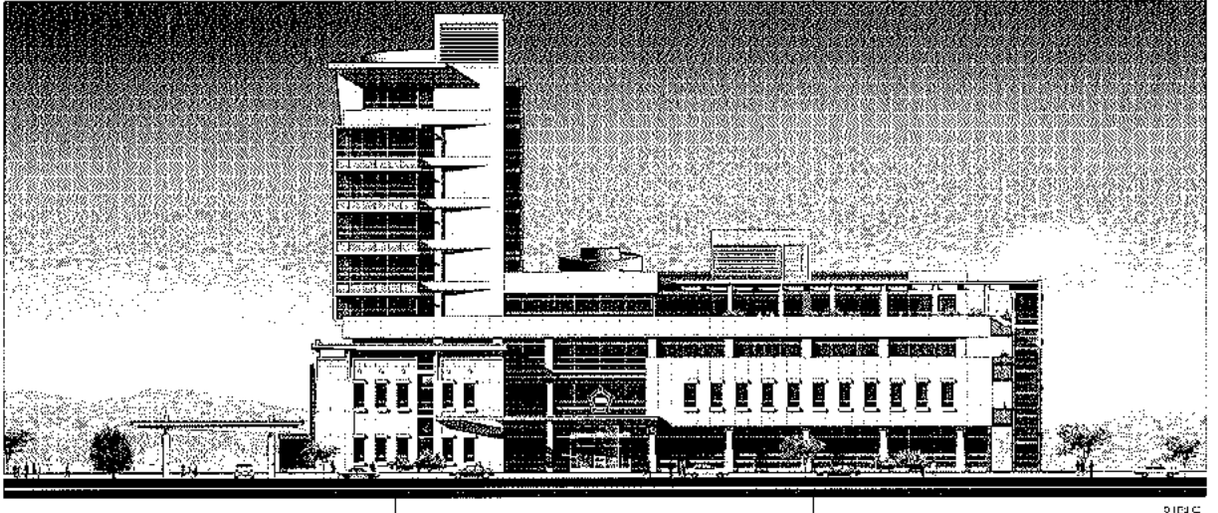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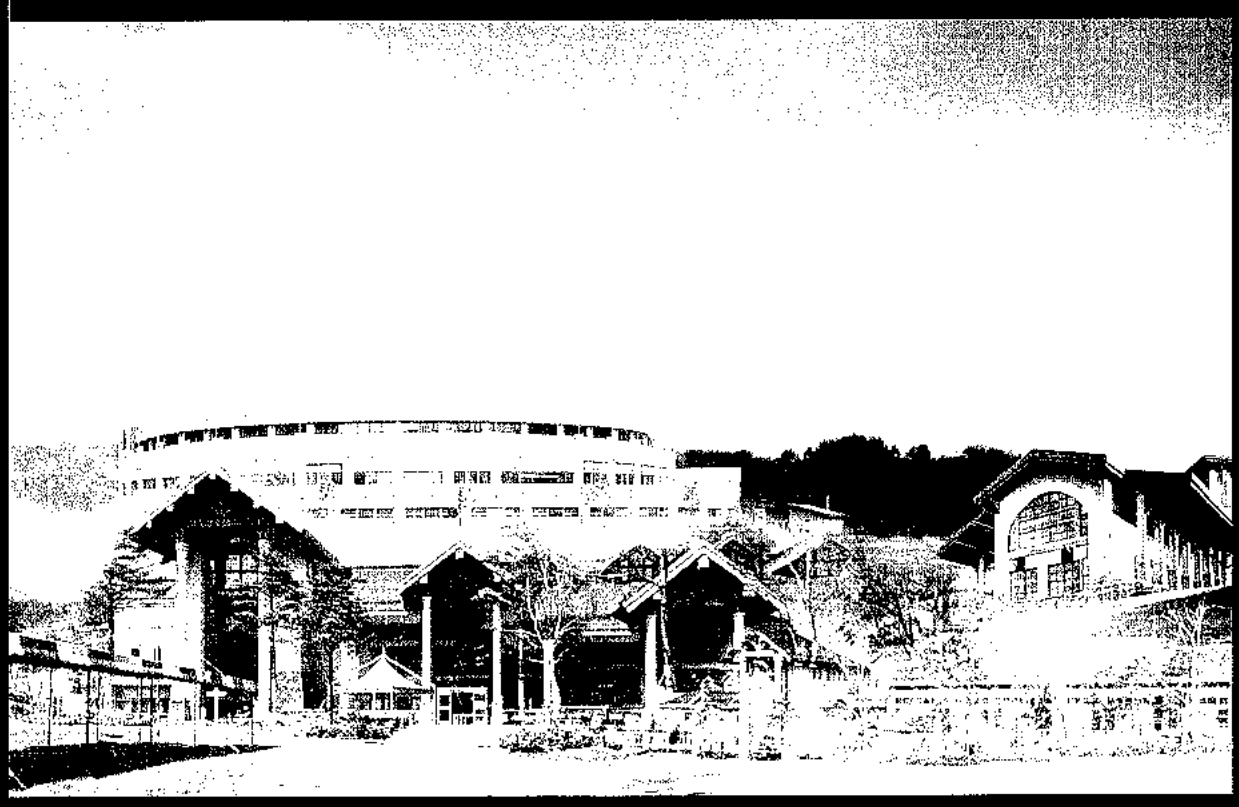

입면도

용평 리조트
Yongpyung Resort

박종기 / (주)이웨스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Jong-Gi

쉼터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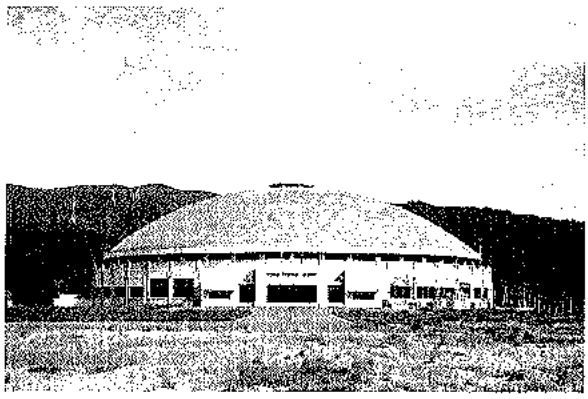
근대적(Modern) 행복관과 달리 탈 근대적(Post Modern) 행복관은 행복이 소유의 양(量)이 아니라 관계 맺음의 질(質)에 달려있다고 본다.
고대 · 중세의 건축이 보는 건축 또는 기념비적인 건축이었다고 한다면, 요즈음의 건축은 공간의 사용에 있다고 본다.
도심의 건축이 바쁜 일상속에서 벌어지는 기능적인 건축이라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쉼터의 건축은 철저히 자연과 동화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들은 "역마"에 대한 꿈을 어느 정도 안고 산다고 한다. 먼지와 소음에 뒤덮인 일상을 훌훌 떨치고 아무런 구애 받음 없이 자연을 떠돌고 싶은 것이다.
인간이 역마를 꿈꾸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향수를 인간 모두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의 쉼터를 건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사계절 휴양지(ALL SEASON RESORT)로 각광받는 용평리조트는 본래 국내 스키리조트의 역사를 이끌어온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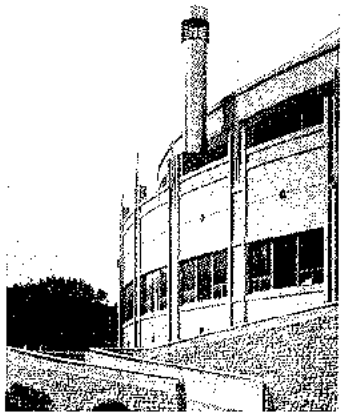
대표적이다. 1973년 문을 연 이래 용평리조트는 국제적인 규모의 권위 있는 시설들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1999년 동계 아시안게임이었다.

실내 빙상경기장

용평리조트는 타 리조트 단지들에 비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 계획성 있게 개발되어온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회를 위한 시설물들의 설계는 이미 "Dragon Valley"를 형성하고 있는 호텔, 콘도미니엄, Fitness Center,



빙상경기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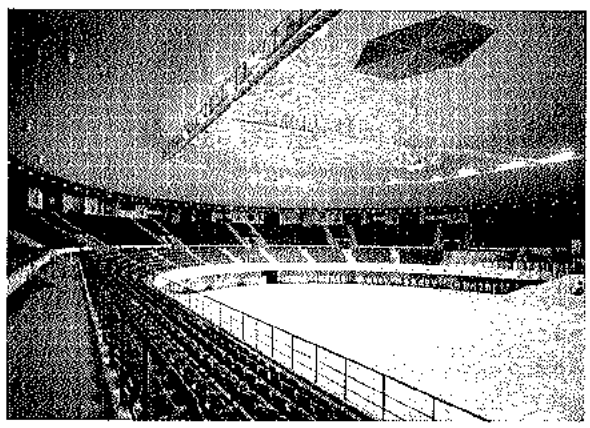


빙상경기장 입면상세

골프장 등과의 관계성은 물론 사후 시설관리와 운영의 문제까지 고려되어야만 했다.
이는 실내 빙상경기장과 스키하우스가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한시적인 쓰임새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회이후 사후관리와 운용의 문제가 설계초기부터 심각하게 고려된 것이 빙상경기장이다. 초기설계의 오픈된 실내 링크가 국제규격에 맞는 규모임에서 컨벤션 센터나 이벤트 홀로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조트 초입에 배치된 경기장은 운용의 측면에서 우리수가 많음이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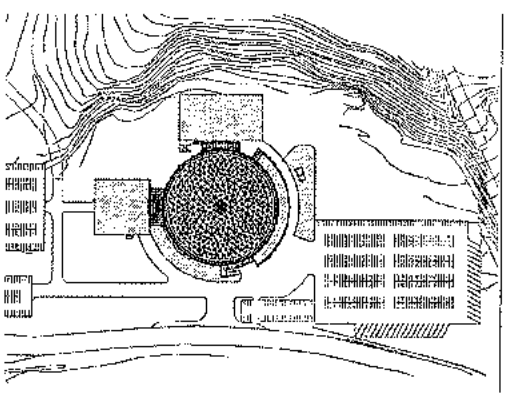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145번지
지역지구 :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건축면적 : 7,953㎡
연 면 적 : 13,200.15㎡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Space Frame(Dome)
외부마감 : 드라이비트, 샌드스톤, 호박돌

그리고 관리와 운용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비도 건물의 경제성 측면에서 필요한 경비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회가 끝나고 난 후 경기장은 이미 인근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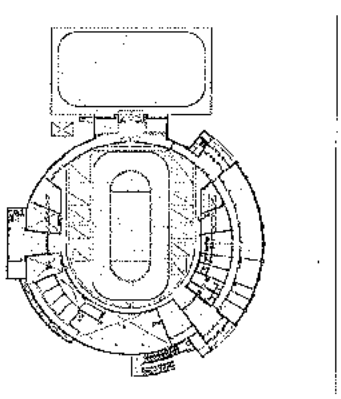


빙상경기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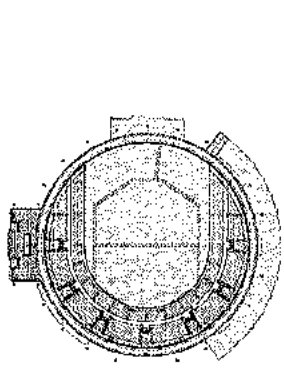
국내,외 선수들의 연습의 장으로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스링크(Ice Rink) 바닥면을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다목적 경기장으로서의 활용에 더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적용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국제대회를 위한 건물로만 국한되어 설계되었다면 건축주에게는 골치 아픈 애물단지로 전락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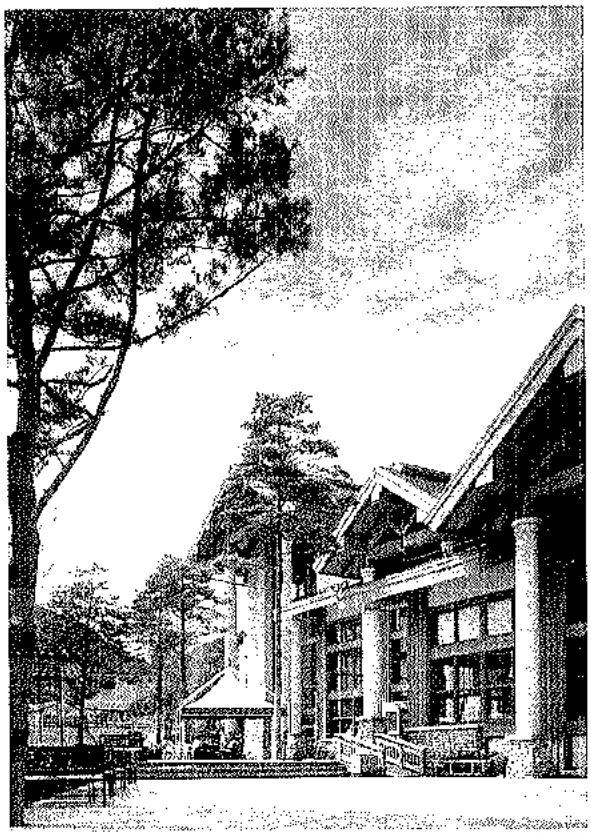
빙상경기장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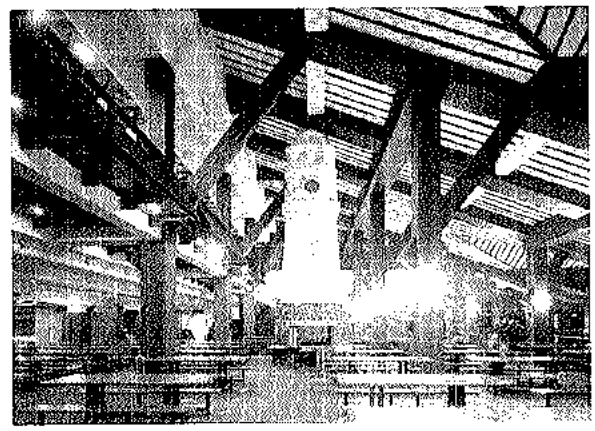
빙상경기장 1층 평면도



빙상경기장 2층 평면도



스키하우스 외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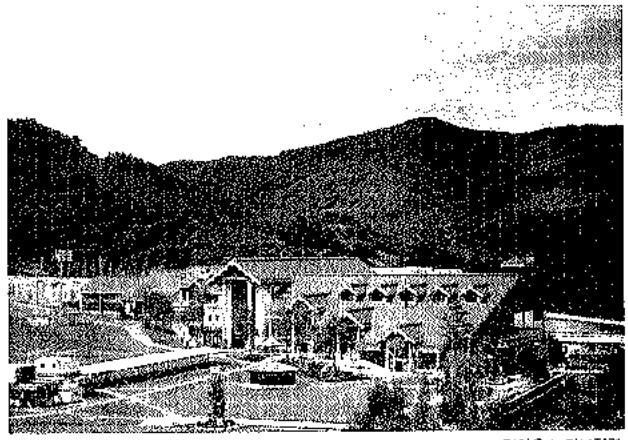


스키하우스 내부

쉼터로서의 공간

곤도라 승차장(스키하우스)

스키어들을 위한 시설로써 동양 최고 규모의 스키하우스는 대규모 내부 공간구획과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제공되는 실



스키하우스 외부전경

구획으로 평면들이 짜여졌다.

외부 디자인은 용평리조트안의 기존 시설물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다듬어 졌으며, 자연과의 어우러짐도 고려되었다.

스키하우스는 곤도라시설을 기점으로 스키하우스가 배치되었고, 동양 최장의 7.4㎞로 발왕산 정상의 곤도라 하차장으로 이어져 스키어들이 최장 슬로프를 만끽하게 하는 중심시설로 짜여져 있다.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산 89번지

지역지구 :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건축면적 : 7,880.75㎡

연 면 적 : 15,553.69㎡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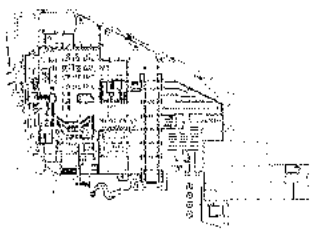
외부마감 : 드라이비트, 목재 사이딩

곤도라 하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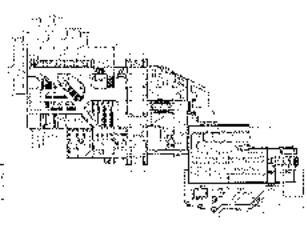
해발 1458m의 발왕산 정상에 위치한 곤도라 하차장은 오대산의 절경과 주목단지를 감상하면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 공간을 연출한 장소이다.

스키하우스에서 지역특유의 식사를 곁들인 휴식을 취했다면 하차장에서는 스키 슬로프를 즐기는 스키어들의 간단한 휴식과 정상에서 느낄 수 있는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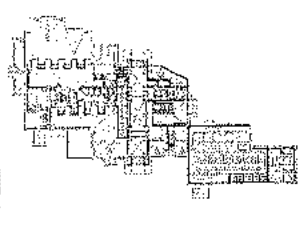
정상에서 펼쳐진 눈밭에서 뒤엉켜 꽁꽁 언 손을 녹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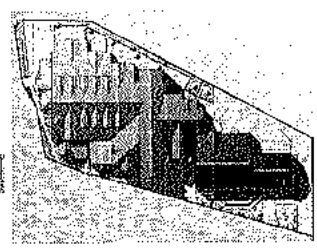
스키하우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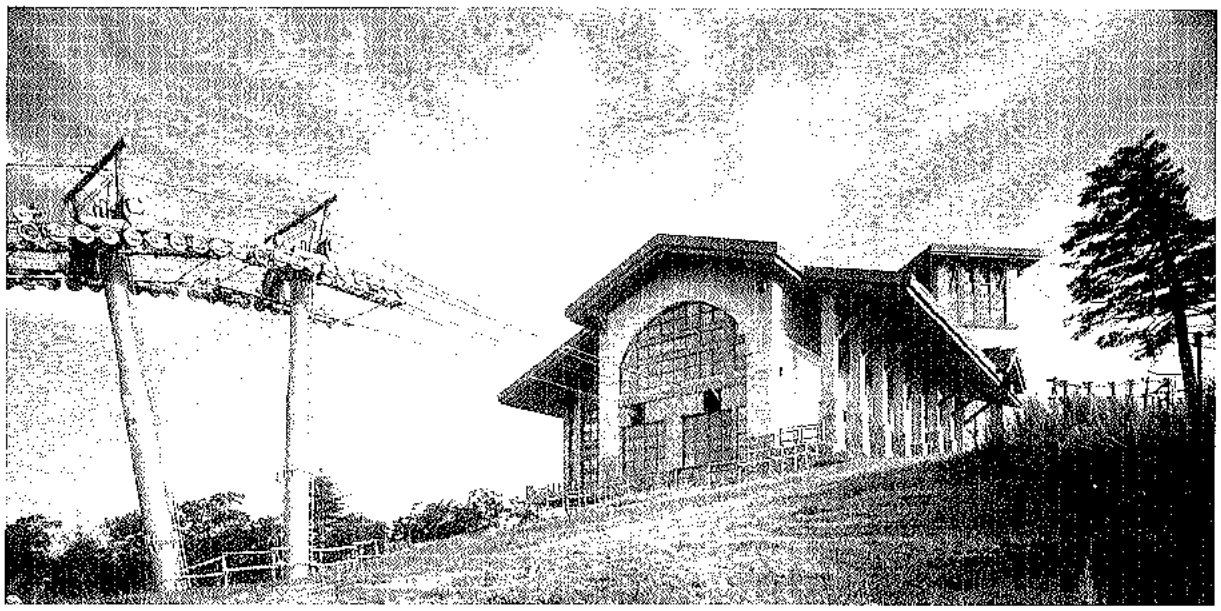
스키하우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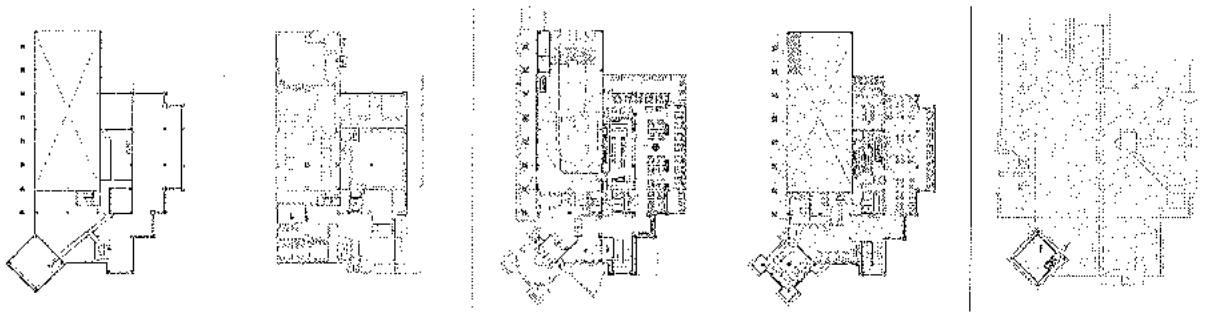
스키하우스 3층 평면도



스키하우스 지붕 평면도



아차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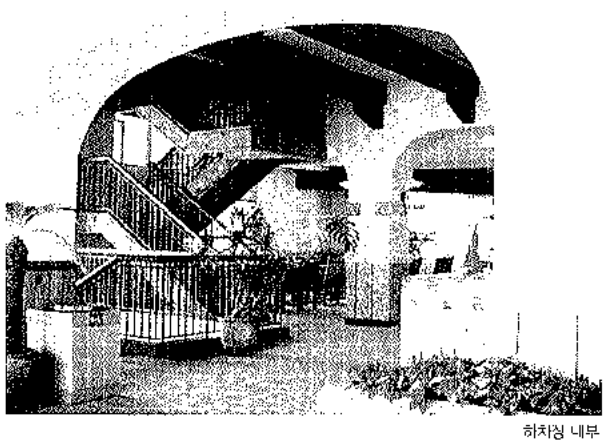
아차장 지하1층 평면도 아차장 1층 평면도 아차장 2층 평면도 아차장 3층 평면도 아차장 지붕 평면도

는 장소.
낭만과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장소의 제공...
이 모든 설계를 하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서를 모든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건물로 꾸며 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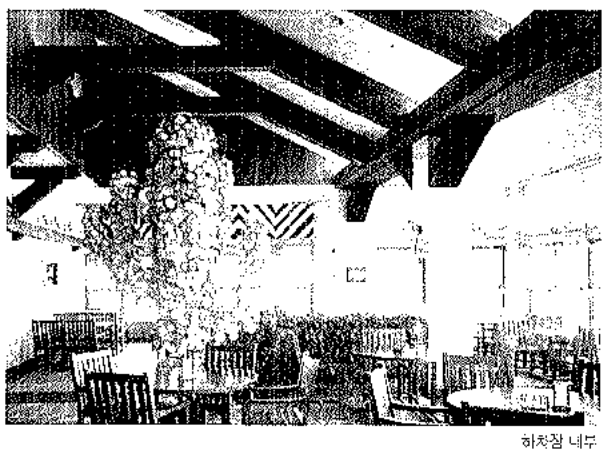
쉼터를 내려오면서

아니, 그런 꿈을 그리며

이 건물에 대한 감정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몰두 했었나 보다.
다시금 가 볼 때면 그때의 고뇌와 상념들이 한층 더 느껴진다.
정상쉼터의 전망대에 올라 리조트 단지를 내려다보면서...
지금은 그때의 고뇌자가 아닌... 한사람의 쉼터지기로 이 공간들을 느낀다. 또 다른 공간에서의 이같은 고뇌를 맡아야 할 모습으로 말이다.



아차장 내부



아차장 내부

벌써 추석인데

It has come Thanksgiving Season

박영건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by Park Young-Kern

여름 내 쏟아 붓던 장대비를 맞으며 어수선하게 지내는 동안 올 한가위는 유난히도 빨리 찾아왔다.

여느 때 같으면 땀 흘려 곡식을 거두고 갈무리해서 겨울채비를 마친 농군들과 더불어 즐겁게 맞이하는 일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그러나 지난여름 장마와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이웃이 많아서 마음이 그리 편하지 못하다. 더욱이 우리 건축계의 형편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잠시 짬을 내서 얼마 남지 않은 2002년의 지나간 일을 되짚어 본다. 잘 해보자고 했던 새해 아침의 결의는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이대로 간다면 올해의 결산은 제대로 될 것인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몇 가지 일은 돌이켜 보아도 잘한 일이 있다. 반면에 석연치 못한 행동을 해서 생각할수록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금년이 다 가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일들도 더러 있다. 그 가운데 지난 5월 25일 이른 아침에 '새로운 건축사협회 설립을 위한 100인 선언 대회'의 말미에 어정쩡하게 참석한 일이 있다. 모임의 성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는 채 무례한 발언을 해서 행사장 분위기를 흐려놓았었다. 솔직히 작취미성이라 맑은 정신이 아니어서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적을 둔 지 벌써 스무 해나 지났다. 80년대 초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입회 했으나 협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기를 찾지 못했다.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직원들의 경력이나 확사의 실적 관리와 같은 사무적인 절차와 관련되는 것 외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주로 한국건축가협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자원봉사 차원의 활동을 해왔었다.

일상에서 만나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협회에 함께 가입하고 있는 회원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두 협회의 일에 같은 비중을 두고 깊이 관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에 와서 두 협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 동료나 직원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도리 없이 궁색한 처지에 몰리게 된다.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건축사협회가 그동안 누렸던 독점적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불씨가 된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건축계가 함께 나서도 해결하기에 힘이 부치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불협화음이 생겨서는 큰일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설상가상인 것은 별도로 새로운 협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절차를 밟아서 별도의 단체를 결성하겠다면 억지로 막을 수 없다. 구성요소가 개인이나 집단이던 간에 자유롭게 원하는 단체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국면전환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누구나 각자의 소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정확한 상황판단을 근거로 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때에 성급한 흑백논리로 단순히 '편 가르기' 라는 인식을 잠시 유보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협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협회가 추구하는 바를 선명하게 나타내어야한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군살빼기를 해야 한다.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내어놓아야 한다. 급류를 타고 있는 국제관계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건의 변화를 인정하고 '법' 때문이 아니고 '자의' 로 회원이기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한다.

자칫 방심하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자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이지만 아예 방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건축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유효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성격이 유사한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축단체에 중복해서 가입하는 관행부터 버려야 한다. 건축사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건축사사무소 단위로 가입하는 단체와 건축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체로 건축계를 재편성하여야 한다. 그냥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 하자면,

새로운 입법과정을 거쳐 기존의 건축사협회를 건축사사무소협회로 개편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하도록 하자. 건축가협회는 건축행위를 문화활동으로 인식하는 전문가의 단체로서 건축사협회로 개명하여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자. 그리고 건축학회는 건설교통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등록을 이전하도록 하면 어떨까? 분야별로 복수의 단체가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대치국면을 조성하기보다 스스로 당당하면 된다.

전가의 보도로 쓸 수 있는 비책이 따로 있지 않다. 편견과 아집,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

결실의 계절이다. 올 한 해에 뿌린 씨는 해가 가기 전에 부지런히 거두어 들이자. 아직 태양이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고 있으니. ▣

한 건축사의 전쟁

An Architect's War

민규암 / 토마 건축사사무소
by Min Kyu-Am

지난 6월 한국은 역대 월드컵 사상 초유의 성적을 내면서 세계 4강의 신화를 이룩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터진 역전골은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통쾌하게 날려주는 것이었고, 그 후로도 우리 모두를 들뜨게 했던 계속되는 승전보는 6월 한 달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 같은 것이었다.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월드컵은 돌이켜 본다면 그것은 가슴 벅찬 것이었고,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었지만 대한민국의 한 건축사로서는 지난 월드컵을 떠올릴 때마다 조금은 씁쓸한 기분을 갖고서 살아갈 것 같다.

1999년 11월경 서울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 의하면 건축 관련 상의 수상경력이 있는 건축사인 필자에게 서울시가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에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을 화장실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니 그 대열에 참가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담긴 것이었다. 정말 감격스러웠다. 서울시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업의 일부에 참여해서 건축사로서 한몫을 당당히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니. 사실 그 보수는 그때 느끼고 있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이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훌륭한 안으로 좋은 건물만 지어줄 수 있다면 필지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역시 한달 남짓이라는 짧은 설계 기간이 주어졌다. 다른 일반 설계 안이었다면 그 비용과 기간에서 한번 그 계약 자체를 다시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경우였지만, 서울시의 숭고한 뜻을 생각해서 모든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고,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한달 간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을 만들었다. 작업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한 달만에 일을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그만큼 큰 보람도 따랐다. 마지막 날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서울 시청에 도면을 납품하면서 느꼈던 새벽 남산의 공기는 얼마나 시원하던지.

납품 후에는 그저 모든 것이 잘되리라 믿었다. 아니 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서울시가 깊은 관심

을 갖고 직접 관여하여 모든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니 어련히 잘될 것이라 믿었다. 몸에 개시할 것이라는 공사일정은 무척 궁금했고, 또 공사감리도 누가 할 지 궁금했지만 공연히 바쁘신 분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 물어보고 싶어도 참기로 했다. 사실 감리는 꼭 직접하고 싶었지만 기다려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필자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서울시가 서대문구에 모든 것을 위임해서 서대문구가 시공을 시작해서도 한참이 지난 후였다.

현장에는 이미 기초와 지중보 등이 설치된 상태였는데 현장에 가보자마자 설계안의 일부가 상당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설계안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일부를 잘라서 없애고, 또 어느 부분끼리는 붙인다든지 해서 초기의 설계안을 임의로 변형시킨 것이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작태였다. 곧바로 서대문구의 담당자를 만나보았다. 그에 따르면 민원이 발생하여서 조금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도 이미 설계 초기부터 새로운 화장실이 들어온다는데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것은 화장실의 설계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화장실 건립자체에 대한 것이었기에 담당자에게 도대체 이런 엉뚱한 부분적인 변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 진실을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궁금증을 풀 수는 없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저 이 사태를 모른 척 묵인해 주느냐 아니면 문제를 삼느냐 였다.

이일로 오랜만에 잊고 지내던 변호사 친구를 만나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그의 충고는 그저 잊으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기기 힘들 것이고 그런 부분적인 변경을 조금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갖고서 무슨 큰 강제적 조치를 얻어낼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아주 긴 소모전이 될 것이고, 거기에 투입될 시간과 경비가 있다면 그것을 더 발전적인 곳에 쓰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물론 그의 말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사실들이었다. 스스로도 이런 법적인 투쟁의 결과가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생각 끝에 이번만은 그런 상식적인 이해계산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스스로는 그때 이미 항전의 의지를 다지면서 자신에게 던지는 출사표를 쓰고 있었다. 그것은 나 한 몸이 이번에 철저히 희생되어지더라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분만으로도 이 싸움에 나갈 것이며 지더라도 후회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것이었다.

싸움은 예상대로 2년여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긴긴 것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의 명분상 그들에게 압승했지만 실리적으로는 큰 소득이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처음에 법원에 가기 앞서서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된 저작권 침해여부 심리에서 3인의 저작권법 전문 판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서대문구청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판결했고,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원안대로 재시공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계속 공사를 진행했고, 건물은 그들의 뜻대로 완성됐다. 곧이어 서울 지방법원에서의 2라운드에서 판사는 이미 판결된 대로 서대문 구청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차마 용기 있게 건물은 철거시키지 못했고, 대신 보상금조로 설계비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을 것을 판결했다. 결국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써 최근에 그 길고 길었던 재판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말았다. 참 슬픈 일이었다.

이번의 이 재판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설계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긴긴 재판기간 내내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든 기회였다. 지금 건축계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여기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지리멸렬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가 항상 우리들을 괴롭히는 칼과 창으로 언제든지 돌변할 것이다. 마치 서울시와 서대문 구청이 태연히 한 건축사의 설계안을 아무 없이 짓밟고도 당당해 하듯이. 이번 재판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하나는 필자가 제기한 사건과 같은 경우가 필자 이전에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저작권심의위원회 위원들조차 음반이나 책이 아닌 건축물을 들고서 저작권 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위원은 저작권법상 건축물이 명백히 법조문에 들어가 있지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라고 까지 지적해 주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계속 그저 그렇게 체념하면서 우리의 지위와 사회적인 역할정립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은 계속 더 축소될 것이다. 이제는 분명히 누군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비록 당장에는 질 것이 명백히 보이더라도 먼 훗날을 위해서 대의명분을 세우고 출사표를 던질 때가 된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뜻있는 건축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고한다.

건축계소식 / 95
해외잡지동향 / 100
세무안내 / 106

건축계소식 archi-net

제7기 부산시민건축대학

9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부산건축사회에서는 9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시민건축대학 강좌를 실시한다. 부산건축사회관 12층(예당)에서 개설될 이번 강좌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을 하며, 수강료와 교재는 무료이다. 강좌일정은 다음과 같다.

문의: 051-633-6677

- 9월 25일(개강식 및 제1강좌)/자연과 풍수와 집/장영훈(지리산 풍수 캠프)
- 10월 2일(제2강좌)/친환경적 건축/이성(동의대학교 건축학부)
- 10월 11일(제3강좌)/부산국제건축문화제 참관/안귀수(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10월 16일(제4강좌)/리모델링과 생활의 변화/조근배(건축사사무소 샘)
- 10월 23일(제5강좌)/광안대로의 설계와 시공/구자연(부산시 사무관, 광안대로 공사감독관)
- 10월 30일(제6강좌)/전통건축 이해(살림집을 중심으로)/윤석환(예민건축사사무소)
- 11월 6일(제7강좌)/전통건축 답사(경주 양동마을)/윤석환(예민건축사사무소)
- 11월 13일(제8강좌 및 수료식)/생활과 건축/허동윤(상지ENC건축사사무소)

「서울의 도시건축, 발상의 전환」 심포지움 개최

9월 27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시는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건축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21세기 세계 중추도시, 통일한국의 수도로 인간중심의 도시건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나온 도시개발과 건축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 바람직한 서울의 도시건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심포지움이 열린다. 이 행사는 오는 9월 27일(금) 14시부터 18시까지 서울 을지로 입구 한국외환은행 본점 4층 강당에서 「서울의 도시건축,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다.

한국건축역사학회 9월 월례회

「공포연구의 현안」을 주제로 9월 28일 개최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는 '공포연구의 현안'이라는 주제로 9월 월례회를 갖는다. 공포의 발생 및 변천과정, 유형별 구조적 의장 특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성과를 나누고, 공포연구에 있어서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 오전에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공포 축소모형을 유형별로 직접 해체 조립하는 워크숍을 갖는다.

참조: 건축역사학회 홈페이지 (www: kaah.or.kr)

- 일시 : 2002년 9월 28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 (공포 해체조립 워크숍 장소는 학회홈페이지에 게시)
- 진행 순서(진행: 윤회상/신흥대학 건

축과)
- 10:00~13:00 : 공포 축소모형 조립 및 해체(치목 및 결구) workshop
  - 지도: 김왕직 박사(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강사), 김영성 도편수(목은 전통건축)
- 14:00~14:30 : 공포연구의 몇가지 문제 및 제안
  - 김도경 (해라시아 문화연구소)
- 14:40~15:10 : 다포구성에 있어서 정면성에 관하여
  - 양윤식 (국립문화재연구소)
- 15:20~16:00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배병선 (국립전통문화학교 건축과)
  - 심대섭 (대원고건축연구소 소장)
  - 유성룡 (고려대학교 건축사연구실)
- 16:00~17:00 : 자유토론(질의응답)

2003 이상건축상

주제 : 「내마음의 옥탑방」
9월 9일부터 27일까지 신청

- 응모자격: 전국의 건축/인테리어사무소 직원, 건축/인테리어 관련학과 학생
  (2년제 대학 및 대학원, 유학생 포함)
- 신청접수기간: 2002년 9월 9일(월)~9월 27일(금)
- 작품제출기간: 2003년 1월 27일(월)~1월 29일(수)
  (제출최종마감일 오후 8시까지 제출, 이후 제출 불가, 우편제출은 기간 중 소인에 한함)
- 1차심사: 2003년 2월 5일(수)~2월 6일(목)
- 2차심사: 2003년 2월 9일(일)
- 심사발표: 2003년 2월 13일(목)
- 작품제출요령: 1차/패널제출
  - 도면표현: 패널에 자유롭게 표현
  - 패널규격: 600㎜×900㎜ 사이즈 2매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조합 가능 (10㎜ 우드락에 부착하여 제출)
  - 2차/프리젠테이션
  - 모형제출(2차 프리젠테이션시 모형은 제출하여도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심사위원: 최두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헬렌박주현(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 접수 및 문의: 월간 이상건축(02-549-5383, ia1833@kornet.net)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56-21 3층
- 코디네이터: 서현(이상건축 편집위원, 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 교수)
- 주제: 내 마음의 옥탑방

옥상 정원을 이야기하던 건축의 대인(大人)이 있었다.

우리는 옥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옥상의 정원이 아니고 옥상의 시작이었다. 이르는 문은 대개 닫혀 있었다. 어렵게 들어서면 을씨년스럽게 굴러다니는 잡동사니만 눈에 가득했다.

그곳은 세상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은밀한 음모가 수군거려지기도 했다. 떨쳐버리고 싶었던 고뇌만큼 짓이겨 놓은 담배꽁초가 버려지기도 했다. 간혹 고단하던 인생에서 벗어놓은 신발이 얌전하게 발견되기도 했다. 그곳은 항상 존재하면서도 우리에게 아득히 멀리 있는 초현실의 공간이기도 했다.

'2003이상건축상'은 옥상의 발견에서 시작한다. 이 옥상은 실재하는 곳이어야 한다. 응모자는 어디에나 있는 옥상 중에서 어딘가에 있는 자신의 옥상을 발견해야 한다. 그 옥상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은 여전히 유지되는 주제, 주거이다. 그것은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집단이 생활하는 공간일 수도 있다.

건축이 기계를 담는 그릇이 아니고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면, 이 주거는 인간의 동작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담아내야 한다. 가장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면서도 더 높은 곳에 가면 살짝이 내려다보이는 곳, 가장 경치 좋은 곳을 찾아 꼭대기층에 자리잡는 최고 경영자의 방보다 더 높이 올라선 채 버려진 곳, 기계적인 장치가 내장처럼 버려진 곳이면서도 하늘과 바람과 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이 모순의 공간에 담아야 할 내용은 마음이다. 그것은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

응모자는 도시를 들여다보는 관찰력을 과시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주거가 들어설 곳은 옥상일 수도 있고, 옥상과 옥상일 수도 있고, 옥상과 옥상의 사이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그곳은 대지(垈地)를 상정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르러야 할 곳은 건축으로 시를 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상상력이다. 날개를 단 건축가의 모습이 여기 보여야 한다.

헤이리 아트밸리 건축전

10월 27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에 건설 중인 문화예술도시 '헤이리 아트밸리'의 탄생배경과 마스터플랜, 참여건축가의 작품이 성곡미술관에서 9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시된다. 이 전시는 도시 전체가 건축작품으로 구성되는 헤이리를 통해 도시 건축의 미래를 예견하고 타 장르와의 새로운 관계맺기를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제1전시실은 김준성, 김종성씨가, 제2전시실은 최 욱씨가 디렉터를 맡아 구성하였다. 참여건축가는 다음과 같다. 김광수, 김성식, 김영준, 김인철, 김종규, 김준성, 김 헌, 민선주, 서혜림, 우경국, 이민/손진, 이은영, 이일훈, 이조호, 임재용, 장해철, 조민석/James Slade, 조병수, 조성룡, 최두남, 최문규, 최승원, 최아사, 최 욱, 토마스한, 한형우, 헬렌박, Florian Beigel, SHoP

◇ 특별프로그램

- 건축과 음악의 만남: 클래식과 재즈 퓨지션의 작은 음악회
- 9월 14, 28일/10월 5, 12, 19일(토) 오후 4시
문의: 02-737-7650
www.sungkokmuseum.com

아트선재센터 건축 강좌

'현대건축과 관객'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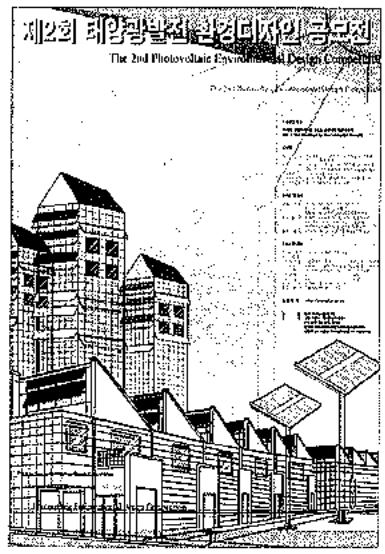
- 강의일정
  - 9월 11일 /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 10월 9일 / 정기용(기용건축)
  - 11월 13일 / 승효상(이로재)
- 시간: 오후 6시~8시
- 장소: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 참가신청 및 문의: 02-733-8945

제2회 태양광발전 환경디자인 공모전

9 '21세기 환경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태양광발전' 주제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전국 대학(2, 3년제 포함) 관련학부 및 대학원생(개인 또는 2인 공동 - 학생, 일반인 공동 출품 불가)을 대상으로 제2회 태양광발전 환경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1세기 환경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태양광발전'을 주제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및 조형물 또는 구조물의 설계 분야에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pvdesign.or.kr)를 통해서만 신청서를 접수한다.

- 신청기간: 10월 16일(수)까지
- 제출마감: 10월 23일(수) 13:00~18:00
- 심사발표: 10월 30일
- 전시기간: 11월 7일(목)~8일(금)
- 전시장소: 서울농업무역센터 전시장
- 접수처: 대전시 유성구 장동 7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부



제2회 리빙뉴스21 · 성남 개최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성남시가 주최하고 한국실내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리빙뉴스21 · 성남(Living News 21 · Seongnam)' 행사가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 1층에서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명확히 고취시키고자 개최되었던 2001년 제1회 대회에 이어 올해로 2회를 맞게되는 이 행사는 국내 유수의 디자이너들이 연출하는 테마전, 욕실 리모델링 디자인전, 실내디자인 제품전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리빙뉴스21 디자인공모전, 주부디자인 공모전과 디자이너 초청세미나, 실내디자인 무료상담 등을 통해 단순 전시행사의 개념을 떠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문의: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02-3444-2083) www.kosid.or.kr,
www.livingnews21seongnam.co.kr

이탈리아 건축전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갤러리에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전쟁이후 이탈리아 건축 속의 표시, 디자인 그리고 프로젝트'전이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선유도공원 내 한강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서민을 위한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건축가 마리오 리돌피(Mario Ridolpi)씨의 오리지널 설계도면과 스케치, 사진 그리고 유명건축가들의 디자인을 판화로 제작한 작품들의 원판과 탁본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보기 드문 건축작품들로 건축적 재활용공원 선유도의 이미지와 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2002년 2학기 특강

2002 변화의 시작과 새로운 풍경 - 세계속으로

〈이론과 실천 초청강연〉
- 시간: 월요일 16:00

- 강연일정
  - 9월 16일: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정재승
  - 9월 23일: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장대익
  - 9월 30일: 세포옆에서/김회준
  - 10월 7일: 수학이 세계를 바꾼다/김홍중
  - 10월14일: 우주시공간과 천체-천문과 디자인/박창범
  - 10월21일: 현대물리학의 과제-대칭성, 복잡성, 나노물리학/최무영

〈초빙교수 특강〉
- 강사: 프란치스코 사닌(F. Sanin)
- 시간: 월요일 10:00
- 강연일정
  - 9월 9일: Urban Design concepts and elements
  - 9월16일: Urban Design Strategies
  - 10월 7일: Writing the City, Modern Manifestos 1
  - 10월14일: Writing the City, Modern Manifestos 2
  - 10월28일: Situationist Movement
  - 11월11일: Critical Urbanism 1
  - 11월18일: Critical Urbanism 2
  - 11월25일: From text to text
- 문의: 02-958-2770

김영수 전 회장 건축작품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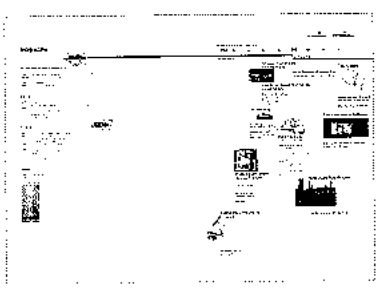
9월 27일 출판기념회

김영수 회원이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 작품집 '建築國30/60金榮洙' (한신미디어 발행)을 펴냈다.
이 책에는 건축국(1971년 개업) 30년간의 설계작품 중 20여개의 주요작품을 실어 건축과 함께 한 그의 60평생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작품집 발간 출판기념회는 9월 27일(금) 오후 6시30분부터 조선호텔(소공동)1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태수해외여행 장학제 수상자 발표

백은정씨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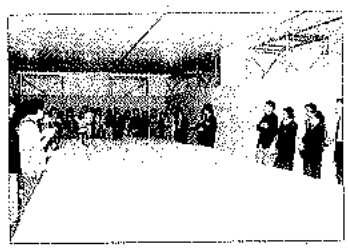


제11회 김태수해외여행 장학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서울에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여 미국의 김태수사무소에서 1차 심사로 3명이 최종심사에 올랐으며, 지난 7월 15일 서울 이로재건축 사무소에서 심사위원 승효상(이로재건축사사무소 소장), 박혜련주현(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김정곤(건국대 교수)씨가 최종 심사한 결과 백은정(조성룡도시건축)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백은정씨는 만불의 여행장학금을 받게 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2002 올해의 작가 - 승효상」전

8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테이프컷팅 사진



전시장내부 사진

- 주제: 「URBAN VOID」
- 전시기간: 2002. 8. 28(수)~10. 27(일), (61일간)
- 전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
-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부대행사
- 강연
  - 제목: '나의 건축세계 - 빈자의 미학에서 문화적 풍경까지'
  - 발표: 승효상
  - 일시: 2002년 10월 25일 금요일 15시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강당
- 심포지움
  - 제목: '새로운 시대 우리의 건축'
  - 진행: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일시: 2002년 10월 25일 금요일 16시
  - 장소: 현대미술관 강당 강당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아라타 이소자키(건축가/일본), 창윤허(건축가/중국),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건축가/스페인), 정준모(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한국)
- 문의: 이로재 02-763-2010

a+u

신건축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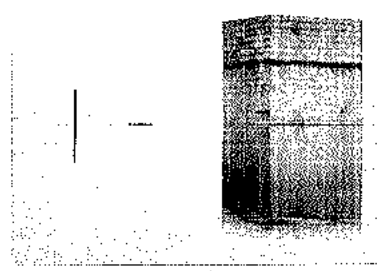
a+u

200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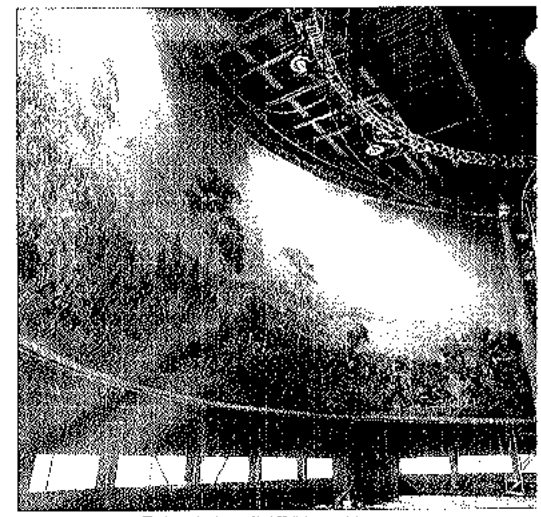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집은 최신작품들의 소개이다. 이 중에서 스위스에서 금년에 개최된 엑스포의 아르뜨쁠라쥬들에 대한 소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총 4개곳에 세워진 아르뜨쁠라쥬가 각각의 독특한 개념과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아르뜨쁠라쥬(Arteplage)는 불어의 'art(예술)'와 'plage(물가, 해변)'을 합성한 조어. 여기서는 각 박람회장의 호수가에 설치된 방문객센터를 지칭하고 있다.

▶Expo.02 물텐 모라 아르트쁠라쥬 (Multen-Morat Arteplage, 스위스) - 쟝 누벨

무게가 4,000톤 가까이 나가면서도 가벼움과 투명함이 느껴지면서, 심지어 물에 뜬다. 이 『모놀리스』는 물텐 모라 아르뜨쁠라쥬의 랜드마크이자 덧없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결집한 작품이다. 실제로 이것은 한 척의 배이다.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그러하다. 『모놀리스』에 구명보트와 넘버플레이트가 장착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배가 어쨌든 간에 뜰 수 있었던 것도 큐브를 모아 만든 플랫폼과 같은 화려한 구



Expo.02 물텐 모라 아르트쁠라쥬(Multen-Morat Arteplage,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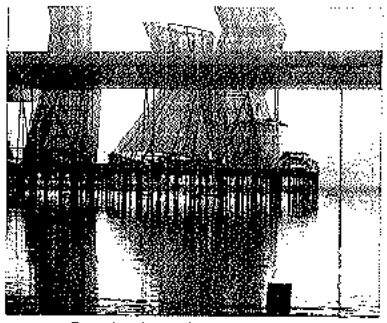
Expo.02 물텐 모라 아르트쁠라쥬(Multen-Morat Arteplage, 스위스)

법 덕분이다. 이 플랫폼은 100개의 空洞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어 졌다. 이 플랫폼은 슈지에(Sugiez)근처의 브로이(Broye)운하에서 조립되어 총 2,800톤의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 기초는 두 척의 터그 보트에 끌려 물텐 호수까지 운반된 것이다. 호수 수면 위에 자리잡은 기초판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24기닥의 강선으로 호수 밑바닥에 고정되었으며, 한가운데에는 공사를 위한 크레인이 설치되었다. 이 때 벽면의 공사가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크레인을 만들기 위한 부재는 헬기로 운송되었다. 바람이 불면 모놀리스는 밀려 움직인다. 심한 경우에는 2m까지도 밀려나간다. 모놀리스의 실내에는 3가지 파노라마가 전개된다. 그 첫 번째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한 1894년의 회화 『물테의 전쟁』이며, 바젤 출신의 아티스트 그룹에 의한 『스위스 파노라마 ver.2.1』이라는 이름의 미디어 아트가 전시된다. 세 번째 파노라마는 모놀리스의 실내에서 보여지는 실제의 물텐 모라의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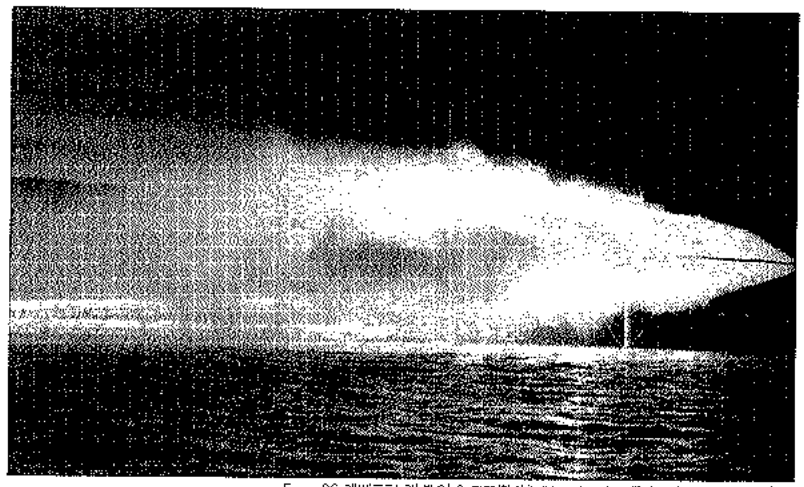
▶Expo.02 비엘 비엔느 아르뜨쁠리쥬 (Biel-Bienne Arteplage, 스위스) - 쿠프힘멜브라우

비엘 호수의 『더 타워즈(The Towers)』와 열려진 건축: 권력과 자유

어느 시대에나 타워는 권력의 증명이며



Expo.02 비엘 비엔느 아르뜨쁠라쥬(Biel-Bienne Arteplage,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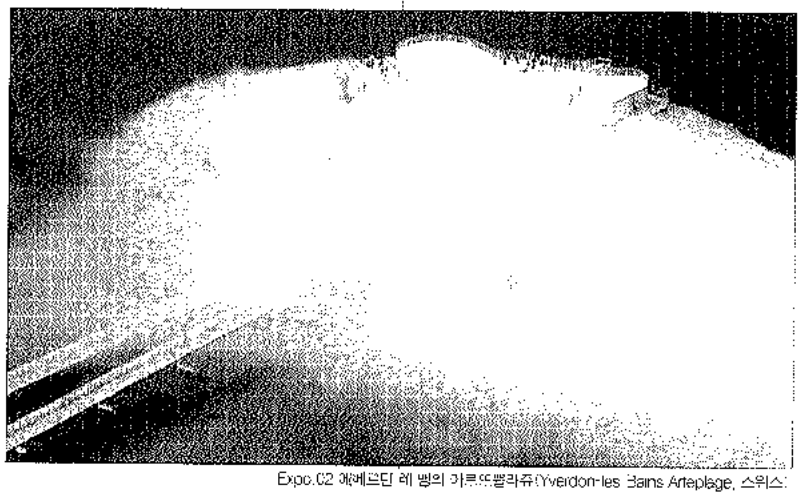


Expo.02 에베르던 레 뱅의 아르뜨쁠라쥬(Yverdon-les-Bains Arteplage, 스위스)

자유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건축의 원형이었다. 또한 '눈에 들어오는 모든 토지의 왕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 본능의 표상이다. 굳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EXPO.02』는 도시계획적인 전략으로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앞으로의 개발을 위해서도 이해하기 쉬운 장치를 만들어 놓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능적인 요건은 모두 도시계획 단계에서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해 두면 이후에 변경이 있더라도 설계자별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람회장으로서 지붕이 있는 플랫폼을 호수위로 뻗어내어 그 끝에는 3개의 타워를 배치시켰다. 이것은 항공모함의 형태를 닮았는데, 우연한 것은 아니고 다분히 의도된 것이다. 지붕에 설치된 데크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전시 파빌리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된다. 가로변에 있는 건물들과 동일하게 생각해도 좋은 것이다. 타워들은 낮 동안의 거대한 간판에서 밤에는 소리와 빛의 조각으로 변하면서 Expo.02의 활기찬 트랜지스터와 같은 특징을 강조하게 된다. 구조와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선택되었다.

▶Expo.02 에베르던 레 뱅의 아르뜨쁠라쥬(Yverdon-les-Bains Arteplage, 스위스) - 딜러 + 스코피디오(Diller + Scofidio)

『블러(Blur)』는 대기(大氣)의 건축이다. 인장력을 주로 사용한 가벼운 구조체는 폭 100m, 길이 65m, 높이가 25m이다. 건물은 건물이 세워지는 곳(호수 위)에서 얻어지는 소재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바로 물이었다. 물은 호수에서 펌프로 올려져 여과된 후 고압의 제트노즐에서 안개처럼 뿜어져 나온다. 안개의 형태는 계절에 따라, 날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그리고 1분, 1분마다 변화한다. 여기에 자연과 인위적 힘의 격한 충돌이 보여진다. 온도, 습도, 풍속, 풍향과 같은 기후의 변화를 기상관측 시스템이 감지하여 그 데이터가 중앙컴퓨터에 보내지고, 31,500개 노즐의 수압이 조절된다. 『블러』는 비쥬얼 미디어에 대한 반동이다. 만국 · 전국박람회 정도 되면 최근에는 항상 비쥬얼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어 식상한 감을 준다. 박람회장에서는 최선단의 기술이나 파격적인 시뮬레이션만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쇼들은 그 동안 극도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비쥬얼 시뮬레이션에 열광하는 대중들을 만족시켜왔다. 소비자문화에서는 회소 수가 조금이라도 많으면 좋은 대우를 받는다. 오늘날 고해상도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반대로 『블러(흐림)』는 말할 것도 없이 저해상도이다. 그러나 선명함 못지 않게 흐림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 거물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우비를 입고 물안개로 가득찬 건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물은 이 건물을 이루고 있는 소재로만 쓰이고 있지는 않다. 이 거물과 다리로 연결된 호수가의 프랫폼에서는 세계각국의 미네랄 워터나 암반수를 파는 '워터 바'가 마련되어있다. 이곳을 지나면서 누구나 이 건물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선명함이 아닌 흐림의 중요성을, 비쥬얼에 치중되어있던 전시를 온몸으로 느끼는 전



Expo.02 에베르던 레 뱅의 아르뜨쁠라쥬(Yverdon-les-Bains Arteplage,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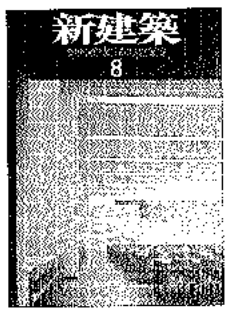
시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현대인들이 얼마나 시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Expo.02 뉴샤텔의 아르뜨쁠라쥬(Neuchatel Arteplage, 스위스) - 멀티팩(Multipack)

뉴샤텔의 아르뜨쁠라쥬의 배치 · 개발계획을 위하여 1998년에 현상설계가 진행되었다. 현상설계의 과제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전시회장의 구성, 설비 인프라의 정비, 그리고 자연과 인공을 테마로 한 조명계획에 이르기까지 전시회장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었다.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멀티팩의 안에는 인공의 갈대를 사용하여 자연과 인공이 만나는 테마가 담겨져 있었다. 전체적인 계획은 이 인공 갈대를 축으로 진행되었다. 전시장은 호수변의 『엑스포파크』와 호수 한 가운데에 섬처럼 배치된 『포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3,100개의 갈대는 이 포럼 주변으로 호수에 심어져 낮에는 갈대 끝에 부착된 태양에너지를 축적하고 밤에는 조명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건축

200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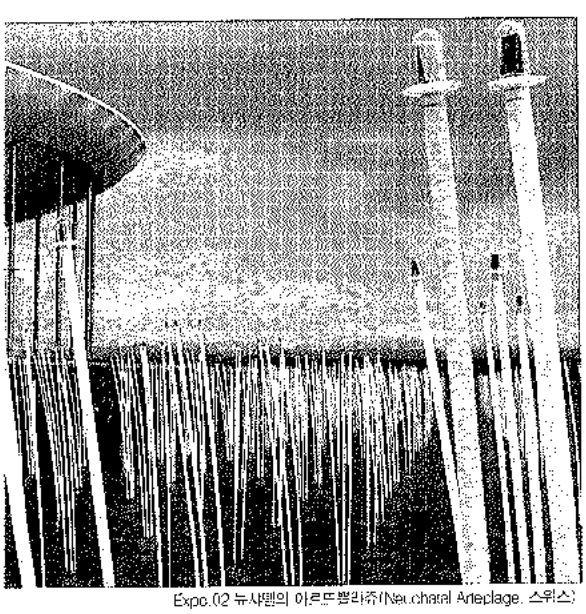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특집은 마련되지 않았다. 최신 작품들의 소개에서도 잘 알려진 건축가들의 작품들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내실 있는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환경을 테마로 한 작품들과 논문이 눈길을 끄는데, 카고시마의 환경공생주택과 '환경공생주택을 생각한다'라는 에세이가 그것이다.

金山町立 메이안(明安)소학교 - 오자와(小沢) 아뜰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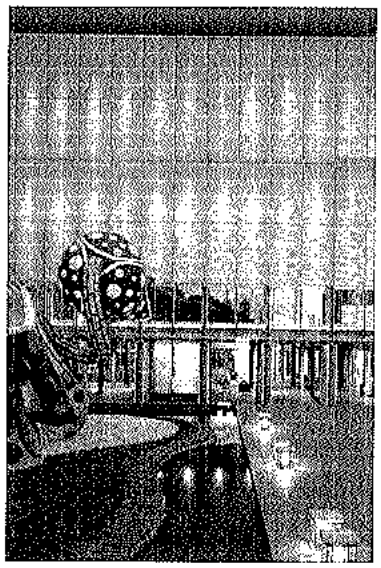
이 소학교는 마을의 인구수가 7,500명, 소학교의 학생 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곳에 계획되었다. 건축가는 지역의 소학교란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커다란 집 혹은 작은 마을'로서의 학교를 테마로, 교실과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각종 지원시설의 배치를 만들어 내었다. 교실동은 교실, 워크스페이스, 회랑, 중정과 같은 공간들이 중정을 중심으로 감싸면서 중첩되어있다. 교실과 워크스페이스 사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 교실은 20명이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지만 교사의 코너가 반드시 마련되어있다. 통상의 워크스페이스는 방치해두면 완구상자들이 뒤집혀진 채 어지럽혀진 형상이 되기 쉽다. 여기서는 교실이 『집』이라면 워크스페이스는 그 앞의 『골목』으로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관계를 상정해 놓았다. 밖에 나갈 수 없는 동절기나, 쉬는 시간의 놀이 장소이면서, 내부화된 외부이다. 이곳은 고정된 '붙박이 가구'가 배치된 '방과 같은 통로공간(roomy corridor)'의 제안인 것이다. 구속성이 없는 공간은 융통성(flexibility)이 있다고 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무엇도 사람들에게 제안하지 못한다. 교사와 아동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최초에 무엇인가가 있음으로 해서 촉발되는 지각적인 융통성이라고 건축가는 이야기하고 있다.

▶마츠모토(松本)市 미술관 - 이야모토 타다니가(宮本忠長)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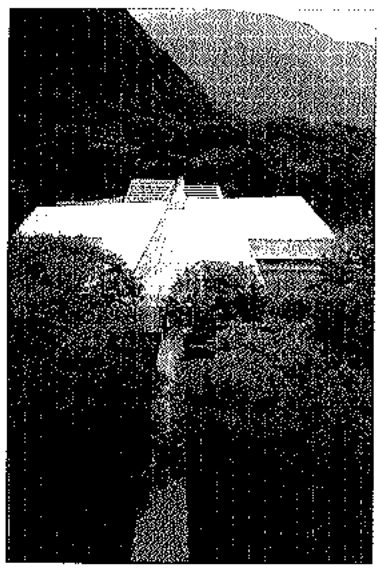
마츠모토는 쇼카마치(城下町: 일본의 城 밑에 형성된 도시부락)이다. 마츠모토시 미술관은 전체적인 도시 발전의 균형아라는 관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


Expo.02 뉴샤텔의 아르뜨쁠라쥬(Neuchatel Arteplage, 스위스)

金山町立 메이안(明安)소학교



마츠모토(松本)市 미술관



폴라 미술관

다. 구시가지가 공허한 장소로 변하는 경향이 많은 오늘날, 파리의 오페라하우스나 루브르박물관처럼 미술관이 구시가지를 활기찬 장소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점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술관의 부지의 위치는 도시의 중요한 시설인 마츠모토역과 마츠모토城, 그리고 이 도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야가타의 숲으로 가는 길이 나누어지는 곳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건축가는 건물의 지상층 부분에 필로티를 형성하고, 통행자들이 자유로이 건물을 통과하여 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마츠모토라는 지역색을 강조하기 위해 '검은 성'으로 유명한 마츠모토성의 흑색을 모티브로 하여 건물 외관을 구성하였다.

▶폴라 미술관 - 니켄셋케이(日建設計)

폴라미술관은 9,500점 이상의 인상파회화와 일본근대회화작품 등의 개인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이다. 부지는 富士箱根豆国立公園내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수령 300년 이상의 수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자연 경관과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시켜야 하며, 국립공원내 지상 8m 이상의 거물을 지을 수 없다는 제한과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프로젝트였다. 부지의 정밀한 지형과 생태계 조사 결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계곡이나 개울을 피해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정해졌으며, 커다란 사발 모양의 기초판을 경사지에 묻어 습기와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다. 주 진입도로에서 숲속의 진입로를 따라 만나게 되는 유리패널로 된 입구홀이 유일하게 방문자를 맞이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입구홀에 들어서면 한눈에 건물의 구조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빛의 벽은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이 미술관의 실내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번역 / 강상훈)

Architecture

2002년 6월

보수적인 오스트리아 건축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뉴욕의 중심가에 세워진 두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으며, J. Mayer H.의 독일 Schamhauser Park 지역 회관 등 다른 최신작들도 다루고 있다. 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뉴욕의 경제적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Stamford의 실패기를 게재하고 있다.

■ Stamford의 교훈

1970년 뉴욕의 폭탄 테러로 위협을 느낀 많은 회사들은 이로부터 45분 떨어진 코네티컷 주의 Stamford로 본부를 옮겨갔으며, 그로부터 몇 년 후 Stamford는 뉴욕과 시카고에 이어 미국의 대기업 본부가 가장 많이 위치한 도시로 변모했다. 기존의 대도시들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성급한 판단을 한 개발업자 Tom Rich는 Stamford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17개의 빌딩에 30헥타르에 달하는 사무실 면적을 마련했고, 60년대 초반부터 막대한 재개발 계획을 실험적으로 추진했던 이 도시의 정책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듯 보였다. 대기업들이 이곳으로 본사를 이주한 데에는 그 CEO들이 인근 교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들 대부분이 같은 컨트리클럽을 다니며 회사 정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한몫 했다. 하지만 이곳의 빌딩들은 지상의 저층 레벨에 주차 시설을 갖추는 등 길과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도시적이기보다는 교외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었고, 쇼핑 활동 역시 중심가의 거대 쇼핑몰이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아파트 물량까지 부족해 회사원들의 불편이 컸다. Rich가의 거대한 모험은 과잉 투자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위기를 맞은 후 1987년의 증시 폭락으로 완전히 끝나버렸다. 하지만 빚과 과대한 기대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Stamford의 사례는 9·11 이후 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본사의 중소도시 이주에 좋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Stamford의 미사용 사무실 면적 비율은 2001년 말 10%에서 12%로 오히려 증가했다. 대기업들의 기존 경제 중심지

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으며, 인근 중소 도시로의 단기적인 이주 현상에 지나치게 큰 투자를 할 경우 그나마 이어져 온 지역적인 특성들을 파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 오스트리아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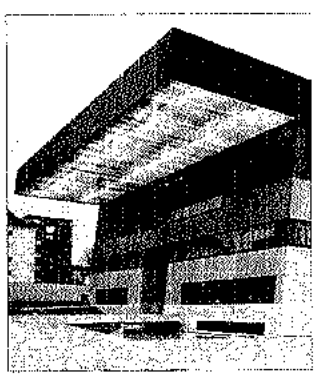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Kokoschka, Loos, Schonberg, Freud, Wittgenstein 등 유명 학자와 예술가들의 활동으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비엔나는 이후 다소 보수적인 색채로 그 빛이 바랬다. 전반적으로 왜곡된 오스트리아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뉴욕에 새워진 오스트리아 관련 건축물들을 살펴보았다.

▶ Atelier Raimund Abraham의 뉴욕 Austrian Cultural Forum

▶ Selldorf Architects의 뉴욕 Neue Galerie

Atelier Raimund Abraham의 뉴욕 Austrian Cultural Forum

■ J. Mayer H.의 독일 Ostfildern Stadthaus Scharnhauser Park



J. Mayer H.의 독일 Ostfildern Stadthaus Scharnhauser Park

건축가 출신의 학가 Jurgen Mayer H.가 설계한 Scharnhauser Park의 지역 회관은 페디멘트, 열주와 거대한 출입 계단이 강조되는 전통적인 관청 건축이나 형광등이 줄지어 있는 박스 형태의 최근 사례들에서 급진적으로 탈피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울여진 박스 형태를 취하며 알루미늄 패널로 마감된 이 건물의 입구는 캔티레버로 처리된 지붕 아래 위치해 있는데, 밝은 빛을 발하는 이 지붕 구조는 동시에 물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연못을 건너 건물로 들어가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거꾸로 돌려 연못을 윗부분에 위치시킨 것이다. 이 지붕을 개념적으로 지지해야 할 기둥들은 건물 옆의 광장에 줄지어 있는데, 여기에는 광섬유 조명들이 더해져 수직성을 강조해준다. Mayer는 전체 형태를 5% 기울인데 대해 "관청에 대한 사회의 다소 불편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 설명했으며, 양극 처리된 알루미늄 패널의 사용은 재활용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 했다. 공공 광장을 형상화한 내부 공간은 비교적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배치에도 불구하고 노출 콘크리트와 조명 장치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판의 사용으로 극적인 공간감을 구축하고 있다. 콘크리트의 사용은 자연 공조 시스템에도 일조하는데, 여름에는 야간에 창을 열어두었다가 낮시간에 이를 닫음으로써 에어콘 설비 없이 냉방을 해결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공공 건축 설계 과정이 의례 그렇듯이, 이 작품은 9명의 지명 설계자와 수백 명에 달하는 유럽 경제 공동체 내의 참가자들이 경쟁을 펼친 설계 경기를 통해 당선되었다.

■ 인터넷 경매에 등장한 Neutra 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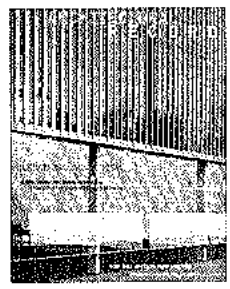
지난 5월 인터넷 경매 사이트 eBay에는 Richard Neutra의 1950년도 작품 Atwell House가 매물로 등장했었다. 최근 Neutra의 Maslon House가 철거된 후 건축물 보존 법령 제정을 위한 활동을 개진 중인 Neutra의 아들 Dion Neutra는 최저가 백2십만 달러에서 시작한 이 경매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입찰에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다.

■ 기타

최신 건축물 소개로 ▶일본의 Sapporo Dome, ▶Saucier+Perrotte의 몬트리올 First Nations Garden Pavilion, ▶인디아나 주 Columbus 등에 지어진 Carlos Jimenez의 세 작품 등을 다루고 있다.

Architectural Record

2002년 6월



모더니즘의 건축적 특성을 반영한 최근의 작품들을 살펴보는 한편, 사무실 건축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설계 사무실의 운영에 그 규모와 문화가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 있다.

■ 설계 사무소 크기와 문화

잘 논의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설계 사무소의 문화, 즉 부서간의 의견 교환이 자유로운지, 가족과 같은 분위기인지 하는 문제는 직원들의 만족도, 업무 수행 능력, 건축주의 범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으로 고되고 야근도 많은 등 스트레스 요인이 다분한 건축 사무소에서 이상적인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무소 소장의 몫이며, 그 출발점은 직원들의 희망 사항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젊은 건축가의 경우 매일 계단 상세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작은 사무소의 문화에 만족을 느끼는 편이며,

반대로 대형 사무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더불어 건축 실무뿐 아니라 리더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직원들을 유혹한다. 건축물 답사 프로그램, 시간제가 아닌 작업량에 의한 근무 등도 직원들의 부담을 해소시키는 데 유용하다. 지난 20, 30년 간 설계 사무소들은 기본 계획, 실시 설계, 시공 등의 과정을 각 팀이 분담해 맞는 "매트릭스" 시스템으로부터 단일 리더십 아래 일군의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시작에서 끝까지 전담하는 "스튜디어" 시스템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어왔는데, 이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 효율을 높여줄 뿐 아니라 건축주 측에서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하나의 운영 방식은 PIC(Principal-in-charge) 모델로, 작업 전반을 지휘하는 소장 아래 팀이 조직된다. 대형 사무소들은 소형 사무소 문화의 장점들을 유지하는 한편 디자인에 투입되는 시간에 보다 엄밀한 제한을 둠으로써 수익성을 높인다. 일반적으로 좋은 디자인이 성공적인 설계 사무소 운영의 지름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좋은 디자인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익을 남기는 건 무척 힘들다는 게 실무계의 현실이기에, 디자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 왜 모더니즘인가?

1932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회를 계기로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지칭된 근대의 건축 형식은 이론계에서 성공적인 입지를 굳혔지만 실제 건물들은 여전히 개인적 표현, 유기주의, 역사적 참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Robert Venturi의 저서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은 국제주의 양식의 초기 주창자였던 Philip Johnson까지 역사주의 양식으로 회귀시켜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세기 초 다양한 건축물에서 모더니즘은 여전히 유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Yoshio Taniguchi의 도쿄 국립 박물관 Horyuji 유물관

일본의 Shosion, Horyuji 문화재들을 전시할 건축 형식을 만들어내야 했던 Taniguchi에게 해답은 과거 건축 양식을 반영한 역사주의가 아니라 모더니즘에 있었다. 형태 자체는 절제된 근대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에 내재한 원칙은 전통 건축에서 빌어오고 있다. 연못과의 관계는 Heian 시대의 Shinden 저택 형식을 따라 정해졌으며, 내부의 어두움 역시 전통 주택에서 느껴지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Ueno 공원 안에 있는 이 건축물은 옛 이상과 감수성을 현대적인 개념, 재료, 시공 방식과 잘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Wandel Hoefer Lorch + Hirsch의 독일 Dresden 유대 교회, ▶Sauerbruch Hutton Architects의 독일 Magdeburg 실험 공장, ▶Carlos Ferrater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Catalunya Congress Center, ▶Barkow Leibinger Architects의 스위스 Grusch 혁신 센터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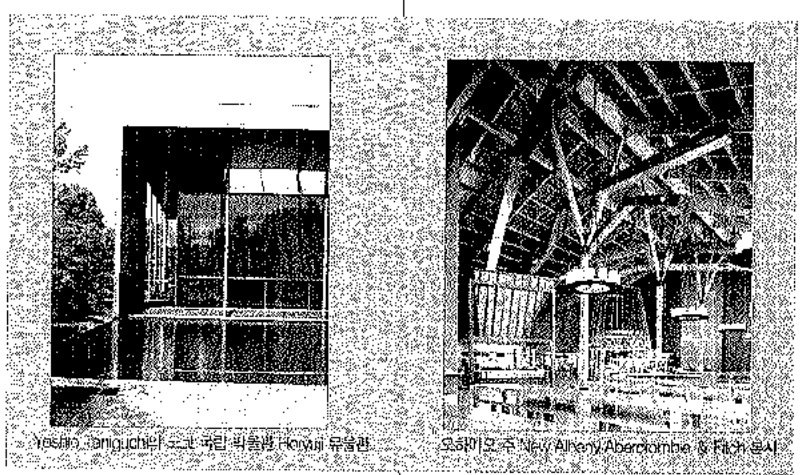
■ 건물 타입별 연구 - 사무실 건축

최근의 소형 사무실 건축물들은 독특한 구조체들을 과감하게 노출시키는 동시에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 동안 고층 빌딩형을 선호해오던 사무실 문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derson Architects의 오하이오 주 New Albany Abercrombie & Fitch 본사를 비롯하여 ▶Pagesoutherlandpage의 Lawrence W. Speck Studio가 설계한 텍사스 주 오스틴의 Computer Science 사, ▶Barton Myers Associates의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즈 9350 Civic Center Drive 사무실, ▶Aslop Architects의 독일 Dusseldorf Colorium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지난 해 Frank Gehry 작품전에 기해 Frank Lloyd Wright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덧붙여진 Gehry의 구조물을 영구 보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논쟁, ▶Rem Koolhaas의 쇼핑 관련 저서에 대한 평가, ▶역동적인 유선형의 조직이 돋보이는 Ushida Findlay Architects의 일본 Kasahara Amenity Hall, ▶건축계 내의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사용, ▶최신 인테리어 건축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번역/ 최원준)



Yoshio Taniguchi의 도쿄 국립 박물관 Horyuji 유물관

오하이오 주 New Albany Abercrombie & Fitch 본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으실 때 꼭 확인하세요

그동안 국세청에서 추진해 온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은 사회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어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9,800여곳에 이르며, 이들을 이용한 변칙거래는 대부분 탈세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요소로 선진세정, 선진사회 구현을 위하여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불법 행위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을 위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따라서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업자를 밝혀내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 확인조사

■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불법거래를 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에서 검색된 위장가맹점 혐의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가맹점의 거래내역과 사용자 인적사항 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하여 기업카드, 개인카드로 구분하고 일정금액이상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하여는 실사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확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확인조사 대상자 ◀

(명)

구 분	계	기업카드사용자	개인카드사용자
인 원	64,824	16,976	47,848

■ 확인조사방법

• 확인대상 신용카드 사용자가 적지 않은 관계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확인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 대법인이나 발생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직접조사 예정

• 우편조사는 회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확인에 대한 비밀보호는 물론, 회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1차 미회신자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서면조사를 실시합니다.

- 2차 미회신자 중 고액사용자는 직접조사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유·무선을 통하여 회신을 독려

■ 신용카드 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위장가맹점의 실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에 따라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받으실 때 꼭 확인합시다.

위장가맹점의 매출전표 수취시 불이익

■ 위장가맹점의 매출전표는 복권당첨금 지급 제외

•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복권 당첨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2002.11.30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동 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신용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 및 포상금 지급

〈고발방법〉

•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접수

- 보낼 곳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 고발팀 (우편번호 100-743, 전화번호 02-3788-0755)
- 고발시 포함할 내용
-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 건당 10만원

• 지급시기 : 여신금융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397)
E-mail : ho25400@nts.go.kr